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2009년 1·2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2009년 1·2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1 2009 January

1주차 12.29-01.04

1. 대내정세 — 2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2. 대외정세 — 12
가. 북·미 관계 나. 북·중 관계
다.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4

2주차 01.05-01.11

1. 대내정세 — 16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28
가. 북·미 관계 나. 북·중 관계
다. 북·일 관계 라.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31

3주차 01.12-01.18

1. 대내정세 — 36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48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 54

4주차 01.19-01.27

1. 대내정세 — 58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73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3. 대남정세 — 78

5주차 01.28-02.01

1. 대내정세 — 80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89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기타 외교 관계

인쇄 : 2009년 3월 발행 : 2009년 3월
발행처 : 통일연구원 발행인 :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 북한연구실 편집간사 : 권혜진 연구원
등록 : 제2-02361호(97.4.23) 주소 :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화 :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 <http://www.kinu.or.kr> 디자인 인쇄 : 두일디자인 2285-0936
(비매품)

2 2009 February

1 주차 02.02-02.08

1. 대내정세 — 96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11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18

2 주차 02.09-02.15

1. 대내정세 — 122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36
가. 북·미 관계 나. 북·중 관계
다. 북·러 관계 라. 북·일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42

3 주차 02.16-02.22

1. 대내정세 — 146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56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3. 대남정세 — 159

4 주차 02.23-03.01

1. 대내정세 — 162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74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북·일 관계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78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2.29-01.04

1월
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 다.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새해 첫 공개 활동…군부대 시찰(1/3,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첫 공개 활동으로 북한군 ‘근위서울 류경수 제 105탱크사단’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통신은 3일 오전 2시 김 위원장의 시찰 날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새해에 즈음하여”라고만 소개했지만, 뒤늦게 나온 조선중앙TV와 중앙방송이 “사단의 전체 장병들은 새해의 첫 아침에 친히 부대에 찾아오신 장군님(김정일)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고 보도해 지난 1일 시찰이 이뤄졌음을 시사
 -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통신이 내보낸 김 위원장의 시찰 사진 중 두툽한 장갑을 낀 왼손을 책상에 올려놓은 모습이 있으나 여전히 동적인 면을 찾아보기 어려웠음.
 - 특히 이번에 시찰한 ‘근위서울 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은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시작된 본산으로 선전되고 있음.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에는 현철해, 김명국, 리명수 군 대장 등이 수행

- 北, 김정일에 각국 지도자 연하장 보내(1/1, 조선중앙통신)
 - 2009년 새해를 맞아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각국 지도자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으로 연하장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낸 주요 지도자는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시진핑(習近平) 부주석,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 및 라울 카스트로 현 국가평의회 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베트남의 농 득 마잉 공산당 서기장, 촘말리 사야손 라오스 국가주석,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 압델아지즈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 등임.
 - 이밖에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 러시아 연방의회(상원) 세르게이 미르노프 의장, 렌나트 바

게 유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 등도 연하장을 보냈다고 통신은 보도

-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새해 축전을 보냈다고 평양방송은 전언

● **김정일, 12월 현지지도 특별열차 이용한 듯(12/30, 연합)**

- 정보당국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열차가 12월 들어 자주 이동하고 있으며 이달에 집중된 현지지도(시찰) 때 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소식통은 “북한 언론 보도나 특별열차 이동 횟수 등을 고려하면 이번 달 김정일 위원장은 대부분 특별열차를 이용해 현지지도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고 언급. 김 위원장은 12월에만 군부대를 두 차례 방문하는 등 모두 13회에 걸쳐 공개 활동에 나선 것으로 북한 언론은 전하고 있으나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이 한 차례 더 있다고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짐.

● **김정일, 국립교향악단 공연 관람(12/2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 그러나 통신은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 날짜는 밝히지 않음.
-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 보도는 28일 ‘헌법절’(12.27)에 즈음해 ‘오중흡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323군부대 지휘부를 방문하고, 공군 제1017군부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나온 것임.
- 김 위원장은 “주체교향악은 오늘 선군시대에 최전성기를 수놓으며 비약적인 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교향악을 우리 인민의 비위와 감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 분투한 국립교향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통신은 보도
- 김 위원장과 함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장성택·김양건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들인 리용철·리제강·김경옥·리재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 차승수를 비롯한 책임간부들과 현철해·리명수 북한군 대장이 공연을 관람

나. 정치 관련

- 北, 10·4선언 떠나 북남관계 개선없다(1/3, 노동신문; 평양방송)
 - 노동신문은 3일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 하자’는 제목의 논설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떠나 북남관계 개선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
 - 신문은 신년 공동사설의 남북관계 부분을 해설하면서 “새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는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서 탈선하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평양방송이 전언
 - 신문은 이어 “우리민족끼리”를 거듭 강조하고 “해내외의 정당·단체들과 각 계층 동포들이 민족적 화해와 협력을 위해 서로 지지하고 보조를 같이하며 연대연합과 공동행동”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남측 국민에게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촉구

- 북한 고위직 교체·임명(1/3, 연합)
 - 북한이 최근 장관급 2명을 교체하고 노동당 핵심 보직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2일 확인. 북한 매체는 최근 장관급인 금속공업상을 김태봉으로, 전력공업상을 허택으로 보도. 두 자리는 종전에는 각각 김승현과 박남철이 담당, 북한은 특히 당(黨)·군(軍)·정(政)을 모두 통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부장 김정일)의 제1부부장으로 김경옥이란 이름을 처음 보도
 - 신임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지방 당(黨)조직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짐. 조직지도부에는 4개 부서가 있으며, 중앙당은 리제강, 공안은 장성택, 군사는 리용철, 공석이던 지방당은 김경옥이 제1부부장을 각각 맡게 된 것으로 관측됨.

- 北, 대남 기존노선 유지할 것(1/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일 ‘공동사설이 지적하는 <역사의 분수령>, 2012년 향한 <비약과 기적>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 대한 해설 기사에서 북한이 대남관계에서 “기존 노선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신문은 남한 이명박 정부가 “북남관계에 대해 아무리 허울좋은 말을 늘어

농아도 선언(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의 기본이념인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실천행동으로 증명해보이지 않는 한” 북한의 대남 강경입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반면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조치를 가리켜 “조선의 대외 경제활동의 조건에 그 무슨 변화가 당장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정책전환의 첫발을 떤 것만은 사실”이라고 해석하고 “공동사설은 현재의 비핵화 과정을 계속 전진시켜 자주 원칙에 기초하여 적대국들과의 관계도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풀이

● 北공동사설, 남북공동선언 이행 촉구(1/1,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 북한은 1일 2009년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에서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거듭 강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문제를 거론
-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지에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으로 실린 공동사설은 “우리는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에서 탈선하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바란다면 북남공동선언들을 옹호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

● 군이 당·수령에 충성심 가장 강해(12/31,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선군후로의 원칙’이라는 글에서 “선군후로(先軍後勞)의 원칙은 혁명 위업 수행에서 군대를 주력군으로 내세운다는 것”이라며 이는 “군대는 사회의 그 어느 집단보다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하며 조직성과 규율성, 단력에서도 가장 강하”기 때문이라고 31일 주장

● 北, 한·미, 올해 2천200여 회 북 공중정탐 주장(12/30, 조선중앙통신)

- 국군과 미군이 올해 모두 2천200여 차례 북한에 대한 ‘공중정탐’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주장, 통신은 ‘군사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말하고 이는 북한에 대한 한·미군의 “침략전쟁 준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

● 北, 南국회의장·한나라당 비난(12/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강토를 전쟁터로 만들 셈인가'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최근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3명이 경기도 연천의 전방 부대를 위문한 것에 대해 "군사적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는 행위라고 비난
- 신문은 한나라당에 대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가로막았다는 등으로 비난하면서 "오늘의 파국적인 남북관계를 놓고 볼 때 한나라당의 집권으로 6·15통일시대의 성과들이 다 날아가고 북남 사이의 대결이 격화되며 종당에는 전쟁밖에 터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

● 北, 김정일 '건강 기원' 장시 게재(12/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2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을 기원하는 장시를 게재. 문용철과 한광춘이라는 시인이 공동으로 쓴 '그이는 오늘도 행군길에 계신다'라는 제목의 장시는 "한 해는 다 저물어가도/ 그 해와 달에 엮고산/ 장군님 건강을 바라는 우리의 소원/ 인민의 간절한 소원은 가슴에 그냥 남아/ 더더욱 그리운 어버이 장군님"이라며 김 위원장의 건강을 기원

다. 경제 관련

● 北경공업성, 올해 '입는 문제' 우선 해결(1/4, 조선신보)

- 북한 경공업성은 올해 생활필수품 가운데서도 '입는 문제' 해결에 우선 주력할 방침이라고 조정웅 부상이 언급. 조 부상은 4일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가장 중시하는 것은 방직부문"이라며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를 풀어간다는 입장에서 우리는 생활필수품의 생산에서도 먼저 입는 문제와 관련된 것부터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고 언급
- 그는 2006년부터 평양방직공장의 개보수를 중요 과제로 추진해 지난해 종래의 방직설비를 전면 갱신,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능력을 "몇 십배로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주장하면서 경공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는 북한에 있는 것은 "적극 동원·이용"하고 "없거나 모자란 것은 무역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

● 나진에 태양열 온실 시범 건설(1/2, 미국의소리방송)

- 국제기술지원(EMI)이라는 국제개발자원봉사 단체가 2008년 함경북도 나진에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태양열 온실을 건설, 약 50명의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감자와 가지, 토마토, 오이, 배추 등 다양한 채소를 연중 재배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
- 이 온실은 전기 사정이 어려운 북한의 현실을 고려해 전력이 필요 없고 겨울에도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나진의 한 마을에 시범적으로 만들어짐.

● 北, 새해 첫날부터 경제 '대고조' 부각(1/2,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2008년 연말 경제 분야에서 50년대의 천리마운동을 상기하며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대중선동을 시작한 가운데, 새해 첫날 북한의 주요 기업소와 발전소 등에서 대규모 발파와 증산 투쟁이 벌어졌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일 보도
- 방송은 북한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황해북도 곡창지인 미루별 관개수로, 북한 최대의 철광산인 함경북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등에서 "강선 노동계급의 전투적 호소가 담긴 편지와 당보, 군보, 청년보의 새해 공동사설을 받아"안아 생산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

● 北김정일, 2012년 목표 '경제 전면전' 준비(1/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작년 12월 평안남도 남포시 소재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현지지도에 대해 미국의 정권교체 등 대외정세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경제부흥의 전환 국면"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
- 조선신보는 2008년의 마지막 달 "최고영도자(김정일)의 현지지도를 중대 계기점으로 하여 경제부흥의 전환 국면이 열리게 된 것"이라며 이 "결단은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평가, 자기 나라의 이해와 역량의 타산 등에 기초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
- 국제정세에 대해 신문은 "작년 6자합의 이행 등에서 일련의 진전이 있었고, 미국은 조선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에 변화의 징조가 나타나고 미국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고 지적, 또 "천리마(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 대한 현지지도는

- 2009년부터 시작되는 격동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고 신문은 강조
- 신문은 김정일 위원장이 “2012년을 향한 전민 대진군의 진두에서 새로운 공세와 대담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선군노선에 의해 다져진 정치군사적 위력에 의거해 경제와 인민생활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움으로써 김일성의 100회 생일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
 - 신문은 김 위원장의 제강소 시찰 직후 북한에서 “대중적 운동을 호소하는 대내적인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며 “2012년을 향한 조선의 대내외 정책은 현상 유지를 배격하고 변혁을 요구하는 진보성, 자기 힘에 의거해 더 높고 더 빨리 목표를 달성하려는 적극성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줄기차게 전개돼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

● **北 새 경제동원구호, ‘강선의 봉화’ 등장(12/30, 연합)**

-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평안남도 남포시) 시찰을 계기로 새로운 경제 구호인 ‘강선의 봉화’를 제시, 주민 동원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12월 24일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시찰, 2012년까지 ‘강성대국’ 달성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천리마의 고향인 강선(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옛 이름) 노동자들이 여기에서 ‘선봉’에 설 것을 주문했었음.
- 노동신문은 30일 ‘강선의 본때로 용감무쌍하게 앞으로’라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에서 “천리마의 고향 강선에서 위대한 불길이 타올랐다”며 처음으로 ‘강선의 봉화’를 언급. 이 신문은 천리마제강 종업원들이 28일 쫓겨모임을 열어 북한 전역의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채택한 것에 화답하는 형식의 정론에서 “위대한 장군님 몸소 지퍼주신 강선의 봉화는 혼연일체의 봉화”라며 김 위원장과 주민간 ‘혼연일체’를 강조했음.

라. 사회·문화 관련

● **북한은 역시... 달력마다 김정일 가족사 표기(1/2, 문화일보)**

- 조선회화사 발행 2009년 북한 달력에는 매월 김 전 주석 가족사의 연표가 주요 사항으로 빼곡하게 기록돼 있다고 문화일보는 보도

● 왕건 어진 봉안 만월대 경령전 구조 확인(1/2, 연합뉴스)

- 개성의 고려궁성 '만월대' 구역 중에서도 태조 왕건을 비롯한 역대 고려왕 5명의 어진(초상화)과 신위를 봉안하던 공간인 경령전(景靈殿)과 그 주변 일대 건축물의 정확한 규모와 배치 상태가 확인됐음. 문화재청(청장 이견무)은 남북역사학자협의회(위원장 서중석)와 함께 2008년 11월 4-12월 23일 만월대에 대한 제3차 남북 공동발굴조사를 벌인 결과, 1차 시굴조사에서 일부 확인한 경령전이 동서 22.67m, 남북 10.15m인 장방형 기단에 정면 5칸, 측면 3칸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2일 밝힘. 북한 측에서는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및 민족화해협의회가 발굴조사에 참여

● 평양 새해 맞아 명절 분위기(1/1, 조선중앙통신)

- 2009년 새해 첫날 평양 시민들은 명절 분위기를 즐김. 북한에서 신정인 1월 1일은 2일까지 이틀간 공휴일로 휴식
- 조선중앙통신은 1일 "대동문영화관을 비롯한 영화관, 극장, 문화회관은 관람자들로 붐비고 공원과 유원지에서는 행복에 넘친 시민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새 없었다"고 보도. 옥류관과 청류관 등 평양 시내 음식점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각 가정에서는 찰떡과 녹두지짐 등 명절음식을 차려놓고 장기와 웃놀이 등을 즐기면서 명절을 보냈다고 중앙통신은 소개
- 평양시내 거리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새해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등의 글이 내걸렸고 '새해를 축하합니다' 등의 문구를 담은 포스터와 그림판도 세워짐.

● 北, 10대 최우수선수에 여성 8명 선정(12/31, 조선신보)

- 북한 체육지도위원회가 올해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여자 도마의 홍은정, 여자 역도의 박현숙, 여자 축구의 간판 리금숙 등을 올해의 10대 최우수 선수로 선정
- 10대 최우수 감독으로 선정된 김춘필, 박혜정, 김길남, 류주성, 김광민, 김재식, 리응주, 김용경, 서은학, 박철수 가운데 김춘필, 박혜정 감독은 각각 홍은정, 박현숙 선수를 양성한 여성 감독임.

- 北, 중국 도강자 통제 강화(12/31, 연합: 제259호,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 당국은 중국으로 도강하는 북한 주민들을 탈북하려는 것으로 간주해 국가보위부가 다루도록 하는 등 도강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토록 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31일 보도
 - ‘오늘의 북한소식’ 제259호에서 북한 당국이 11월 28일 “국가보위부의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형사재판의 효율을 높이라”는 내용의 방침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언급. 소식지는 보위부가 도강자들을 취급키로 한 것은 “도강자들이 중국과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탈북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며 “앞으로 국경 연선(접경)지역의 시, 군에서 붙잡힌 도강자들은 보위부에서 집중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北, 평성에 국립묘지 추가 건설(12/30, 조선중앙통신)
 - 평안남도 평성시에 우리의 국립묘지격인 열사릉을 새로 건설하고 30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평성열사릉에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하게 일하면서 특출한 위훈을 세운 일꾼(간부)과 근로자의 유해가 안치되고 돌사진이 붙은 묘비가 세워져 있다”고 전언
 - 준공식에는 리태남 평안남도 당 책임비서와 평성열사릉에 안장된 인사들의 유가족들이 참석
 - ※ 북한에는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신미리 애국열사릉 등 2개의 국립묘지가 있으며 이들 묘지에는 항일투쟁 참가자들과 북한 정권을 위해 ‘공로’를 세운 인사들이 안장되어 있음.

- 北, 문학의 임무는 김일성 부자 위대성 선전(12/13, 문학신문)
 - 북한은 최근 평양에서 올해 문학작품 창작 실적을 결산하는 ‘문예사상연구모임’을 열어 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대성’과 ‘선군시대’의 현실을 그린 작품이 많이 창작된 것을 성과로 꼽고, 2012년으로 설정한 ‘강성대국’ 달성에 전체 주민이 매진하도록 독려하는 “혁명적 문학작품” 창작에 주력할 것을 촉구
 -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문학신문 12월 13일자에 따르면, 이 모임

- 에서는 안동춘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장을 비롯해 강선규 4.15문학창작단 작가, 백의선 현승남 작가동맹 부위원장, 박찬수 작가동맹 아동문학분과위원장, 박영 문학예술출판사 부사장 등이 보고와 토론을 진행
- 이들은 올해 북한 문학계가 거둔 가장 큰 성과로 “‘백두산 3대장군(김일성, 김정일, 김 위원장의 생모 김정숙)’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작품”을 대거 창작해 북한 문학의 성격을 뚜렷이 한 것을 꼽았음.
 - 그 대표작들로는 김 위원장이 1998년 3월 성진제강연합기업소(성강)를 시찰하면서 경제선동 슬로건인 ‘성강의 봉화’를 제시한 것을 그린 장편소설 ‘불’과 함경남도의 ‘대자연 개조’를 내용으로 한 장편소설 ‘봄의 서곡’ 등이 거론되었음. 이들은 김일성 주석을 칭송하는 문학작품을 일컫는 ‘수령형상 문학’의 대표작으로는 단편소설인 ‘열다섯 번째 해’, ‘우리 수령님’, ‘봄 소나기’, ‘믿음의 세계’, ‘움트는 아침’ 등을 내세움.
 - 소설 뿐 아니라 서사시 ‘강계의 눈보라 이야기하라’, ‘우리 조선 길이 받들리’와 장시 ‘해돋이’, 시조 ‘우리의 아버지, 행복한 우리집’, 시뭇음 ‘2월의 전선길’, 담시 ‘흙에 대한 담시’ 등도 김일성 부자에 대한 이상화 면에서 우수작으로 꼽았음.
 - 아동문학 부문에서 서사시 ‘영원히 빛나라 우리의 새날이여’, 단편소설 ‘올 기강의 아침’, ‘해님의 딸’ 등을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선정
 - 또 김 위원장이 통치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를 일컫는 ‘선군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 대거 창작됐다고 소설부문 대표작으로 장편 ‘조옥희’, ‘달라진 선택’, ‘인생의 악보’를, 단편 ‘적동색 머리수건’, ‘숲에 깃든 녀’이 거론되었음.

● 北, 살림집 건설 ‘뵐’(12/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근 평양을 비롯해 각 지역에서 일체식 및 조립식 공법의 ‘살림집 (주택)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 통신은 “평양시 만수대거리를 비롯해 수도의 여러 곳에서 살림집 건설이 한창”이며 “각 도, 시, 군들에서도 지방의 특성을 살린 살림집들을 건설” 중이라고 보도
- 통신은 “평양시 건설지도국에서는 만수대거리에 수도의 다른 중심거리들과 조형예술적으로 잘 어울리는 여러가지 형식의 살림집들을 일떠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체식 공법과 조립식 공법을 받아들여 살림집 골재공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고 소개

- 통신은 올해 “평양시 형제산구역, 순안구역을 비롯한 여러 시, 군, 구역들에 건축학적 특성을 잘 살린 많은 살림집들이 건설”됐으며, 황해남도 재령군 래림리, 신원군 신창리 등 농촌지역들도 살림집을 새로 짓거나 개건보수했다고 소개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北신문, 美에 핵전파 책임(1/2,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2일 “편견적인 태도는 핵문제를 더욱 북·미국의 핵 이중기준 정책이 문제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이중적 기준을 갖고 각국의 핵 문제를 다룬다며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
- 신문은 이날 최근 미 의회의 한 위원회가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이 폭발적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한 “반면 미국은 요즘 중동의 일부 나라들과 핵협정 체결을 시도”하고 있어 “미국의 핵연료와 기술, 지식이 조만간 이 나라들에 제공될 것”이라고 주장

나. 북·중 관계

● 北김정일-中후진타오 ‘친선의 해’ 다짐(1/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1일 새해 축전 교환을 통해 올해 성공적인 ‘북·중 친선의 해’를 다짐
- 후 주석은 1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나는 이 기회에 당신과 함께 ‘중조 친선의 해’가 정식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에 대해 열렬히 축하한다”며 “올해는 중조 두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60돌이 되는 해”라고 밝혔다
- 후 주석은 이어 “중·조 친선의 해’는 두 나라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

다는 상징”이라며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친선을 증진시키고 교류를 촉진하며 협조를 심화시켜 중·조 친선협조 관계의 보다 아름다운 내일을 공동으로 개척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하고 “중·조 친선의 해”의 원만한 성공을 축원한다”고 덧붙였다.

- 김정일 위원장도 축전에서 북한과 중국 간 “외교관계 설정 60돌이 되는 2009년은 두 나라 인민이 ‘조·중 친선의 해’로 맞기로 한 뜻 깊은 해”라며 “새해를 ‘조·중 친선의 해’로 의의있게 장식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은 호상 이해와 친선을 더욱 두텁게 하고 조·중 친선관계 발전 역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게 될 것”이라고 언급

다. 기타 외교 관계

● 北김영남, 팔, 독립국가 수립될 것(12/31, 연합; 12/30, 북한외무성 대변인)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31일 팔레스타인 혁명 시작 44주년을 맞아 보낸 축전에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반드시 수립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며 “합법적인 민족적 권리를 되찾기 위한 친선적인 팔레스타인 인민의 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한다”고 언급. 앞서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30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을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난하고 “모든 군사행동을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

● 北최태복, 쿠바와 친선관계 강화(12/29, 연합)

- 노동당 최태복 비서는 29일 “앞으로도 쿠바 인민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최태복은 이날 호세 마누엘 몬타노 북한 주재 쿠바대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7주년을 맞아 주최한 연회에 참석해 “쿠바 인민이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적 원칙을 고수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

3) 대남정세

● 개성과 고성에 연탄 각 5만 장 전달(12/30, 연합)

- 대북 연탄지원 사업을 펼치는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이사장 변형윤)’은 30일 북한의 개성과 고성 지역에 올해 마지막 지원분으로 5만 장씩 각각 전달
- 원기준 연탄나눔운동 사무총장은 “오늘 지원분까지 합해 올해 모두 80만 장씩을 개성과 고성에 지원했다”며 “통상 100만 장씩 지원하는데, 그나마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도 남북 동포 간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

● 北, 범청학련 南의장 실형선고 비난(12/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반통일 분자들의 야수적인 폭거’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33) 의장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를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고 통일 민주 세력을 탄압 말살 하기 위한 억지공사”라고 비난
- 신문은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 칼질하는 것보다 더 반민족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

● 개성공단 탁아소 2009년 초 착공(12/29, 연합)

- 개성공단 내 탁아소 건설 공사가 2009년 초 시작된다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관계자가 29일 밝힘. 이 관계자는 “탁아소 설치를 위한 설계 작업을 마쳤으며 금명간 시공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공사는 내년 초에 시작 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언급
- 공사는 2009년 1월 시작될 예정이지만 날씨 등의 사정에 따라 다소 늦춰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정부는 지난 달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를 위한 탁아소(200명 수용 규모) 건설비용 9억 원을 의결

01.05-01.11

1월
2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 다. 북·일 관계
- 라.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北김정일, 원산청년발전소 방문(1/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롭게 건설된 강원도 원산청년발전소를 시찰하고 수력발전소 건설에 계속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새해 들어 군부대 2곳을 시찰한 데 이어 3번째 공개 활동으로 이 발전소를 찾아 “강성대국”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자며 지난해 말부터 내세워 온 “혁명적 대고조”를 거듭 강조
 - 김 위원장의 원산청년발전소 방문에는 리철봉 강원도 당 책임비서, 장성택 당 중앙위 부장, 리재일 당 중앙위 제1부부장,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 등이 수행했으며, 현지에서 박정남 강원도 당위원회 비서와 로길종 강원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영접
 - ※ 북한 언론매체들은 종래 김 위원장의 경제시설 시찰 때는 거의 반드시 “현지지도”라고 표현했으나 2008년 연말부터 “방문”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음.
 - ※ 청년발전소는 평양-원산간 관광도로 사이의 무지개동굴 평양 쪽 입구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36km 떨어진 곳에 건설됐으며 1호기는 4만kW, 2호와 3호기는 각 6천kW, 4호기는 8천kW 등 총 6만kW의 발전능력을 갖췄음.
- 김정일 연초 잇따라 군부대 시찰(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인민군 포병사령부 산하 제1489군부대를 방문해 포사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 김 위원장의 포병부대 방문은 새해 첫 공개활동으로 북한군 ‘근위 서울 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시찰한 데 연이은 것임.
 - 김 위원장은 포병사령관인 리정부 상장 등의 영접을 받아 부대 실태를 보고 받고 포사격 훈련을 지켜봄. 그의 시찰엔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김정각 대장과 현철해 김명국 대장,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사회부문 간부들이 수행

나. 정치 관련

- **北, 日총리 방한으로 남북관계 더 파국 주장(1/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일본을 등에 업고 어디로 가려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날부터 시작된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의 방한에 대해 “남조선의 보수당국과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북한)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가뜩이나 악화된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떠미는 부정적 후과(결과)를 빚어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

- **통일신보, 이 대통령 국정연설 비난(1/10, 통일신보; 1/11, 우리민족끼리)**
 - 통일신보는 10일 남북관계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월 2일 국정연설을 북한 매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거론하면서 “동족 대결책동이 새해에 들어와서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 통일신보는 이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남북관계를 의연하면서도 유연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힌 점은 “북남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올해에도 범종교적인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지속시키려는 기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

- **최승철, 양계장에서 혁명화 교육 중(1/11, 연합)**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판단 실책 등의 책임을 지고 2008년 해임된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최승철 전 부부장이 황해도 지역의 한 닭공장 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그가 대형 양계장격인 황해도의 ‘닭공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그가 계속 그곳에서 있을지 통일전선부로 복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 그의 복귀 가능성과 관련, 소식통은 “혁명화 교육을 받은 지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복귀 가능성을 점치기 쉽지 않다”며 “그동안 다른 사례에 비춰 보면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임.

- **평양 대학생들, 천리마제강 방문(1/10, 조선신보)**
 -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1950년대 천리마 운동을 계승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강조한 가운데 평양의 대학생들이 ‘천리마의 고

향으로 불리는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직접 방문, “천리마 기상”을 배우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0일 보도

- 신문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새해 벽두부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사회정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면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김형직사범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미술대학 등에 재학 중인 평양의 대학생들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천리마의 고향으로 불리는 강선(천리마 제강의 옛 이름) 땅을 찾고 있다”고 보도. 특히 5일 신년 공동사설을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가 열린 이후 “기업소를 찾는 대학생들의 수가 급증했다”고 신문은 보도

● 北, 공동사설 관철 결의대회 전역 확산(1/9, 연합)

- 북한에서 신년 공동사설이 제시한 과업의 관철을 다짐하는 군중대회가 평양을 시발로 전역에 확산. 지난 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김영일 총리,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중린 당 중앙위 비서 등 고위 당·정 간부들과 시민 10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군중대회가 열린 데 이어 6일엔 자강도, 황해남도, 강원도, 량강도에서, 7일엔 평안남·북도, 황해북도, 함경남도에서, 8일엔 함경북도에서 군중대회가 열렸음.
- 중앙과 도 단위 행정조직을 동원한 군중대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결의대회는 시·군 단위와 각급 기업과 협동농장, 사회단체로 확산 중
- 이들 쫓기대회에선 지난해 말 김정일 위원장이 방문,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는 데 선봉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종업원들이 쫓기모임에서 채택한 ‘전국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단골로 소개

● 北 강경파 입지 잃은 듯(1/8,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 1/9, 연합)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복귀하면서 강경파가 입지를 잃은 것 같다고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이 8일 보도
- 신문은 중국 선양(瀋陽)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의 말을 인용, “김 위원장의 와병 기간에 그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등 강경파가 득세했으나 최근 수일 사이 장성택 부장이 당 내부에서 심각한 비판을 받았다”면서 북

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은 김 위원장의 복귀와 강경파에 의한 과도통치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

- 신문은 장성택이 몇 년 전부터 생겨난 자유시장을 한 달에 3일만 열도록 하고 50세 미만 여성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적대정책을 강화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북한식 '네오콘'의 부상은 "김 위원장의 재등장에 따른 개각 등 최근의 사태전개로 과거의 일이 됐다"고 설명

● 천리마운동 선구자는 南출신(2008년 10월호, 조국: 1/8, 평양방송)

- 북한 언론매체들은 북한 당국이 최근 다시 꺼내든 1950,60년대 천리마운동의 '선구자'로 남한 출신의 진응원씨를 내세우고 있음. 월간 '조국' 2008년 10월호 등 북한의 각종 매체들에 따르면 고향이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노탑리인 진씨는 6.25전쟁 때 북한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을 때 북한군에 입대했다가 국군에 포로가 됐으나 포로교환 때 북쪽으로 송환된 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용해공(용광로의 벽을 쌓거나 손질하는 노동자)으로 북한에서 생활을 시작
- 전후 북한에선 포로 출신의 경우 대부분 제일 밑바닥으로 취급돼 좋은 직장을 갖기 어려웠고 게다가 남한 출신이라는 점은 큰 장애요인일 수밖에 없었음. 진씨가 어려운 처지를 벗어날 계기를 잡은 것은 1956년 12월 28일 당시 김일성 주석이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찾았을 때 기업소 간부, 모범노동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진씨는 용광로의 용해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건의함으로써 이후 '천리마운동'의 모범으로 북한 사회에 선전되었음.

● 北학생들, 출근길 부모에 꽃다발·합창 격려(1/8, 조선신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8년 말 1950년대 '천리마운동'의 전통을 계승해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주문하고 신년 공동사설이 이를 강조한 데 이어 "대대적인 선전 캠페니아(캠페인)"가 북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음.
- 조선신보는 8일 겨울방학을 맞은 중학교(중고교 과정), 소학교 학생들이 가창대와 취주악대 활동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력적 혁신을 호소하는 다

양한 사회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꽃다발을 흔들며 힘찬 합창으로 부모형제들의 출근길을 고무해 주고 있다”고 보도

- 또 “도시와 마을의 곳곳에” 신년 공동시설의 취지를 설명하는 전시물들이 나붙었고, “아침, 저녁마다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선전이 박력있게 벌어지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하며 이 캠페인의 “중심 내용은 천리마 시대 혁명적 대고조의 전통을 계승하려 경제건설의 모든 부문들에서 일대비약의 폭풍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소개

● 개성시 인민위원장에 박용팔 임명(1/8,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개성시 인민위원장에 박용팔 전 황해북도 서흥군 인민위원장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됨. 조선중앙방송은 8일 신년 공동시설에 대한 “반향” 방송을 내보내면서 박용팔을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호칭
- 개성시 인민위원장은 전임 김일근 위원장이 개성공단 현장 총책임자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었음. 개성시가 지리적으로 황해도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사정에 밝은 박용팔 위원장을 임명한 것으로 보임.

※ 김일근 전 위원장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 영접했으며, 2003년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에도 선출돼 개성시 인민위원장 자리가 정치적으로도 비중이 있는 위치임을 보여줌.

● 北, 3월 8일 대의원 선거 실시(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6일 전원회의를 열어 대의원 선거에 대한 결정을 채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를 2009년 3월 8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전원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다”며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전원회의 참가자들의 일치한 지지 속에 성과적으로 채택됐다”고 보도. 통신은 “회의에서는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날짜를 2009년 1월 7일(수요일)에 통신과 신

문, 방송으로 전문 보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 이번에 새로 최고인민회의가 구성되면 김 위원장을 다시 국방위원장에 추대할 것으로 예상돼 김정일체제 3기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짐.
- 제12기 최고인민회의는 구성 즉시 올해 예결산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국방위원회 위원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내각 등의 인사문제도 다룰 것으로 전망돼 북한 권력 엘리트의 세대교체 등 변화 여부와 그 방향, 후계구도와 연관성 등이 주목됨.
- 대의원 선거 실시 결정과 관련,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것임. 북한이 이처럼 대의원 선거 실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한 것은 북한의 선거가 비민주적이라는 외부의 비판을 의식해 정해진 정책결정 시스템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풀이

● 北, 장관급 9명 이상 교체(1/5, 조선중앙통신; 연합)

- 북한이 최근 개각(改閣)을 통해 9명 이상의 장관급을 교체하고, 인민군과 노동당의 핵심 보직에도 일부 변화를 준 것으로 5일 확인됐음.
- 북한 매체가 최근 장관급인 금속공업상을 김태봉으로, 전력공업상을 허택으로 보도한 것을 포함해 “철도상에 전길수, 임업상에 김광영, 무역상에 이용남이 각각 새로 기용됐다”고 통일부가 발표, 정부 당국자는 “이들 5개 부처 외에 상업성·재경성·수산성·민족경제협력위원회 등 4개 부처의 장관도 바뀐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후임자 이름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언급. 확인된 장관급 교체율만 전체 내각(37개)의 25%에 달하는 규모로써 당국자는 “최근 북한 개각의 특징은 경제관련 부처 장관을 대부분 교체했다는 것과 내부 승진자가 많다는 것”이라고 평가
- 조선중앙통신은 또 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포병사령부 산하 부대 현지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포병사령관을 “리정부 상장”이라고 보도함. 종전의 포병사령관은 정호균 상장이었음.

다. 경제 관련

● 北, 中과 교역강화, 단동에 출장소 첫 개설(1/11, 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과의 최대 교역 창구인 중국 단둥(丹東)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영사 출장소를 개설한 것으로 11일 확인. 북수의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의 주 선양(瀋陽) 총영사관이 최근 단동에 출장소를 개설하고 직원을 상주시켰다”면서 “이는 북-중 무역 활성화와 중국을 통한 물자 조달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와 함께 북한 주민 관리 등 영사업무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언급. 비록 규모가 작은 출장소이긴 하지만 공식 외교공관이 단동에 들어선 것은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임.
- 북한은 북-중 교역 물자의 70% 이상이 통과하는 단동에 출장소 개설을 중국 당국에 꾸준히 요청해 왔으며 수교 60주년과 맞물려 북-중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가운데 이번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 원산청년발전소 준공식(1/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002년 10월 착공한 강원도 원산청년발전소 준공식이 10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준공식에는 김영일 내각 총리와 박남기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광린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관계부문 일꾼과 건설자, 근로자들이 참가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원산청년발전소 건설에 동원됐던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에게 7일 감사문을 보냈다고 통신은 보도
- 원산청년발전소는 평양-원산 간 관광도로 사이의 무지개동굴 평양 쪽 입구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36km 떨어진 곳에 건설됐으며 총 6만kW의 발전능력을 갖췄음.

● 평양제사공장, 연내 설비개조 완료(1/10, 조선신보)

- 북한의 대표적 섬유공장인 평양제사공장이 올해 안으로 생산공정 현대화를 완료할 방침이며, 설비 현대화가 완료되면 비단실 생산량은 2.7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10일 보도
- 한편,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인민소비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생활필수품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것”을 경공업 부문의 과제로 제시한 것

과 관련, 평양제사공장은 “날마다 하루 계획을 150%로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신문은 주장

● 美 대북 지원식량 6차분 남포 도착(1/10, 미국의 소리방송)

-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식량 50만t 중 6번째 선적분인 옥수수 2만1천t이 8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
- VOA는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비정부기구(NGO)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 국적선 ‘이스턴 스타’호가 남포항에 도착해 현재 하역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언. 이번 선적분은 당초 지난 3일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기상과 바다 상태 때문에 도착이 늦어졌다고 VOA는 설명
- 대북지원 식량은 머시코, 월드비전,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5개 미국 NGO들이 평안북도과 자강도 내 25개 군에서 분배할 예정이라고 VOA는 보도
- ※ 미국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이 시작된 2008년 6월부터 지금까지 5차에 걸쳐 옥수수와 밀, 콩 등 곡물 14만3천330t을 전달, 이 중 4만5천260t은 NGO들을 통해 분배됐고 나머지 9만8천70t은 세계식량계획(WFP)이 함경 남·북도, 량강도, 강원도, 황해남·북도, 평안남도, 평양 등 8개 지역에 분배

● 北, 석탄증산 투쟁 선전(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의 한 산업으로 중시하는 석탄 분야에서 신년 공동시설을 관철하기 위한 증산 투쟁이 벌어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
- 평안남도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는 “채탄 노력을 보강하고 설비, 자재 보강”을 통해 석탄 증산에 나섰고, 2.8직동청년탄광과 천성청년탄광은 “연속천공, 연속발파로 굴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통신은 소개
- 통신은 석탄공업성이 “화력발전소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해 막장 설비와 동발나무(광산의 갱목), 각종 부속품들을 보장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각지 탄광 노동계급의 노력에 의해 석탄 생산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

● 중유사용 北동평양발전, 작년 1.3배 증산(1/8, 조선신보)

- 북한의 평양시와 평안남도 일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북한 동평양화력 발전소가 2008년 전력생산을 2007년에 비해 1.3배로 늘렸다고 조선신보가 8일 보도
- 조선신보는 이 발전소의 전력 증산 이유에 대해 “1980년대에 도입한 동평양발전소의 설비는 한때 (석탄)연소율이 91%로 떨어졌는데 발전소가 자체의 힘으로 기술개선(개선)을 다그쳐 작년 말까지 95%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을 꼽음.
- 그러나 북한의 다른 화력발전소에선 중유를 불을 붙이는 착화 연료로만 사용하고 발전의 기본 연료로는 석탄을 이용하는 데 반해, 동평양발전소는 중유를 주 연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북핵 6자회담 ‘2.13합의’에 따른 6자회담 참여국들의 대북 중유 제공도 전력 증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대가로 지원키로 한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가운데 미국은 중유 20만t 지원을 완료했고 러시아는 20만t중 15만t, 한국은 20만t중 14.5만t을 각각 지원했으며 중국은 중유 10만t 상당의 발전설비 자재 등을 지원했음.

● 北 평양 운수기업소서 버스조립 추진(1/7, 조선신보)

- 북한 평양시여객운수연합기업소가 버스 수리공장에서 중형버스와 화물자동차를 조립생산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7일 보도
- 조선신보는 평양시의 대중 교통망 개선 사업 소식을 전하면서 평양시여객운수연합기업소가 “버스 수리공장에 새로운 생산공정을 구축해 중형 버스 및 화물자동차들을 조립생산할 높은 목표도 세웠다”고 보도

● 北철도성, 철도 중량화·통신망 구축 주력(1/7, 조선신보)

- 북한 전길수 철도상은 2012년까지 철도 중량화를 통해 수송능력을 높이고 철도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 전 철도상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철길의 강도를 높여 철도의 중량화를 실현하는 사업에 계속 주력한다”며 “2012년까지를 주요 철도망의 철도 중량화를 완결하는 해로 정하고 끈기있게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언급

● 北화학공업성, 화학비료 생산정상화 주력(1/6, 조선신보)

- 북한의 한승준 화학공업성 부상은 2008년 “각종의 화학비료와 농약, 시약 문제의 해결에서도 전진이 있었다”며 북한이 강성대국 달성 목표 해로 정한 2012년까지 화학비료의 생산을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언급
- 그는 6일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는 국내원료에 의한 무연탄 가스화공정이 마감(마무리)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이것이 완성되면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해 오던 일부 화학비료들을 국내 자체의 힘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

● 김정일 비자금관리인이 埃회사 투자 유치(1/6, 연합)

- 이집트의 대표적인 기업이자 아랍권에서도 손꼽히는 오라스콤 그룹이 최근 이동통신과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대북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리 철 스위스 주재 대사의 작품인 것으로 알려짐.
- 대북 소식통은 6일 “휴대전화 개통, 류경호텔 공사 재개, 합작은행 설립 등 오라스콤의 대북 투자는 리 철 대사가 직접 나서 오라스콤과 거래한 사업”이라며 “리 대사의 지시를 받아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관도 깊숙이 개입했다”고 밝혔다.
- 리 철 대사는 1980년부터 스위스 제네바대표부 공사와 대표, 스위스 주재 대사로 활동하면서 김 위원장의 비자금 관리와 김 위원장과 그 가계의 사생활에 관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 중 한 사람임. 이러한 임무 때문에 리 대사는 김정일 위원장의 직접 지시로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서기실의 부부장 직책도 겸하고 있음.
- 한편 2008년 12월 15일 ‘고려 링크’란 이름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북한의 이동통신은 오라스콤이 북한에 건설한 공장에서 생산한 CDMA 단말기로만 통화가 가능하며, 북한 외에서 구입한 타회사의 단말기로는 통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대북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고위층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지만, 간부들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북한 원화로 싸게 살 수 있는 반면 일반 주민은 500달러 안팎의 비싼 값 때문에 구입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 북한은 오라스콤의 단말기를 도입하면서 특히 통화내용을 도청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짐.

- 北, 5개년 경제계획 추진 중(1/5, 조선신보)
 -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 연차 계획”을 수립해 각 부문마다 설정된 “구체적인 도달 목표와 달성 수치”에 따라 생산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5일 보도
- 北, 작년 4.4분기 추첨제 저금 추첨행사 개최(1/4, 조선중앙TV)
 - 북한이 주민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추첨제 저금의 2008년 4.4분기 저금 추첨행사를 최근 평양시 강남군에서 가졌다고 조선중앙TV가 4일 보도
 - 중앙TV는 이번 추첨에서 1등 1개, 2등 2개, 3등 20개의 번호가 당첨됐다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당첨액수는 밝히지 않음.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2008년 경기 신기록 30여 개 수립(1/10, 조선신보)
 - 북한 체육선수들은 2008년 국내 경기대회에서 역기(역도), 육상, 사격, 활쏘기(양궁), 수영 등의 종목에서 30여 개의 신기록을 세웠다고 조선신보가 10일 보도
- 국제사회 대북 의료지원 새해도 계속(1/9, 자유아시아방송)
 - 결핵을 비롯해 북한의 열악한 보건 의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사업이 올해도 적극 추진될 전망.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에서 결핵 퇴치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 민간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hristian Friends of Korea)’은 지난 주 결핵약을 포함해 각종 의약품과 의료장비, 식료품 등을 북한으로 보냈으며 이에는 병실과 수술실 개선용 전력 장비와 부품 등 의료장비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이 단체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협의한 결과 WHO도 “북한에서 필요한 결핵약의 보급이 늦어질 경우 사망자가 늘어나고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올해도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다”고 소개

- 유엔아동기금(UNICEF)도 지난 수년간 북한 주민의 90% 이상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의료 사업을 더 강화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예산도 추가 요청할 계획”이라고 UNICEF 고팔란 발라고팔 평양사무소 대표는 언급
- 2008년 미국의 4개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 병원 10여 곳의 의료개선 사업에 400만 달러를 지원했던 미국 정부는 올해도 “북한 의료진에게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 장비를 추가 제공하는 등 의료개선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미 국무부 관리가 밝혔다

● 北최고도예가 자녀들, 가업 계승(1/8, 조선신보)

- 북한에서 최고의 도예가이자 ‘고려청자의 대가’로 불리는 고 우치선(2003년 사망)의 자녀들이 “정력적인 창작활동”으로 아버지의 “넋과 기술을 계승”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8일 소개
- 우치선은 1919년 평양시 강남군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처음으로 고려청자를 재현하는 데 성공해 1983년 ‘공훈 예술가’ 칭호를 받고 1989년 ‘김일성상’을 수상했으며, 2003년 숨졌을 때는 남한의 국립묘지격인 애국열사릉에 묻혔음. 그의 도자기 작품들은 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국보적 가치가 있고 세계에 당당히 자랑할 만하다고 최상급의 평가를 받았다”고 신문은 보도
- 신문은 우치선의 딸 복단(47), 아들 철룡(44)씨가 만수대창작사 도자기창작단에서 “고려청자의 높은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고 전하고, 철룡씨는 “고려청자의 전통적 장식기법인 인장무늬를 위주로 적용하면서 독특한 형태와 접상감 장식기법을 현대 고려청자에 도입한 재능있는 도예가”라고 소개

● 北TV, 박지성, 혼자 두 뭇 하는 선수로 소개(1/5,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가 영국 프로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산소탱크’ 박지성을 “혼자서 두 뭇 하는 선수”라고 높이 평가
- 중계 캐스터가 박지성 선수를 보며 “방금 화면에 나왔던 선수는 아시아 사람과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라고 하자 해설을 맡은 체육과학연구소 리동기 교수는 “13번 박지성 선수”라며 “지금 2010년 제19차 월드컵의 아시아 최종단계 예선경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서 우리가 남조선과 대

전하고 있는데 남조선 팀의 핵심선수이기도 하다”고 박지성이 남한 축구선수임을 분명히 설명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美·WFP, 식량분배 감시 요원 수 이견(1/6,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정부와 세계식량계획(WFP)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의 분배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한 한국어 구사 요원의 숫자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의 조건으로 북한 측과 ‘한국어 구사 요원’의 규모를 놓고 협의 중이나 진통을 겪고 있음.
- RFA는 손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이 12월 30일 “WFP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감시 요원이 부족한 점이 핵심 문제”라며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조건에는 WFP와 미국 비정부 구호단체에서 활동하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감시 요원’의 수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WFP측은 분배 감시활동에서 ‘한국어 구사 요원’의 규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지적. WFP측은 “한국인 출신(ethnic Korean)은 아니지만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소수의 요원이 북한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요원의 많고 적음이 감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
- RFA는 “WFP측은 현재 미국과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협의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만일 1월 중순까지 미국으로부터 식량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에는 운반 차량, 식량 저장고, 식품 공장 등 각종 지원 사업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임.

나. 북·중 관계

● 中외교부 대표단 방북(1/9, 조선중앙통신)

- 후정웨이(胡正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외교부 대표단이 9일 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그러나 통신은 대표단의 방문 목적이나 일정, 공항에서의 영접인물 등은 밝히지 않음.
- 중국 외교부 내 4명의 부장조리 가운데 한 명인 후 부장조리는 아시아지역, 조약, 법률 담당임. 그는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아시아국 국장을 거쳐 2008년 7월 말 부장조리에 임명됐으며,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외교관 경력을 쌓은 '동남아시아통'임.

● 김일성 전우, 中항일여결 영결식 거행(1/7, 충칭만보)

- 김일성 주석의 전우이자 중국 항일전쟁의 영웅인 후전이(胡眞一)가 6일 충칭(重慶)시 난산(南山) 룡위안(龍園)에 안장됐음. 7일 중국 충칭만보(重慶晚報)에 따르면 2008년 9월 14일 사망한 후전이의 영결식장에는 검은색 양복 차림의 최경 주중 북한대사관 참사와 김영일 주중 북한대사관 수석1등 비서가 참석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후전이 영결식장에 특별히 조문객을 파견한 것은 후전이가 김일성 주석 생존 당시 해방 이후 소재지를 찾을 정도로 절친한 '전우'였기 때문임.

다. 북·일 관계

● 北, 조총련 탄압 목인 안할 것(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북한과 일본 간 국교가 없는 상황에서 "(조)총련이 공화국(북한)의 대표부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조총련에 대한 일본 당국의 수사 등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 칼부림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비난
- 노동신문은 논평에서 조총련에 대한 "탄압"은 일본이 지난해 납치문제 등을 내세워 북한 "고사작전"을 펼치는 등 대북 적대시 정책을 더 "악랄하게

실행”한 연장선이라고 주장. 이어 신문은 “일본 반동들의 반총련 책동을 묵인하면 그들은 더욱 오만하게 날뛰게 되므로 적대시 책동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로 스쳐 보내서는 안되며 단호히 분쇄해버려야 한다”고 언급

라. 기타 외교 관계

● 네팔주재 北대사관, 면세석유 대량구입 사용처 의혹(1/8, 텔리그래프 위클리; 1/9, 자유아시아방송)

- 네팔 주재 북한 대사관이 외교관의 면세 특권을 이용해 매달 추정 소비량 이상의 석유류를 대량 구입해 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네팔 언론보도를 인용해 보도
- 네팔 영문 주간지 ‘텔리그래프 위클리’는 8일 “네팔 주재 북한 대사관이 소유한 차량이 4대 밖에 되지 않는데 매달 석유 1만2천ℓ와 경유 1만2천ℓ 등 총 2만4천ℓ의 석유류를 세금을 내지 않고 구입해 오고 있다”고 보도
- 텔리그래프 위클리는 “북한 대사관은 네팔에서 아무런 협력 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면세로 구입한 그 많은 석유제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가 의문”이라고 주간지는 보도

● 北, 팔레스타인 지지 ‘연대성 모임’ 개최(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북한)-팔레스타인(팔레스타인) 친선 및 연대성 위원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과 관련,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지지, 성원하기 위한 연대성 모임”을 7일 평양에서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모임에는 친선 및 연대성 위원회 위원장인 김병팔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관계부문 일꾼(간부)들이 참가
- 7일 조선중앙통신은 ‘무엇을 노린 살육 광증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내세워 중동지역에서 도발한 대리전쟁”이라고 주장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싸잡아 비난

3 대남정세

● 정부, '통일쌀' 대북반출 승인(1/9, 통일부)

- 정부는 민간단체가 대북지원 차원에서 추진 중인 '통일쌀' 제공 사업을 승인했다고 9일 발표.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농민본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쌀 지원 사업과 관련, 8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소개
- 6·15농민본부 등은 경기, 강원 등 8개 도에서 직접 재배하거나 민주노총의 모금을 통해 사들이는 방법으로 마련한 통일쌀 162t 4천313가마를 9일 인천-남포 항로를 통해 보냄.

● 정부, 대북 뼈라 북한돈 살포 입장 피력(1/9, 통일부)

- 통일부 김 대변인은 일부 민간단체들이 북에 뼈라와 함께 북한 돈을 뿌리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언급, "북한화폐는 허가를 받아야 반입할 수 있는데, 만약 교역업자가 세관을 거치지 않고 반입했다면 밀수가 되는 것"이라며 "법집행에 관한 권한은 세관이 가지고 있다"고 언급. 그러나 그는 "북한 화폐를 반입해 전달살포에 사용하는 행위가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

● 평양 남북경협 업체 100곳 정상가동 중(1/9, 연합뉴스)

- 북한이 2008년 12월 군사분계선 통행을 엄격히 제한한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사업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평양 시내의 남북경협 업체 약 100곳은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평양에 남북 합영회사인 평양대마방직을 세운 안동대마방직의 김용현 이사는 9일 "평양에는 의류 임가공 중심으로 약 100개 남북 경협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11,12월엔 상황이 좀 심각했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언급하며 "남북관계가 더 악화돼 북한이 전면 차단하는 일만 없다면 공장 운영에 문제없다"고 덧붙임.
- 지난 10월말 준공식을 가진 평양대마방직공장은 원자재를 확보하는 대로 오는 3월부터 정상가동할 계획이라고 김용현 이사는 밝히며 "평양대마방직 공장의 제품가운데 남한에 들여올 수건, 양말 같은 것은 중국 제품보다

단가를 싸게 국내에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 그러나 안동대마방직측은 평양대마방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수준을 놓고 아직 북한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힘.

● 개성공단 생산액 5억 달러 돌파(1/8, 통일부)

- 2008년 말 개성공단의 누적 생산액이 5억 달러를 넘어섰음. 8일 통일부에 따르면 2008년 1~11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생산액은 2007년 같은 시기 1억6천538만 달러에 비해 39% 증가한 2억2천918만 달러를 기록, 이로써 개성공단이 실질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2005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누적 생산액은 5억261만 달러가 됐음.
- 한편 개성공단에서 가동 중인 기업과 북측 근로자 수는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93개, 3만8천931명으로 집계돼 작년 1월 66개 업체, 2만2천778명에 비해 기업 수에서 41%, 근로자 수에서 71% 늘어났음.

● 경기2청, 남북협력사업 확대(1/7, 경기도)

- 경기도 제2청은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올해 남북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7일 발표. 도(道)2청은 2008년에 이어 개성 개풍양묘장 사업, 산림 병해충방제, 말라리아 공동방역, 공동 벼농사 등을 추진키로 함.

● 北문영호, 내외정세 불구 ‘겨레말 큰 사전’ 완성(1/7, 조선신보)

- 남북한 언어학자들이 함께 편찬 중인 ‘겨레말 큰 사전’의 북측 편찬위원장인 문영호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장은 “내외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겨레말 큰 사전을 민족의 통일 발전에 기여하는 특색 있는 사전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신보가 7일 보도
- 문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반통일 정책에 의해 겨레말 큰 사전 편찬사업도 중도반단(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
- 문 위원장은 “겨레말 큰 사전 편찬사업은 학술적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며 “겨레의 님을 지키고 민족 분열의 위기를 타개하며 문화의 단일성, 언어의 단일성을 실현하는 것은 통일시대에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

● 北, 휴대폰 반입 시 압수·복귀조치(1/7, 통일부)

- 북한은 반입금지 물품인 휴대전화를 가져 온 방북자가 적발되면 즉시 남으로 돌려보낼 것이며 자진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기까지 압수하겠다고 통보. 북한 통행검사소는 지난 5일 이같이 강화된 단속 지침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7일 발표
- 북이 통보한 지침은 휴대전화를 소지한 방북자가 소지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전화기는 압수하지 않고 즉시 돌려보내며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전화기 압수 및 즉시 복귀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개성공단에서 나오다 적발될 경우 전화기를 압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음.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1.12-01.18

1월
3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北김정일, 군부대·유원지 시찰(1/1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중흡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북한군 제2752군부대 관하 구분대를 시찰하고 평양 룡악산유원지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
 - 군부대 시찰엔 북한군 현철해, 리명수 대장이, 유원지 현지지도엔 장성택 당 중앙위원회 부장과 주규창, 리재일 당 중앙위 제1부부장들, 현철해, 리명수 대장이 수행
 - ※ 룡악산(해발 292m)은 평양의 금강산으로 불리며, 룡악산유원지는 2006년 9월께 완공

- **김정일, 평양 제사·곶공장 현지지도(1/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제사공장과 평양곶공장 등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
 - 김 위원장은 평양제사공장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고 “평양제사공장은 명주실 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공장의 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여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 있게 추진시켜야 한다”고 언급
 - 김 위원장은 이어 통일거리에 새로 건설된 평양곶공장을 방문, 생산시설과 곶 생산공정 등을 세세히 살펴보고 “곶은 누구나 즐겨 찾는 기호품의 하나”라며 “곶을 하나 생산해도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생활풍습과 구미를 찾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
 - 현지지도에는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과 주규창 당 중앙위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이 동행

- **김정일, 중기공장들 시찰(1/1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포시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와 금성뜨락토르(트랙터)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

- 그는 이들 공장 시찰에서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지금 더 많은 발전설비와 대상설비들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전후 맨주먹으로 폐허를 가시고 부강조국을 일으키던 정신으로 “과제를 2배, 3배로 넘쳐 수행”할 것을 강조
- 그는 또 “우리 당과 조국이 걸어온 노정은 자력갱생의 투쟁사”라며 “지난 날에나 오늘에나 사회주의 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키는 열쇠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 데 있다”고 ‘자력갱생’도 역설
- 현지도에는 박남기 당 중앙위원회 부장과 주규창, 리재일 제1부부장들이 수행

● 김정일, 3남 정운 후계자 지명설(1/15,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후계자로 셋째 아들인 김정운(1984년생)을 낙점하고, 이러한 결정을 담은 ‘교시’를 1월 초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짐.
- 한 정보 소식통은 15일 “김정일 위원장이 1월 8일께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세번째 부인 고 고영희 씨에서 난 아들 정운을 후계자로 결정했다는 교시를 하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언
- 리제강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조직지도부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긴급 소집, 김 위원장의 결정 사항을 전달한 데 이어 각 도당으로까지 후계관련 지시를 하달하고 있으며, 고위층을 중심으로 후계자 결정에 관한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언
-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후계자 낙점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조직지도부 등 고위층에서도 상당히 놀라는 분위기”라며 “정운의 내정 사실을 아는 권력층에선 그에게 줄을 서는 상황이 급속히 형성되고 있어 이러한 분위기가 북한 사회 전반에 퍼져 나갈 것”이라고 언급
- 정운이 후계자로 결정됨에 따라 김 위원장의 와병 이후 권력 2인자로 급부상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김정일 위원장의 매제, 정운의 고모부)이 ‘후계자 후견인’ 역할도 맡을 전망이다.
- 정운은 90년대에 스위스 베른의 국제학교를 졸업한 뒤 평양으로 귀환해 2002년부터 2007년 4월까지 김일성군사종합대학(5년제)을 다니며 “주체의 영군술(領軍術)”을 중심으로 배웠으나 노동당이나 군에서 특별한 공직

을 말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위원장의 성격을 빼닮았다는 그는 김 위원장의 세 아들중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김 위원장의 통치구호인 '선군정치' 선전에 앞장서면서 가끔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등에 동행하기도 했으며 현철해 대장 등으로부터 군 관련 수업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짐.

● 北 장성택 중심 집단지도체제 준비(1/14, 요미우리신문)

- 북한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그의 장남인 김정남(金正男)을 형식적으로 원수로 하고 김씨 일족과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 등 3자에 의한 집단지도체제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미국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보도
- 신문은 이런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하는 중심인물은 김정일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張成澤) 노동당 행정부장이며 후계 체제는 실질적으로 장씨 정권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장 부장은 인척 관계를 무기로 김 위원장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 부인인 김경희와 함께 김정남의 후견인으로 지위를 굳혔으며 장 부장의 형제 2명도 조선인민군 최고 간부로 있는 것을 이용해 군부 장악력도 높였음.
- 노동당 지도부에는 장 부장 이외에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 회담에서 김정일 측근으로 유일하게 동석한 김양건 통일부장이 주목되고 조선인민군에서는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이명수·현철해 대장이 특히 두드러진다고 이들 모두 선군정치를 내세운 김 위원장의 측근으로 지난해 김 위원장의 중병설이 제기된 이후 실체가 공개됐다고 소개

나. 정치 관련

● 北, 도덕교과서 '집필기준' 변경 비난(1/17, 연합)

- 북한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교직원분과위원회 대변인은 17일 남측 교육과학기술부가 중학교 도덕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북한에 대한 우호적 기술을 빼도록 한 것과 관련, "동족 적대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라고 비난

● 北, 최고인민회의의 지역·부문 선거투 구성(1/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도, 시, 군 선거위원회와 군사부문 선거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
- 통신은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법 시행세칙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도, 시, 군 선거위원회들이 조직돼 사업에 착수했다”며 “무력 부문에도 선거위원회들이 조직됐다”고 보도. 북한은 앞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거위원회를 구성했었음.
- ※ 도, 시, 군 선거위원회는 각급 인민위원회가 조직하며 통상 9~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北교육성, 정치사상교육과 정보화 강화(1/1, 교육신문)

-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이 “정치사상 공세를 드세차게” 벌일 것을 강조한 데 맞춰 북한 교육성은 올해 정치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정보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힘.
- 북한의 교육신문 1월 1일자에 따르면 김영인 북한 교육성 부상은 기고문에서 “올해 새 세기 정보산업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수준과 질을 높이고 교육방법을 개선”해 “전반적 교육 사업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보산업 시대의 요구에 맞게 중등 일반교육 체계와 고등교육의 교육내용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학생들의 실력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데도 깊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하고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교육조건 보장사업에서도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임.

● 北, 일심단결·자력갱생 거듭 강조(1/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진격의 나팔소리 천만심장 울린다’는 제목의 장문의 논평에서 1950년대 천리마운동은 “넓은 사회가 남겨놓은 때를 털어버리면서 사회주의 대문을 세운 진격전”이었다면 “강선(천리마제강의 옛 이름)에서 또다시 울리는 대고조의 나팔소리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세우기 위한 총공격 정신”이라고 강조

- 신문은 현재 북한이 “고난의 밑바닥에서 현대화의 문을 열고 강성변영의 궤도 위에” 들어선 “정치사상 강국, 일심단결의 강국, 군사강국”이라고 주장하고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고 최강의 정신력을 지난 사상과 신념의 강자, 하나를 가지고도 열, 백을 만들 줄 아는 창조자들의 대부대가 있다”고 덧붙임.

● 北, 12기 대의원 중앙선거위 구성(1/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될 제12기 대의원(우리의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에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부위원장에 김종린 노동당 중앙위 비서, 서기장에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을 각각 임명하고 지난 6일 이를 공식 발표
- 또 중앙선거위 위원에는 주상성 인민보안상, 리용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1비서, 김병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장, 강창욱 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장, 로성실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장, 김영호 내각 사무국장,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정태근 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담당 부국장, 김지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강철원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부회장이 선정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지난 1월 6일 전원회의를 열어 12기 대의원 선거를 3월 8일 실시한다고 결정

다. 경제 관련

● 국제NGO, 대북사업 ‘활발’(1/17, 미국의 소리방송)

-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민간 구호단체 ‘월드 비전’은 북한 당국의 요청으로 황해북도의 ‘치봉’이라는 마을에서 새로운 인도주의 사업을 펼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
- 월드 비전의 빅터 슈 북한 담당 국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지난 2년 간 황해북도의 한 농촌 마을을 지원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치봉에도 지원을 해달라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었다”며 “주민 수 약 1만 명의 치봉 마을에

- 태양열 발전기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 학교와 보건소 개보수, 마을 전체에 대한 식수 공급, 어린이들에 대한 দু유와 빵 공급 등을 하게 된다”고 발표
- 대북 의료지원 사업에 앞장서 온 미국의 유진벨 재단은 북한의 병원 3곳에 대해 발전기와 의료기기 지원 사업 2차분을 진행할 계획임.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본부를 둔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hristian Friends of Korea)은 올해 북한에 결핵 약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기로 하고 이미 40t 컨테이너 1대 분량의 영양제와 약, 의료기구, 고기 통조림, 온실 용 비료 등 금년 지원 1차 선적분을 1월 초에 보냈으며 올해 북한은 결핵약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고 필요한 결핵약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 마련에 매진
 - 또 미국 오리건 주에 본부를 둔 국제 지원 단체 머시 코어는 미국 정부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 사업과 병원 발전기 지원 사업, 수 년 간 지속해 온 과수원, 양어장 지원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며 대북 구호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제적십자연맹(IFRC)의 경우 올해 북한에서 재난관리 사업을 지속하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통합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새로 실시할 계획임.

● 北, 2월 과학 영농 보급 발표회 개최(1/10; 1/16, 노동신문)

-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영농의 과학화를 강조한 가운데 2월 농사분야 과학기술 발표회와 전시회가 잇따라 열린다고 노동신문이 16일 보도
- 노동신문 10일자는 ‘기대되는 발표회, 전시회들’이라는 기사에서 “지난 6년동안 진행된 과학농사 도입 사업의 성과를 보급”하고 “올해 과학농사 도입사업 방향과 대책을 세우기 위한” 과학기술성과 발표회가 2월 26-28일 평양에서 열린다고 보도

● 北, 국제상품전 일정 확정(1/15, 내나라)

- 북한이 올해도 봄과 가을 두 차례 평양에서 국제상품전람회를 연다고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가 15일 구체적인 일정을 소개, 봄철 전람회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가을철 전람회는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리며 봄철 참가 희망자는 3월 31일까지, 가을철 희망자는 8월 10일까지 참가 희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소개

● 식량문제 해결이 가장 절박(1/15,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5일 먹는 문제 해결의 “절박”함을 지난해에 이어 거듭 강조. 방송은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 식량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현 시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다”고 지적. 방송은 또 남한의 지원이 중단된 비료 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 균중적으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 농촌에 지원해야 하며, 종자혁명·이모작·감자 및 콩농사, 농산과 축산의 배합, 수산물 생산과 재배어업 및 양어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

● 베트남 통신회사, 북한 진출 추진(1/15, 사이공해방일보)

- 베트남 3대 통신회사 중 하나인 비에텔이 북한 진출을 추진 중이라고 관영 사이공해방일보가 15일 보도. 비에텔은 투자 문제를 놓고 북한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

● 영국 감리교단, 北식량 지원(1/1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겨울철 식량난을 덜기 위해 영국 감리교단이 5,000유로(미화6,600달러)를, 호주 외교통상부가 375만 호주달러(미화 250만 달러)를 각각 지원키로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

- 런던에 본부를 둔 영국 감리교단의 스티브 피어스 아시아 태평양 협력관은 “겨울을 맞은 현 시점이 북한 주민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라면서 이 돈이 “북측의 조선그리스도연맹이 운영하는 라면공장 and 빵공장, 온실 관리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발표

- 익명의 호주 관리는 “겨울철인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2008년 12월 24일 결정한 예산을 곧 집행하기로 했다”며 “세계식량계획(WFP)에 200만, 유엔아동기금(UNICEF)에 100만, 적십자사에 75만 호주달러가 각각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보도

● 北, 종합시장 폐지 연기(제261호, 오늘의 북한소식; 1/14, 좋은벗들)

- 북한 당국이 올해 1월부터 상설시장 성격의 ‘종합시장’을 폐지하고 농산물 위주의 10일장격인 ‘농민시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지난해 말 예고했으나, 시장을 없앨 경우 부작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편 시점을

6개월 뒤로 늦췄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14일 주장

- 이 단체는 ‘오늘의 북한 소식’ 제261호에서 시장 개편 유보 방침에 대해 평양의 한 간부는 “시장을 없애면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지방 관리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 같다”고 전언
- 평남 성천군의 한 간부는 “배급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배급을 주는 데는 없고 시장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사느냐는 질문이 중앙에 무수히 쏟아졌다”고 말했으며, 특히 다른 간부는 “현 시점에서 종합시장을 폐지하면 내란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말했다고 소식지는 보도. 또 다른 간부는 “중앙당도 무리하게 감행하기보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정을 지켜보면서 실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소개

● 北, 전력증산위해 화전에 주력(1/13, 조선중앙방송)

- 북한 전력공업성은 올해 전력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화력발전소의 전력 증산에 우선 주력할 방침이라고 조선중앙방송이 13일 보도. 김만수 전력공업성 부상은 이날 중앙방송과 인터뷰에서 “전력공업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생명선”이라며 “전력공업 부문에서 생산적 양양의 불길을 지펴 올려야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강성대국 건설을 앞당겨 올 수 있다”고 강조
- 그는 이를 위해 “화력발전소들에서 발전소 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석탄 소비를 낮추고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 석탄을 집중적으로 대줘 전력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겠다”고 소개

● WFP, 北 대부분 지역서 식량배급 중단(1/13, 연합)

- 세계식량계획(WFP)이 미국 정부로부터 대북 지원용 식량을 배정받지 못하는 등 식량과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 북한의 대부분 지역에서 식량배급을 하지 못한 채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아동과 산모, 수유모에게만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고 WFP 방콕사무소 폴 리즐리 대변인이 13일 밝힘. 리즐리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까지만 정상적으로 식량을 배급할 수 있었다”며 “지금은 나눠줄 식량이 없어 북한 내 WFP 활동을 대부분 중단한 상태”라고 언급함.

- 北, 명산·특산물 605종 지정(2008년 6호, 과학원통보)
 - 북한은 산나물, 산열매, 약초, 곡물, 채소 등 지역별 명산물과 특산물을 모두 605종 지정, 보호·이용하고 있다고 격월간 과학학술지 ‘과학원통보’ 2008년 6호가 보도
 - 과학원통보는 2007년 말 제출된 ‘우리나라(북한) 명산물, 특산물의 지방적 분포 특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 황해북도가 102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함경북도(66종), 평안남도와 황해남도(65종), 평양시(각 62종), 강원도(57종), 평안북도(56종), 함경남도(54종), 량강도(42종), 자강도(36종) 순이라고 밝힘.

- 2008년 北 무기수출 반등...1억弗 상당(1/12, 연합)
 - 2008년 북한의 무기 수출량이 반등, 총 1억 달러 상당을 중동·아프리카·중남미 등의 일부 국가들에 판매한 것으로 12일 알려짐.
 - 대북 소식통은 “작년 북한의 무기 수출 규모가 1억 달러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인해 수천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던 연간 무기 수출액이 작년에 일부 회복된 셈”이라고 언급

라. 군사 관련

- 北매체, 총참모부 ‘성명’ 반복 보도(1/17, 1/18,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노동신문; 민주조선)
 - 북한 매체들은 북한군 총참모부가 17일 대남 “전면적 대결 태세”와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 입장을 발표한 이후 이를 반복해서 보도하고 공장·기업소를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반향’을 잇따라 소개, 내부 결속력 강화에 활용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오후 4시49분, 조선중앙TV와 대내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 대외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이 오후 5시에 각각 총참모부 성명을 처음 보도한 이후, 북한 방송들은 18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계속 재방송을 송출, 노동신문과 민주조선도 18일 ‘성명’ 전문과 주민들의 ‘반향’을 3면에 각각 게재

● 北총참모부, 대남 전면대결태세 진입할 것(1/17, 북한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TV)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7일 남한 정부가 대결을 선택했다면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
- 대변인은 성명에서 “전면대결태세 진입”에 따라 “우리 혁명적 무장력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우리의 군사적 대응조치가 한계를 모르는 무자비한 타격력과 이 세상 그 어떤 첨단수단으로도 가늠할 수 없는 단호한 행동으로 실행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
- 특히 조선중앙TV에서는 군복을 입고 대좌 계급장을 단 총참모부 대변인이 직접 출연해 성명을 발표해 이번 조치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줌.
- 대변인은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역적패당들의 반공화국 적대감 고취와 임전태세 강화에 따른 북침전쟁열이 높아질수록 더욱 더 강력하고 무자비한 섬멸적인 징벌로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서해 우리 측 영해에 대한 침범행위가 계속되는 한 우리 혁명적 무장력은 이미 세상에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조선서해에는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총참모부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조선 서해해상에서 매일 같이 계속되고 있는 괴뢰 해군함정들의 우리 측 영해침범행위와 여러 가지 군사적 도발책동, 형형색색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고 우리를 노린 북침전쟁연습은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
-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국정연설을 거론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협력으로는 북남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고 서슴없이 공언했다”며 “이것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이고 6·15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공공연한 대결선언”이라고 주장하고 “제 스스로 택한 동족대결의 길 이 우리의 총대 앞에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를 뼈저리게 통감하게 될 것”이라며 “민족을 등진 극악한 대결광신자들에게는 앞날이 없다고 덧붙임.

- **항일 빨치산 출신 김익현 차수 사망(1/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항일 빨치산' 세대 막내로 '혁명 1세대'로 분류되는 김익현 차수가 사망.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차수 김익현이 오랜 병환 끝에 15일 19시에 87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조화를 보냈다고 보도
- **北노농적위대 창설 50돌 보고회 개최(1/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3일 민방위 조직인 노농적위대 창설 50돌(1.14) 기념 중앙보고회를 열고 노농적위대에 대해 “군사적 임무 수행”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생산과 건설에서 대혁신을 일으킬 것”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보고회에는 김영일 총리,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격식 북한군 총참모장, 군과 성 및 중앙기관 간부들, 평양시 노농적위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도 전달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보건부문, 생산 현장서 의료봉사(1/18, 조선신보)**
 - 북한 보건부문의 의료 종사자들이 금속, 전력, 석탄 등 주요 경제부문의 생산현장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18일 신문에 따르면, 평양의학대학 병원을 비롯한 평양의 여러 병원과 평안남도 인민병원의 의료일꾼들은 지난해 연말 이후 북한에 불기 시작한 '제2의 천리마운동' 발원지인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노동자들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에 나섬. 신문은 또 의료일꾼들이 생산 현장에 '위생초소'를 만들어 놓고 건강검진 사업을 펼쳐 노동자들에게 적당한 치료대책을 세워주고 있으며 고려약(한약)도 공급하고 있다고 보도
- **새해 첫 세쌍둥이 출생(1/17, 조선중앙통신)**
 - 평양산원에서 새해 들어 처음으로 세쌍둥이가 태어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소개. 세쌍둥이는 모두 여자아이며 산모는 인민군 군관(장교)의 아내라고 통신은 보도. 지금까지 평양산원에서 태어난 세쌍둥이, 네쌍둥이는 383쌍이라고 통신은 소개

● 김일성전집 제78권 출판(1/16, 조선중앙통신)

-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김일성전집’ 제78권을 출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 이 책에는 1983년 7월부터 12월까지 김일성 주석이 했던 연설과 담화 38건이 수록되어 있음.

● 北대학생, 방학 맞아 ‘사회정치 활동’(1/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기업소와 농촌을 찾아가 “사회정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 통신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김철주사범대학, 평양건설건재대학, 평양의학대학을 비롯한 “수도(평양)의 10여개 대학의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새해 첫날부터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찾고 있다”고 소개

● 北초등교사, 컴퓨터·외국어 매진(1/1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5일 “전국의 보통교육 부문 교원, 교양원을 위한 2009~2010년도 1학기 교수강습이 시, 군들에서 활기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소학교 부문에서는 3학년부터 실시하는 컴퓨터와 외국어 교육의 수준을 올리는” 방안이 다뤄졌다고 보도. 북한은 2008년 소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컴퓨터와 외국어 교육을 시작

- 컴퓨터 교육의 모범학교로 지정된 평양 서흥소학교에서는 평양시 모란봉구역 내의 모든 소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강습을 하고 있음.

- 조선신보는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강습을 위해 행정구역을 단위로 교원(교사) 재교육 강습소가 세워져 있고, 실력이 높은 교원을 강사로 출연시키는 정연한 체계가 꾸려져 있다”며 “강습은 중학교(중고교 과정) 부문, 소학교 부문, 유치원 부문으로 나뉘어 과목별로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

● 北, 공무원에 휴대전화 사용 금지령(제261호, 오늘의 북한소식; 1/14, 좋은벗들)

- 북한 평양에서 2008년 12월 중순 휴대전화망이 개통됐지만 노동당과 내각, 법관 등 공무원들은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부유한 일부 주민이나 “무역 일꾼”만 이용할 수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14일 주장. 소식지는 북한 당국이 “국가 기밀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휴대전화의 통화 가능 지역도 평양시에 국

한됐으며, “평양에서 외부 지역으로 전화를 거는 것은 가능하지만 외부에서 평양으로 걸지는 못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

- 北, 국제기구와 AI예방 협력 강화(1/1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
- 평양 사동구역서 진도 3.3 지진(1/11, 조선중앙TV)
 - 지난 9일 오후 8시 54분 10초에 북한 평양시 사동구역 리현리 일대에서 진도 3.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조선중앙TV가 11일 보도
 - 중앙TV는 “지진이 일어난 곳은 북위 38도 59분, 동경 125도 56분으로 평양시 중심부에서 볼 때 16km 정도 되는 매우 가까운 거리이고 지진이 일어난 깊이(진원)는 10km정도”라며 “광복거리나 통일거리 그리고 평양시 중심부에 있는 여러 구역들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 지진을 약 2초 동안 느꼈다”고 밝힘.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北 시료에서 농축 우라늄 검출(1/15, 요미우리 신문)
 - 북한이 미국 정부에 핵 관련 시료로 제출한 고강도 알루미늄관에서 고농축 우라늄 입자가 검출됐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폴라 디셔터 미국 국무부 검증·이행담당 차관보의 발언을 인용 보도
 -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2002년에 한 번 인정한 이후 부정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주시 중. 북한은 2007년 미국 정부 당국자를 군사시설에 초대해 알루미늄관을 일반적인 무기 제조에 사용했다고 설명했고 그 중 일부를 시료로 제출했었음. 그러나 디셔터 차관보는 요미우리에 “예기하지 못했던 상당한 양의 우라늄

- 입자가 부착돼 있었다”고 설명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요원이었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씨도 미국 정부로부터 “고농축 우라늄 입자가 알루미늄관에서 발견됐으며 미 정보 당국은 이것이 3년 반 전에 부착돼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언
 - 요미우리는 이 우라늄이 북한 내에서 농축됐는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북핵과 관련한 첫 물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 북핵단장, 北불능화 협의차 방북(1/13, 연합)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차석대표인 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이 이끄는 남측 실사단이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작업 중 하나인 미사용연료봉 처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5일 평양을 방문. 외교 당국자는 13일 “황 단장이 불능화 조치의 마지막 단계인 미사용 연료봉 구매 협의를 위해 14일 베이징(北京)을 경유해 15일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며 “돌아오는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미사용 연료봉은 구부리거나 매각해 불능화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 “실사단은 처리방안을 결정하기 앞서 기술적, 경제적 측면들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언급
- 실사단은 황 단장 외에 외교부와 통일부 당국자 각 1명, 한국원자력연구원 2명,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1명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영변을 방문, 우리가 미사용 연료봉을 구매해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도 검토할 예정임.

나. 북·미 관계

● 北, 대미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1/17, 북한 외무성 대변인)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7일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미국의 핵위협이 남아있는 한 관계정상화가 이뤄져도 핵보유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 가진 문답에서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철두철미 별개의 문제”라며 “설사 조(북)·미관계가 외교적으로 정상화된다고 해

도 미국의 핵위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의 핵보유지위는 추후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대변인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조·미관계 정상화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지키기 위한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조선반도 핵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미국 핵무기 대 우리 핵무기 문제”라고 밝혀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북한에 대한 불가침이 확실한 상황에서만 핵 포기가 이뤄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함.
- 그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도 핵 억제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조선반도의 현실”이라며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없이도 수십년을 살아왔고 지금도 끄떡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

● 라이스, ‘北 무기 급 HEU’ 언급 주목(1/14, 연합뉴스)

- 라이스 장관은 14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와의 12일 인터뷰에서 “정보 당국은 북한에 공개되지 않은 무기 급 HEU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한다”고 밝힘.
- 라이스 장관의 발언은 일단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북한의 HEU문제를 경고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처럼 보임.
- 하지만 라이스 장관이 이례적으로 북한의 HEU를 ‘무기 급’이라고 특정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음. 그동안 북한의 HEU 기술은 핵무기를 제조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조악한’ 수준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미 정보당국이 이와 관련해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을 수 있다는 것임.

● 北, 美에 평화협정 체결 요구(1/15,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15일 ‘미국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에서 책임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 평화보장의 선결조건의 하나”이자 “미국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책임”이라며 미국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거듭 요구
- 신문은 “미국은 지금까지 정전협정 체결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조선 문제

에 개입'해 왔다면 "미국이 우리나라(북한)를 침략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평화협정을 체결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

● 北·美 '원칙 대 원칙' 일합(1/13, 연합뉴스)

- 북한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후보자의 의회 인사청문회 직전인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선(先)북미관계 정상화, 후(後) 핵 폐기' 원칙을 주장하자 클린턴 후보자와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선 핵 폐기, 후 북미관계 정상화'의 원칙을 강조
- 우선 북한은 핵문제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서 비롯됐으므로 비핵화를 통한 북미 관계 정상화가 아니라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가 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역설
- 힐러리 후보자는 청문회를 위해 제출한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 등의 서면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북미) 관계정상화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밝혀 '선 비핵화, 후 관계정상화' 입장을 분명히 함.
- 국무부 손 매킨 맥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이 미국을 포함해 나머지 국제사회와 더 정상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6자회담 하에서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지는 매우 명확하다"면서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 북한은 6자회담을 끝내야 하며 그렇게 되면 비핵화된 한반도도 성사될 것"이라고 언급

● 美, 北의 김계관 방미 거절(1/12, 연합뉴스)

- 북한이 20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계기로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방미를 추진했지만 미국 측의 거절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외교 소식통은 12일 "북측이 지난달 중순께 뉴욕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미국 방문계획을 타진했지만 미국 측이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다. 북·중 관계

- **주북 중대사관이 밝힌 2008 북-중 관계(1/17,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은 17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북-중 관계 '10대 사변'을 발표
 - 북-중 관계 10대 뉴스의 첫 머리를 장식한 사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간의 구두친서와 축전 교환, 두 번째 사건은 김 위원장이 작년 3월 1일 류 대사의 초청으로 중국 대사관을 직접 방문한 것을 두 번째 사건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방북을 세 번째 뉴스로 선정
 -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은 작년 베이징에서 열린 올림픽과 관련해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개막식 참석과 평양에서 열린 성화봉송행사를 각각 네 번째와 아홉 번째 '사변'으로 평가, 또 국제무대에서 북-중 양국의 협력을 여섯 번째 뉴스로 지적하면서 북측은 대만, 티베트, 올림픽 등에서 중국을 지지했고 중국은 6자회담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유지하면서 회담의 긍정적 진전을 이끌었다고 설명, 일곱 번째 뉴스는 북-중 양국 간 경제무역의 급속한 성장으로 꼽음. 다섯 번째로는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중국 총리의 110회 생일과 방북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양국이 공동으로 가진 것을, 중국의 TV드라마가 북한TV에서 방송되고 북한 '피바다 가극단'이 중국에서 공연하는 등 문화교류에서의 진전을 여덟 번째 '사변'으로 꼽았고, 중국 쓰촨(四川)성 대지진 때 북한이 10만 달러를 지원하고 사상자를 애도하는 추모 사이렌이 평양에서 울려 퍼진 것을 열 번째 뉴스로 선정

- **北출신 신세대 화교, 中이주 증가(1/16, 자유아시아방송)**
 - 친지 방문을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했던 북한의 신세대 화교들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귀환하지 않고 중국에 정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
 -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들은 일 년에 한차례 중국의 친척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아 최고 90일간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중국에 입국하며, 이 체류기간이 지나면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90일간 더 머물 수 있지만, 총 180일을 넘기면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음. 그러나

북한 화교들의 중국 정착 역시 쉽지는 않다고 RFA는 보도

- 중국에 정착하려면 중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민증이 필요한데, 중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중국에 정착할 수 있다는 경제적 능력을 증명해야 중국 공민증을 취득할 수 있어 공민증 취득 전에는 무국적자의 신세를 면할 수 없기 때문임. 하지만 중국 정부는 북한 출신 화교들이 중국 공민증이 없다고 해서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하지는 않는다고 RFA는 보도
- RFA는 중국에 이주하는 북한 출신 화교들이 늘어나고 북한 주민과 결혼한 화교의 자녀는 북한 공민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화교 2세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며 광복 이후 최고 6만 명에 이르던 북한 화교의 수는 2000년 당시 6천 명가량, 현재는 그보다 더 감소한 5천 명 이하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北 당 국제부, 中대사관 초청 연회(1/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국제부에서 15일 설을 앞두고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연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연회에는 북측에서 박경선, 김태중 국제부 부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국 대사관측에서는 류샤오밍(劉曉明) 대사를 비롯해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
- 앞서 13일에는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이스마일 아이마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초청한 가운데 신년연회를 개최했음.

● 北고위간부들, 中영화 감상회(1/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고위간부들은 15일 중국 산서영화촬영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한 영화 '따뜻한 정'을 감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평양 대동문 영화관에서 열린 이날 영화감상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태복 노동당 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노동당 비서, 근로단체·성·중앙기관·문예·언론계 간부들, 류샤오밍(劉曉明) 대사 등이 참석

● 中외교부, 北·中 교류·협력 확대 합의(1/13, 연합)

- 중국은 북한과의 수교 60주년이자 양국간 '우호의 해'로 지정된 2009년을 각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데 북

한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13일 보도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후정웨(胡正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단장으로 한 중국 외교부 대표단이 9~12일 방북 기간 박의춘 외무상과 김영일 외무성 부상과 회담했다”고 밝힘.

● 北외무상, 中외교부 대표단 면담(1/12, 조선중앙통신)

- 박의춘 외무상이 12일 후정웨(胡正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외교부 대표단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라. 북·일 관계

● 北, '마약밀수혐의' 일본인 5년 만에 석방(1/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마약밀수 혐의로 체포해 5년 넘게 억류해온 일본 엔터프라이즈주식 회사의 사와다 요시아키씨를 “인도주의적인 조치”에 의해 석방하고 출국시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
-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과 국제법에 어긋나게 마약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하여 2003년 10월 우리나라에 억류됐던 전 일본 엔터프라이즈주식회사 부장 사와다 요시아키가 공화국 해당기관의 인도주의적 조치에 의하여 13일 출국했다”고 밝힘.
- 북한은 지난 2003년 사와다 요시아키가 북한 사람을 매수해 제3국에서 마약을 입수케 한 뒤 북한의 '만경봉-92'호를 이용해 일본으로 밀수하려 했다고 사와다씨 체포 사실을 발표했었음. 일본 정부는 이듬해인 2004년 1월 외무성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 사와다씨의 송환 문제를 북한측과 논의했지만 불발에 그침.

3 대남정세

● 제주감귤·당근 북한보내기 계속 진행(1/18,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고성준 사무총장은 북한군 총참모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

고 있지만 제주산 농산물과 농업기자재의 대북 지원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발표

- 고 총장은 특히 “북측으로부터 제주 농산물을 보내는 화물선에 동승하는 우리측 물품인도요원 3명에 대해 신변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며 “그들의 신변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 고 총장은 다만 “북측에 전달할 물품을 중국 화물선인 헤이허호(4천t급)에 선적하는 작업이 다소 지연돼 당초 18일 오후로 잡았던 출항시간을 19일 낮으로 늦췄다”고 설명

● **중소기업중앙회장, 개성공단 일감 없어 무급휴가 속출(1/18, 연합뉴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의 현황을 묻는 말에 “경제 위기로 대기업 납품이 줄어든 데다 개성공단 출입 등에 대한 북한의 통제까지 강화돼 입주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성 공단에 일거리가 없다 보니 북한 직원들을 수백 명씩 무급휴가를 보내고 있다. 북한 측 입장에서도 문제다.”라고 언급

● **2008년 남북교역액 1.2% 증가(1/16, 통일부)**

- 2008년 남북교역이 남북관계 악화와 환율 상승 등의 요인 속에 1%대의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집계됨.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남북 교역액은 18억2천37만 달러로 2007년에 비해 1.2% 증가
- 통일부 관계자는 “환율 상승으로 북한 물자 수입량이 감소한 점, 한 해 동안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이 없었던 점, 7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연간 교역액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설명. 아울러 지난해 남북교역에서 위탁가공 교역의 비중은 22.4%로 2007년의 18.3%에 비해 증가한 반면 일반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7%에서 21.9%로 줄어든 것이 특징적이었다고 통일부는 분석

● **평양에 제주흑돼지농장 조성(1/15, 연합뉴스)**

- 제주도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는 2007년 11월 제4차 제주도민 평양 방문 당시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와 교류협력증진 방안으로 처음 논의했던 ‘남북 흑돼지 사육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양도장 내부 기자재(2억2천만 원 상당)를 16일 북한으로 보낸다고 15일 발표

● IT방북단, 2월 대규모 방북(1/15, 연합)

- 남한의 정보기술(IT) 전문가와 기업인으로 구성된 대규모 IT방북단이 2월 7일부터 11일까지 북한을 방문, 북한측과 정보기술 교류협력 증대 방안을 협의
- (사)남북IT교류협력본부가 80명으로 구성된 방북단은 2월 7일 인천공항을 출발, 중국 선양을 거쳐 북한에 들어가 평양정보센터, 금성학원 등 북한 IT 시설 시찰, 김책공대 전자도서관 참관, '남북 소프트웨어 공동전시회', 'IT 학술지 및 도서 전달식', 'IT협력 활성화 전문가협의회' 등의 일정을 갖고 특히 남한 IT 서적 4천 권과 학술지 1천 권 등 IT도서 5천여 권을 북측에 전달
- 방문단에는 (사)남북IT교류협력본부 회장인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와 유완영 유니코텍 코리아 회장 등이 포함됐으며, 북측에서는 민족화해협의회와 교육성이 교류행사에 참여

● 금강산 북측 접대원들 철수 않고 대기중(1/13, 연합)

- 1월 6일 금강산관광지구를 방문하고 돌아온 박창일 신부(평화3000 운영위원장)는 13일 “현지에서 현대아산 직원 등 우리쪽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었다”며 “북한 금강산관광지구 북측 접대원들은 인근 고성지역 출신 뿐 아니라 평양에서 온 접대원들까지 아무도 철수하지 않고 관광이 재개되면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라고 밝힘.
- 그는 또 “북한은 새해 들어 금강산 관광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더라”고 덧붙임.

● 개성공단 생산품 ‘피스웍스’ 상표 단다(1/12, 연합)

- 정부는 개성공단 생산품을 위해 ‘피스웍스(Peace works)’라는 공동 브랜드를 개발, 조만간 상표 등록을 하기로 함. 정부 당국자는 12일 “개성공단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 현재 상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등록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소개
- 정부가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지은 ‘Peaceworks’는 ‘평화활동’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남북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의미를 담았다고 공단 관계자는 전언

01.19-01.27

1월
4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설맞아 합창공연 관람(1/2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설을 맞아 공훈국가합창단의 경축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 통신은 남성합창 '김정일 장군의 노래', '동지애의 노래', 여성중창 '내 나라의 푸른 하늘' 등의 공연에 김 위원장이 만족을 표시하면서 "합창단의 예술인들이 혁명적인 예술활동을 광범하게 벌여 새해의 보람찬 투쟁에서도 선군시대 나팔수로서 위용을 떨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에는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리제강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김기룡 중앙통신사 사장, 차승수 조선중앙방송위원장, 현철해·김명국·리명수 북한군 대장 등이 수행
- 김정남, 北 후계구도 관심 없다(1/24,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38)은 24일 오전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해 북한의 후계구도 문제를 묻는 기자들에게 "그것은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면서 "아버지께서만이 결정하실 것"이라고 답변
 - 이어 "북한에서 큰 권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으며,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이런 민감한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
 - 후계구도와 관련, "결정되기 전에 가정하고 상상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으며, 동생인 김정운이 후계자가 될 것이란 보도와 관련해서도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
 - 두꺼운 점퍼에 선글라스, 모자를 착용한 김정남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그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담화(말)할 수 없다"면서 "아버지 같은 분의 건강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함.

- 베이징에 온 목적에 대해 그는 “개인적인 일로 놀러 왔다”면서 “며칠 동안 베이징에 머물다 다른 곳으로 갈 계획”이라고 언급, 또 “김정남이 맞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기자들에게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다’며 “나만 취재하지 말고 그에게도 물어보라”고 답변
- 김정남은 이어 베이징의 쿤룬호텔에 짐을 풀 뒤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후계자 문제에 관심이 있는가”는 질문에 “본인은 관심이 전혀 없다”면서 “부친이 결정하실 일”이라고 기존 답변을 되풀이했으며 동생인 김정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을 아낀. “누가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느냐”는 물음에도 “모든 것은 아마 부친께서 결정하는 것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만 밝힘. 또 동생이 후계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것은 동생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답변을 회피
- 김정남은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공항에서의 답변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신문에 보도한대로 보지 않았느냐”고 반문, 김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

● **김정일, 한반도 정세 긴장 원치 않아(1/23, 신화통신;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3일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상태를 원치 않는다”고 언급
- 김 위원장은 23일 평양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들고 방중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나 (6자회담) 각 당사국들과 평화적으로 함께 지내기를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3일 보도
- 통신은 김 위원장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과 함께 협조와 조화를 이뤄 6자회담을 부단히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
- 평양 백화원 국민관에서 이뤄진 이번 면담에서 왕 부장은 후 주석이 보내온 축하 인사와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김 위원장과 악수를 나눴음. 후 주석은 친서에서 김 위원장에게 “편한 시간에 중국을 방문하기를 원하며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초청했으며 김 위원장도 후 주석의 방중 요청을 매우 기

쁘게 받아들였다고 통신은 보도

- 조선중앙TV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왕 부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도 함께한 사실을 보도. 이번 면담 장면은 북한 매체뿐만 아니라 신화통신이 직접 찍은 사진 10장도 함께 공개돼 김 위원장이 국가 통치에 지장이 없을 만큼 건강에 문제가 없음이 사실상 확인됨.

나. 정치 관련

● 南 북한기 훈련 비난(1/26,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26일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남한 군대가 최근 북한기 훈련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전면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전주곡"이라고 비난
- 민주조선은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서 남한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을 짓밟개버릴 것"이라고 말했음을 상기시키며 남한군이 "이러한 때에 실전을 방불케 하는 북한기 훈련을 벌이는 것으로 우리 혁명무력의 경고에 공공연히 엇서(어긋나게) 나서고 있다"고 주장

● 美 NGO '민주화 십자군' 비난(1/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을 꿰뚫어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환상적으로 대한다"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제창하는 제국주의, 이른바 '물질적 번영'을 뽑내는 이 지배주의 세력을 우상화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주장
- 신문은 "그들의 '인권옹호'요, '민주주의 보장'이요 하는 광고는 침략적인 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위장간판"이고 "그것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나라와 민족, 개개인의 운명을 망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미 비정부기구(NGO)들의 "반동성"을 비판하고 이라크 후세인 정부와 구 유고슬라비아의 붕괴를 예로 들.

● 匈 통일 내정은 대북 대립 선언(1/25,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25일 '동족대결 책동을 더욱 강화하려는 범죄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통일부 장관에 '비핵·개방·3000' 구상의 입안자인 현인택 고려대 교수가 내정된 것과 관련, “우리와 계속 엮서(대립)나가겠다는 것을 선언한 노골적인 도발”이라고 비난

- 신문은 특히 이명박 정부가 “올해에 지난해보다 동족 대결 책동을 더욱 강화하여 북남관계를 대결과 파국의 구렁텅이에 깊숙이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며 현 교수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한 조건에서 북남관계에서 그 어떤 파국적 사태가 벌어질 지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

● 北, 南정부 對이스라엘 결의안 기권 비난(1/24,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우리 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군사공격을 규탄하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것과 관련,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보편적 인권이란 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기만적인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

● 北, 전투력·충성심 약화 美보고서에 발끈(1/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헛된 꿈은 꾸지도 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NIC 보고서 내용은 “악의에 찬 비방 중상”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반발. 1990년대 중반 아사사태 이래 지속된 영양실조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북한군이 최악의 징병 난을 겪을 것이며 북한군의 충성심도 약화될 수 있다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보고서에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발끈
- 통신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40%를 차지하고 결핵, 성홍열, 홍역 등이 심각한 의료문제가 되고 있다는 NIC 보고서의 지적을 예시하고 “우리 인민들의 건강상태를 왜곡했다”며 “유치한 거짓말”, “상상 조차 할 수 없다”는 등으로 일축

● 美보고서, 북한은 핵보유국 소개(1/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006년 10월 핵실험 이후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는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미 국방부 ‘핵무기관리점검특별팀’이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기한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
- 통신은 “미 국방부 ‘핵무기관리검토특별조사위원회’가 최근 조선(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표기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며 “보고서는 조선이 여러 개의 핵무기뿐 아니라 그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체계도 함께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였다”고 보도하고 또 외신들이 “그 보고서가 조선을 비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킨 것으로 된다고 평하였다”고 소개

● 北, 10대에 혁명길 나선 김일성 선전(1/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고 김일성 주석이 10대 초반에 이미 항일투쟁을 시작했다고 북한이 선전하는 이른바 ‘광복의 천리길’ 기념일인 22일 ‘10대에 걸은 신 혁명의 천리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를 거듭 선전

● 北, 가자사태 보면 자위력 길러야(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군비경쟁을 몰아오는 히스테리적 광기’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과 미군의 이라크 침공을 예로 들어 약자는 자주권과 정의를 지킬 수 없다며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

- 신문은 또 “미국이 표방하는 대화는 우리를 무장해제 시키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며 그들이 진짜 노리는 것은 무력으로 우리를 압살하는 것”이라며 “대화의 간판을 내걸고 우리와 협상을 벌이다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대화 파탄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워 전쟁을 도발하자는 것이 미국의 속셈”이라고 주장

● 北, 남북, 6·15이전보다 더한 대결상태(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겨레의 통일염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결” 정책으로 인해 현재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사태”에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조정기”라고 말한 것을 부정하고 “전면차단의 위기”에 처해 “6·15이전보다 더한 최악의 대결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와의 전면 대결”이 “어떤 파국적 후과를 불러오겠는가를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北총참모부 성명, 빈말 아니다(1/19,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대남 “전면 대결태세”를 선언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성명과 관련, “우리는 빈말을 모른다”며 자신들의 경고를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신문은 ‘우리의 대답은 무자비한 징벌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라며 그 책임을 남한 정부에 전가하고 북한군 총참모부의 성명은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자위적 조치야말로 시기적절한 것이고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마땅한 대응”이라고 덧붙임.

다. 경제 관련

● 北공장들, 새학년도 학용품 생산 분주(1/27, 조선신보)

- 북한의 각 학용품 공장들이 오는 4월 1일 신학년도 개시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공급할 학용품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7일 소개
- 우리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 학생용 가방을 생산하는 평천가방공장의 박봉철 지배인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학용품 생산은 나라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후대들에게 훌륭한 학습 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의 하나”라며 “현재 많은 가방들이 생산됐고 2월 말경에는 생산이 완료될 것”이라고 언급
- 평천가방공장에서 만들어진 가방에는 필통, 자, 책받침, 크레파스, 지우개, 학습장 등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진 학용품이 채워져 평양시내의 소학교 신입생들에게 공급, 이에 따라 가방 이외에 다른 학용품을 생산하는 평양수지학용일용품공장, 평양학습장공장, 평양학용품공장 등에서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 북한은 1996년부터 새 학년도 개학 일을 9월 1일에서 4월 1일로 바꾸었으며, 이에 따라 3월을 ‘학교지원 월간’으로 정해 교재 준비와 교과과정 점검, 교과서와 학용품 공급 등 개학 준비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음.

● UNDP 대북한 사업 재개 최종 승인(1/22, 연합뉴스)

- 유엔개발계획(UNDP)의 북한사업이 오는 3월중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

UNDP 집행이사회는 22일(현지시간) 올해 제1차 정례회의에서 자금 전용 의혹 등으로 2007년 이후 2년 가까이 중단돼 온 북한 사업의 재개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결정문을 채택

- 집행이사회는 결정문에서 그간 북한측과의 협의를 통해 대북 사업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인 북한사업에 대한 독립적 회계감사, 경화지급 방식 변경, 북한 현지 직원 선발 절차 개선, 사업 내용 조정 등 4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해 사업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게 됐다고 밝힘.
- 주 유엔 대표부 관계자는 “UNDP가 다시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 등 유엔기구들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 북한측 대표는 이날 결정문 채택 후 사업 재개를 지지해준 회원국들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UNDP의 북한 복귀를 환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식량난 ‘자력갱생 해결’ 강조(1/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식량위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식량 문제의 근본해결 방도는 자체의 노력, 즉 자력갱생에 있다”고 강조
- 신문은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식량 재고량이 모자라 식량 가격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토지의 사막화, 태풍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 “농업생산에 불리한 자연기후 현상”이 식량위기의 한 요인이라고 지적

● 北,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 강조(1/21,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21일 “강선의 본때로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 공정의 기술개선”과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신문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며 “오늘의 대고조는 기술혁명의 대고조, 현대화의 대고조”라고 주장. 신문은 북한 노동당의 “과학기술 중시 노선”을 지적, “모든 문제를 새로운 안목과 높이에서 보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과학기술을 나라의 경제발전의 기초로 삼는 확고한 관점, 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강성대국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일꾼(간부)이건 노동자이건 누구나 현대 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워야 한다”고 강조

- 이어 신문은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상교양 사업”을 주문하고 “대중의 양양된 열의와 대고조 시대에 벽찬 분위기에 맞게 선전선동 사업을 패기 있게 벌여 온 나라에 1950년대와 같은 혁명적 기상과 낭만, 비약의 열풍이 끓어 번지게 해야 한다”고 주문

● 北, 3월 버섯생산 기술 강습회 개최(1/21, 노동신문)

- 북한의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가 버섯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전국 버섯생산부문 기술 강습’을 오는 3월 24~26일 평양에서 연다고 노동신문이 보도

※ 북한은 1990년대 식량난 이후 주민들의 부식물 해결을 위해 각 구역과 군 단위로 버섯공장을 세우고 느타리버섯, 검정버섯(목이버섯), 벗겨버섯(들버섯과의 송이), 참나무버섯(표고버섯) 등을 생산하는 데 힘을 쏟고 있으며, 2007년에는 조선버섯기술협회를 창립

● 북한 시도별 경제 과제 제시(1/20, 연합)

-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신년사) 발표 이후 지난 5일 10만여 명이 참가한 평양시 군중대회와 이어 열린 시도 단위 군중대회에선 도별 특성과 주력산업에 따라 중점 과제가 달리 제시되었음.
- 20일 북한 언론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평양시는 강철분야 지원과 전력공업, 석탄공업,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혁신을 강조, 또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생산, 주민 생활에 필요한 경공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 돼지공장 개건공사와 함께 주택건설의 적극 추진을 과제로 제시했음.
- 평안남도는 2008년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찰해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 운동을 시작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주체철’ 증산과 새로 건설한 ‘초고전력 전기로’의 총 가동, 전 도민의 강철분야 지원, 식량증산을 위한 유기질 비료 생산 등을 촉구
- 평안북도는 금속공업 부문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수풍, 태천발전

소를 비롯한 발전소에서 전력증산에 총력을 기울일 것과 구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 락원기계연합기업소, 신의주화장품공장 등의 생산 혁신, 그리고 선진 영농기술의 도입을 주문

- 황해남도는 은률광산, 재령광산 등의 철광석 증산과 전 군중적 파철 수집 외에 곡창지대로서 다수확 작물과 품종의 도입, 이모작 활성화를 통한 농업생산 목표 달성을 중점 과제로 내세움.
- 황해북도도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생산 증대, 예성강청년1호발전소의 전력 증산, 2.8마동세멘트공장, 사리원담공장, 사리원돼지공장의 생산성 증대와 더불어 농업부문에서 다수확 품종 도입 및 물길(수로)공사의 조기완공, 토지정리를 통한 미루벌 경작지화 등을 내세움. 또 황해북도는 살림집 건설과 도 예술극장, 전지도서관 건립 등도 과제로 제시
- 함경남도는 금야강발전소, 금진강구창발전소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고 단천지구 광산의 채굴능력 향상 및 수동지구 탄광의 생산조건을 개선할 것과 2.8비날론연합기업소 2단계 개건공사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 또 홍남제약공장 개건공사를 조기 완공하고 광포오리공장, 함주돼지공장에서 생산을 높이며 함흥시 살림집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
- 함경북도에선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성진제강연합기업소에서 '북한식 철생산 방법'을 완성하고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채굴, 채광 및 운광 설비 현대화를 통한 철정광의 생산을 증대하는 것과 함께 서두수발전소, 청진화력발전소를 추가동하며 건설 중인 어랑천발전소 2단계 공사를 조기 완공하는 것이 주요과제로 제시
- 강원도는 원산군민발전소 건설의 적극 추진, 문천강철공장 생산 공정의 강화, 원산신발공장, 원산편직공장 등의 현대화와 문천담공장의 개건 확장, 농촌경리 다각화를 통한 식량문제 해결을 강조
- 북부 고산지대인 량강도는 2007년 5월 준공한 삼수발전소 운영 관리의 강화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중소형발전소 건설의 적극 추진, '감자의 고향'으로서 감자농사에서 획기적 전환을, 자강도는 금속공업부문 현대화와 강계청년발전소와 장자강발전소 등의 전력 증산 및 중소형발전소의 건설, 통나무 생산 확대를 각각 핵심 과제로 제시
- 자강도는 또 담공장, 돼지공장, 오리공장의 생산 정상화와 고치생산의 확대를 강조했으며 특히 지난해 말 새로 건립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찰한

강계시의 전자업무연구소에서 도내 기관 등의 정보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

● 北수산당국, 양어생산 2배 증대 목표(1/20, 조선신보)

- 북한 수산 당국이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올해 “양어 생산량 2배” 목표를 내세움. 조선신보는 20일 북한 수산성의 한영일(45) 부국장이 “양어를 발전시켜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신년 공동사설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주력”한다는 “양어 중시” 정책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
- 북한은 이를 위해 이미 2008년 9월 양어사업 활성화를 위한 비상설 조직으로 ‘조선양어협회’를 발족시켰음. 이 협회는 국가과학원 양어연구소,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원산과 남포의 수산대학 교수와 연구원, 평양시양어관리국을 비롯한 각 도의 양어국, 평양메기공장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양어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해외동포도 가입할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

● 北, 위화도 자유무역지구 지정 추진(1/20, 요미우리신문)

-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인 압록강에 있는 섬인 위화도를 중국인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북수의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20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중국과의 국경무역 강화를 통해 부족한 식료품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북한이 이런 계획을 마련한 목적 중의 하나로 추정되며 아울러 북한의 북중 무역 강화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가 대북 융화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도 담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북한 신의주에 속해 있는 위화도는 면적은 약 15.5km²로 소식통에 따르면 섬 안에는 교역전시장 등을 설치하고 중국인은 비자가 없이도 이곳을 방문해 일용품이나 식료품 등을 판매하거나 매입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북한 측의 구상. 중국 국경에서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를 면제해 무역 확대를 달성한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헤이허(黑河) 자유무역지대가 모델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현재 단둥(丹東)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중조(中朝) 우의교(友誼橋)’

가 노후화돼서 다리 인근에 새 교량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북한 측은 최근 중국에 새 다리를 위화도가 있는 압록강 상류 측에 건설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짐.

- 위화도는 지난 2002년 대외개방을 하려다 실패한 신의주경제특구 내에 있으며 이번 계획도 당시의 구상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음. 그러나 신문은 북중 관계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 “이번 자유무역지구 지정 대상은 위화도뿐이고 개방 대상국도 중국에 한정될 것”이라며 “중국과의 무역 강화가 주요 목적이며 2002년에 이어 또다시 대대적인 대외 개방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언

● 北, 휴대폰 일반인·지방 확대 허용(1/20,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2008년말 평양에서 개통한 휴대전화 사용이 일반 주민과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 북한을 왕래하는 중국인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개통 초기 당과 내각의 간부들에게 판매되던 휴대전화가 이제는 일반 주민들에게도 판매되고 있다”며 일반 주민도 가입비와 기기를 포함해 350달러를 내면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
- 북한 당국은 처음엔 간부들에게 우대 가격인 200달러에 휴대전화를 공급했지만 가입자가 늘지 않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짐. 또 중국인은 “일반 주민은 가까운 체신국에 가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민증을 제출하고 돈을 내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고 설명
- RFA는 북한의 ‘함경북도 지방과 연락하고 있는 탈북자’의 말을 인용, 북한 당국이 최근엔 군부대들과 지방에도 휴대전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 이 탈북자는 “평성시와 남포시 등 지방 도시에는 필요한 통신장비들이 2008년 말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중앙의 지시가 있으면 당장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북한 사람들이 말한다고 전언. 그는 휴대전화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북한 당국은 비밀유출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이동통신 기지국에는 도청 전문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덧붙임.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설맞이모임서 '김정일 건강' 기원(1/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학생들의 설맞이 모임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을 기원하는 서장(序章)을 별도로 마련, 공연함으로써 눈길을 끄.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올해 학생 소년들의 설맞이 모임 '설 눈아 내려라'가 이날 평양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됐다고 전하면서 "설맞이 모임은 서장 '아버지 장군님 건강하세요'로 시작되었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이 불참한 이날 모임에는 당과 군대, 국가 간부들과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 평양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했으며, 북한 주재 각국의 외교 대표와 국제기구 대표들이 초대됐음.
- 학생 소년들의 설맞이 모임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을 축원하는 장이 이번처럼 별도로 마련돼 공연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 北, 설맞이 다양한 음식 제공(1/26,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설 명절을 맞아 평양시의 급양봉사망(식당)들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마련,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다고 26일 보도. 조선중앙TV에 따르면, 평양시 안의 여러 식당에서는 떡국과 지짐(부침개), 산적, 식혜를 비롯해 평양의 4대 음식인 평양냉면, 평양온반, 대동강송어국, 녹두지짐을 준비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또 평양 시내 곳곳에 자리 잡은 대동강맥주집도 시원한 맥주를 준비하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

● 南출신 北 강신익씨의 사모곡 보도(1/26, 평양방송)

- 지난 1985년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의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해 어머니와 상봉했던 강신익(74)씨가 26일 설을 맞아 모친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 강씨는 이날 평양방송과 인터뷰에서 85년 어머니와의 상봉 당시를 회상한 뒤 "한 지맥으로 잇닿아 있는, 얼마 멀지도 않은 남녘땅에 계시는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설날에조차 인사를 전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 가슴은 지금 막 찢어지는 것 같다"고 언급

● 월북학자 리극로 장남, 北한의학 대가(1/24,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월북 국어학자이자 북한 초대 무임소상을 지낸 리극로의 장남인 리역세(77) 조선고려약(한약)기술센터 실장을 북한 한의학계의 대가라고 소개
- 통일신보에 따르면 리 실장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의학대학 강좌장 등을 역임하면서 “뇌압을 낮추게 하는 약 성분을 상온에서 합성하는 방법”과 “효능 높은 고려녹태고”를 개발했고 “의학교육분야에서 물리교질 화학과 합성제약과목”을 처음 개척하는 등 지난 50여년 간 한의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거뒀고 약학박사와 화학박사까지 2개의 박사학위를 획득
- 리 실장은 현재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그의 동생 대세(71)씨는 공학박사에 경제학 학사(석사 급)로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 소장을 역임 중임.
 - ※ 경상남도 의령군 출신인 리극로(1893.8~1978.9)씨는 1948년 4월 평양서 열린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 참석차 월북한 이후 초대 무임소상 외에도 제2대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언어학 원사(북한 최고 학위)로 ‘조선어문법’, ‘조선어사전’ 등을 편찬하는 등 북한 언어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

● 北서커스 공중돌기, 모나코대회서 금상 수상(1/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교예(서커스) 배우들이 모나코에서 열린 제33회 몬테카를로국제교예축전에서 ‘3단공중전회비행’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북한 서커스단은 또 ‘철봉과 유동그네날기’가 은상을 수상
- ※ 북한은 1천640석 규모의 인민군 교예극장에 이어 평양시 만경대구역 광복거리에 3천500석 규모의 전용극장인 평양교예극장을 건설하는 동시에 교예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평양교예학교를 설립·운영

● 사리원 민속촌에 침성대 모형도 전시(1/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른 사리원 민속거리에 민속오락장, 조선옷점(한복점), 고려약방(한약방), 민속음식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섰다

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소개

- 역사자료 전시마당에는 고조선 시대의 고인돌 모형과 첨성대 모형 등 한반도의 대표적인 역사유적 모형과 함께 반만년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소개하는 직관(그림·도표) 자료들이 전시

※ 사리원 민속거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리원시가 2004년부터 시내 명승지인 경암산 기슭의 80여 정보(약 24만여 평)의 부지에 건설한 민속촌으로 2008년 말 완공됐으며, 김 위원장이 12월 중순 시찰하였음.

● UNICEF, 北전역 백신 냉장보관설비 교체(1/22, 미국의 소리방송)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올해부터 북한 전역의 백신 냉장보관설비를 대대적으로 교체할 계획. UNICEF 평양사무소의 캄롤 이슬람 보건영양사업팀장은 22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올해 평양사무소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백신 냉장보관설비 교체와 관련한 기술자 교육”이라고 언급
- 그는 “2007년 당시 북한의 예방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홍역이 발생했다”며 “UNICEF는 자체 조사결과 북한 내 예방 백신 냉장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사업배경을 설명

● 北당국, 북한 내 ‘지하교회’ 처음 인정(1/21, 미국의 소리방송)

- 북한 당국이 최근 처음으로 북한 내 지하교회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21일 보도. 방송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2008년 12월 18일 ‘간첩’을 체포했다고 발표하면서 “종교의 탈을 쓰고 불순 적대분자들을 조직적으로 규합하려던 비밀지하교회 결성 음모를 적발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

● 北, 작년 최우수 씨름·바둑 선수 선정(1/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태권도위원회는 2008년 최우수 씨름 선수로 평양시태권도선수단의 리철송(남자), 강대권(남자) 선수를 선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
- 최우수 바둑 선수로는 조선바둑협회의 조대원(남자) 선수가 뽑혔고, 최우수

감독에는 평양시태권도선수단의 씨름 감독인 리경남(남자)과 조선태권도 위원회 태권도국가종합선수단의 바둑 감독인 리봉일(남자)이 각각 선정

※ 북한에선 태권도 외에 씨름, 바둑 등도 '민족체육'으로 분류해 태권도위원회에서 총괄

● 北, 2009년에도 '평양 리모델링' 계속(1/21, 조선신보)

- 북한이 '평양 리모델링'의 일환으로 올해 기존 공원을 일신하고 새 공원을 여러 곳 만들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21일 보도. 신문은 "올해 수도(평양)의 곳곳에 새 공원이 꾸러지게" 되고 "또한 시안의 곳곳에 3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소개
- 평양시 인민위원회는 주택 건설이 한창인 만수대거리에 공원을 만들고 대성구역 안악동에 '민속공원'을, 락랑구역에 있는 북송 비전향장기수 리인모의 반신상 주변에 현대적인 공원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힘.

● 北, 반만년사를 '지도첩'으로 제작(1/20, 조선신보)

-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고대에서 근대까지 한국사를 지도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조선역사지도첩'을 발간. 조선신보는 20일 "역사지도첩은 고대로부터 근대까지 반만년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하는 100여도의 역사지도로 구성됐다"고 소개

● 北미술창작기관, 미술작품 100여 점 창작(1/19, 조선중앙통신)

- 만수대창작사와 중앙미술창작사를 비롯한 북한 미술창작기관의 미술가들이 새해 들어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와 원산청년발전소 등을 찾아가 공장 과 근로자의 모습을 담은 100여 점의 미술작품을 새로 창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

● 北, 겨울철 '모범농민' 대상 휴양 실시(1/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새해 첫 겨울철 '농민휴양'이 시작돼 각 지역 휴양소에서 '모범'으로 선발된 농민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
- 통신은 평양시의 고방산, 평안북도의 묘향산, 함경북도의 온포, 함경남도의 송단, 정평, 황해남도의 석담구곡 등에 자리 잡은 휴양소들이 일제히 문

을 열었다며 “휴양생들은 휴양기간에 혁명사적지와 명승지 참관, 다채로운 예술 활동, 체육경기, 민속놀이 등으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소개

※ 북한에서는 겨울철 농한기인 12~2월 ‘모범’ 농민을 대상으로 정기휴양인 ‘농민휴양’ 제도를 운영. 북한의 휴양소는 4월부터 10월까지 ‘모범’ 노동자·사무원과 그 가족들이 이용하고 한 달 동안 정비한 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모범 농민과 그 가족에게 개방

● 北, 올해 다양한 천문학 활동(1/19, 조선중앙TV)

- 북한은 올해 유엔이 정한 ‘국제 천문학의 해’를 맞아 천문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발표회 등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
- 북한 국가과학원 평양천문대 정석 대장은 중앙TV와 인터뷰에서 평양천문대는 올해 “천문학 연구를 보다 활발히 벌이는 한편 천문학 전문가와 애호가들이 참가하는 과학기술 발표회, 과학강연회, 천문 관측경험 발표회, 천문 관측감상 발표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조직, 진행하게 된다”고 언급
- 국제천문학연맹에는 세계 140여 개국과 50여 개 국제기구가 가입되어 있으며, 북한은 지난해 11월 연맹에 가입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北, 미사용 연료봉 구매 여부 타진(1/21, 연합뉴스)

- 미사용 연료봉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5~19일간 북한을 방문했던 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 등 우리 대표단은 북측 고위급 인사를 만나지 못해 남북관계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20일 알려짐.
- 황단장은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계관 외무성 부상과 차석대표인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발표.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외무성을 방문하게 되면 남북관계와 관련한 우리 기존 입장을 전달하려 했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북측도 남북관계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

- 황단장 일행은 방북 기간 중 영변의 핵 연료봉 제조공장을 비롯한 3개 불능화시설을 시찰하며 미사용 연료봉 구매 가능 여부를 타진했으며 “북한은 우리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는 등 연료봉 관련 협의에는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발표. 외교부 당국자는 ‘북측이 원하는 연료봉의 가격을 제시했는데는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해 북한이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했음을 시사

※ 북한이 보유한 미사용 연료봉은 1991~1994년 생산된 1만4800여 개로, 5MW 원자로용 2400여 개, 50MW 원자로용 1만2400여 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나라로는 101.9t에 해당되며, 국제시세로는 1,000만 달러를 웃도는 것임.

나. 북·미 관계

● 조선신보, 오바마에 북핵도 중요한 과제(1/2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2일, 조선신보는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사실을 전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더 이상 까다로운 외교적 난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북한 핵문제에 관해) 현실적이며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 앞에 경제위기와 이라크 문제 등 현안이 산적했지만 “조선반도(한반도) 핵문제 또한 외면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

● 오바마, 직접외교 통한 北비핵화 공식채택(1/21, 미백악관 홈페이지)

-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21일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는 북한 비핵화정책을 공식 천명. 미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오바마 정부의 국정 어젠다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제거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실질적인 압력이 뒷받침되는 강한 외교를 활용 하겠다”고 언급
- 특히 오바마 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동

결, '불능화' 정도가 아니라 '제거(eliminate)하겠다'며 북핵문제의 최종 목표로 제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음. 또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실질적인 압력이 뒷받침되는 '터프한 외교'를 명시적으로 밝힘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당근과 채찍 병행전략'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것을 시사함.

- 이어 오바마 정부는 "우방이든, 적국이든 모든 국가와 전제 조건 없이 강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벌이겠다"며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음을 밝힘.

● **北, 오바마 美대통령 취임 보도(1/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하루만인 21일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사실을 비교적 신속히 보도. 통신은 "미국에서 바라크 오바마가 20일에 제44대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였다"며 "이날 대통령 취임식이 미국회 청사에서 진행되었다"고 전하고 "취임식에서 그는 취임 연설을 했다"고 간략히 설명

다. 북·중 관계

● **김정일, 중국대사관에 설 선물(1/26, 중국 국제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설을 맞아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직원들에게 설 인사를 전하고 명절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중국의 국제방송이 26일 보도
- 설 인사와 명절 위문품은 박경선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25일 중국 대사관을 찾아 류사오밍(劉曉明) 중국대사에게 전달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명절 위문품의 종류와 수량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음.

● **왕자루이, 김정일 면담 후 귀국(1/24, 연합)**

-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3박4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24일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을 통해 귀국
- 왕자루이 부장의 귀국은 이날 함께 고려항공을 타고 온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38)씨를 통해 확인

- 왕자루이 부장은 김 위원장의 건강악화설 이후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23일 김 위원장을 면담하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직접 전달. 후 주석은 친서에서 김 위원장에게 “편한 시간에 중국을 방문하기를 원하며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초청했으며 김 위원장은 후 주석의 방중 초청을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보도됨.
- 왕자루이 부장은 이번 평양 방문에서 김영일 내각 총리,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 당정 고위층을 두루 만났음.

● 中 후진타오, 北 김정일에 친서(1/23,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중인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23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이날 왕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외연락부 대표단을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왕 부장은 “음력설에 즈음하여 보내온” 후 주석의 “축하인사와 친서”를 전달하고 대표단이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다고 북한 방송들은 보도
- 김 위원장은 후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과 국가 지도부에 설 축하인사를 전하고 ‘조·중(북·중) 친선의 해’ 정초에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하고 왕 부장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담화”를 한 뒤 이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고 방송은 보도
- 면담에는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류샤오밍(劉曉明)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배석

● 北 김영일, 中 왕자루이 담화(1/22, 조선중앙통신)

- 김영일 내각 총리가 2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 중인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에서 담화를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 자리에는 김태중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동석
- 김 총리는 “지난해 중국 당과 인민이 호금도(후진타오) 총서기 동지의 영도 밑에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나라의 대외적 권위를 더욱 높였다”면서 “중국 공산당 제17차 대회에서 제시된 과업 관철을 위한 중국 인민의 투쟁에서

- 보다 큰 전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
- 앞서 왕 부장은 북한의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만나 담화를 나눔.

라. 북·러 관계

● 러, 北 핵보유국 인정 안 해(1/21, 연합)

- 글레브 이바셴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21일 러시아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핵을 포기토록 6자회담을 통해 설득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
- 이바셴초프 대사는 21일 국제한민족재단이 ‘2009 한·러관계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전망’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또 러시아는 “시베리아 및 극동지구의 자원개발을 위해” 이 지역의 안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러시아 국경 인접에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실시를 반대한다고 밝힘.
- 그는 북한의 우방으로서 북한 인권과 기아 문제에 대한 입장에 관한 질문에 “바깥에서 비판하고 위협하면서 시스템을 바꾸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의견”이라며 “내부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외부에서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서로 대화를 유지하며 경제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상호신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언급

마. 기타 외교 관계

● 北-쿠바 대사관 친선모임(1/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는 20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북한 주재 쿠바 대사관과 친선모임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모임에는 호세 마누엘 몬타노 주북 쿠바 대사와 북한 노동당의 김태종 부부장 등이 참석

3) 대남정세

● 민간지원단체, 대북지원 일상대로 진행 중(1/19, 연합뉴스)

- 북한이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 정부에 대한 '전면 대결태세'를 선언했으나 19일 현재 민간 대북 지원 단체들의 방북 계획 등은 일상적으로 진행, 20일과 22일 각각 금강산과 개성에 연탄 5만 장씩을 전달할 예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운동의 윤유선 실장은 “우리는 인도적 지원이니까 큰일 없고 걱정 안한다”며 “내일 금강산 들어가기 위한 초청장이 오늘(19일) 아침에 왔고, 개성 방문 초청장도 문제없이 올 것”이라고 언급
- 그는 “북측에서 20일까지는 신년 공동시설 학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실무자의 방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내일 금강산 방문과 22일 개성 방문 때는 실무자가 각각 서너 명 연탄과 같이 갈 것”이라고 답변. 다만 개성 관광이 끊기는 바람에 그동안 개성에 있는 현대아산을 통해 오던 초청장이 금강산에 있는 현대아산을 거쳐 오기 때문에 “좀 빠듯하게 온다”고 윤 실장은 덧붙임.

01.28-02.01

1월
5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기타 외교 관계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대의원 후보로 추대(2/1,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일 '제333호 선거구'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후보로 추대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북한은 1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군 총정치국장, 김격식 총참모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등 군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제333호 선거구 선거자 대회를 갖고 김 위원장을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로 결정
-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보고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는 우리 사회주의 조국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투쟁에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역사적 사변”이라며 “최고사령관 동지 두리(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제333호 선거구 선거자대회가 군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군 시설인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것으로 미뤄볼 때 이 선거구는 군 관련 선거구로 관측
- 김 위원장이 제333호 선거구 선거자 대회에서 대의원 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그는 앞으로 10여일 후 이 선거구에서 대의원 후보로 공식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정일 위원장이 제333호 선거구 대의원 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북한 전역의 선거구에서도 김 위원장을 후보로 추대하는 행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 김정일, 軍배구 경기·공연 관람(1/2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설을 맞아 북한군 배구팀간 경기와 북한군 협주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
- 김 위원장의 경기관람엔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리제강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제일 당 선전 선동부 제1부부장, 김기룡 중앙통신사 사장, 차승수 조선중앙방송위원장, 현철해, 김명국, 리명수 북한군 대장이 수행, 공연 관

람에는 이들 외에 북한군 해군사령관 정명도 상장, 공군사령관 리병철 상장도 수행

- 통신은 배구경기는 '4·25'팀과 종합팀 간 열렸으며, 공연은 해군사령부협주단과 공군사령부협주단이 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장소와 일시 등은 전하지 않음.

● 김정일, 정치적 입지 회복한 듯(1/29, 로이터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의 건강위기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제자리를 잡고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 같다고 미국 관리가 밝힌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29일 보도
- 로이터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안보담당 관리는 “김 위원장이 북한 당국 내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등 지금은 권력의 핵심에 앉아 있는 것 같다”면서 “그는 몇 달 전 건강문제로 고생을 겪었지만 최소한 지금으로선 그런 문제들이 김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고 답변

나. 정치 관련

● 北, 南 경고 외면, 군사충돌 이어질 수도(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화근은 제때에 제거해 버려야 한다' 제목의 논평에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1.30)을 거론하면서 북측 경고에 대한 남한 정부의 외면이 현재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감안할 때 군사적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
- 노동신문은 조평통의 성명은 “남북관계가 더 이상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한 당연한 조치”라며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가 험악한 지경에 처하게 된 책임이 있으며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우리는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데 대해 한두번만 경고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남측 정부는 “상투적 협박”이니 ‘버티기 전략’이니 뭐니 하며 우리의 경고를 외면하고 오히려 반공화국 대결과 북침전쟁 도발소동을 벌여놓는 것으로 대답해 나섰다”고 비난

- 이 신문은 이어 “정전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결은 곧 긴장격화이고 그것은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군사적 충돌,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의 준엄한 경고를 외면하고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것이 중국적 파멸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
- 또 노동신문에는 홍서헌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을 비롯해 김만수 전력공업성 부상, 조선사회민주당 김지선 부위원장, 태천군 은홍협동농장 허정옥 관리위원장 등이 조평통 성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대남 “대결 의지”를 담은 글을 기고

● 北, 남북관계 최악대비 끝낸 듯(2/1, 신화통신)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월 30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성명을 내고 남북 간 정치·군사 합의사항의 무효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위기를 분석하는 장문의 기사를 1일 게재
- 통신은 그러면서 조평통의 발표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한국정부가 취한 대북정책이 이른바 ‘부끄러운 실패’를 했다는 상황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는 북한이 남북 관계에서의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끝냈음을 의미 한다”고 해석. 그러나 조평통의 성명이 수위가 높긴 하지만 남북 관계의 개선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닐 것으로 관측
- 조평통의 성명에 북한이 중시하는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고성 메시지와 맥을 같이하며 남북 관계에 대한 개선의 여지도 담겨 있다고 분석

● 비핵화, 동북아 냉전구조 해체 필수(1/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 노동신문은 “동북아시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것은 이 지역 나라들의 공동의 이해관계에 부합될 뿐 아니라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미국은 현실을 냉철하게 대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냉전구조를 하루빨리 해체하여야 한다”고 강조
- 이 신문은 또 “미국의 미사일방위(MD) 체계 수립 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한다”며 “미국은 동북아시아와 유럽지역에 강력한 미사일망을 형성하고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나라들에 미사일 선제공격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타산하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이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 책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주변나라에 대한 선제공격 폭언들이 거침없이 튀어나오고 있다”고 비난

● 北, 미국 동경 주민 확산 경계(1/27, 민주조선; 1/30, 우리민족끼리)

- 북한이 최근 대미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와중에도 민주조선은 “미국에 대한 환상은 비참한 운명을 초래한다”며 철저한 ‘사상 무장’을 강조
- 민주조선 27일 ‘반제투쟁에서 적에 대한 환상은 금물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평화’와 ‘인권존중’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지만 “반제투쟁에서 승리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자면 적에 대한 자그마한 기대와 환상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베트남전 사례를 거론, “몇십년 전 동남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싸운 고용병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 버림받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이라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
- 신문은 “적들은 각이한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북한)를 비롯한 반제자주적인 나라 인민들에게 색정, 부화방탕, 인간증오의 내용이 담긴 도서, 녹화테이프 등 각종 불순 선전물들을 전파”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민심을 소란케” 하며 “돈과 뇌물로 사람들을 매수, 유혹하는 방법 등을 통해 불평분자, 동요분자, 타락분자, 변절자들이 생겨나게 해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책동도 벌이고 있다”고 경계심을 드러냄.

● 北, 남북기본합의서 NLL조항 폐기(1/30,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0일 남북 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 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발표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성명에서 “오늘 조선반도 정세는 남조선 보수 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갈수록 긴장해지고 있다”며 이 같

은 조치를 발표

- 조평통은 “북남 당국 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존중 문제, 비방중상 중지 문제, 무력충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돼 있다”고 일방적인 무효화 선언 대상을 예시
- 조평통은 “현실은 북남 합의사항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 한다”고 언급
- 조평통 성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방문과정에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발언과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급변사태론, 선제공격론 등을 거론, “북남 합의사항들을 무참히 파괴, 유린했다”며 “이런 형편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북남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됐으므로 우리는 그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고 주장. 또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가운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북남합의 파괴책동으로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되어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중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언급
- 조평통은 또 ‘비핵·개방·3000’ 입안자인 현인택 고려대 교수를 통일부장관에 내정한 것은 “우리와 끝까지 엇서나가겠다는 것을 세계 면전에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이제 북남관계는 더 이상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되었다”며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러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 접경으로까지 왔다”고 주장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까지 부정한 마당에 이제 그 무슨 대화에 대해 논할 여지가 있고 화해와 협력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임.

다. 경제 관련

● 北, 적개심 활용한 경제 선동(1/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각계 반응식으로 조평통 성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선전하면서 대남 ‘적개심’을 경제재건 동원에 활용. 이 신문은 노동계, 농업부문, 기계부문 대표들과 함께 군장성을 곁들여 전날 조평통 성명

에 대한 반응을 다짐의 글 형태로 전하면서 “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강화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긴장한 투쟁을 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도 인용

- “분노의 피”가 끓어오른다는 장학수 농업성 국장은 “농사 채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남한 정부를 “징벌하겠다”거나 “멸적의 총창을 박는 심정으로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서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고 있다”고 경제선동을 진행

● **금융위기에 北채권가 사상 최저(1/31,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 채권 가격이 하락을 거듭해 현재 거래가는 액면가의 10분의 1도 안되는 1달러당 8센트로 1994년 발행 이래 최저가를 기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
- 북한에 돈을 빌려준 서방은행들이 그 일부라도 찾으려고 발행한 북한 채권의 현재 거래가는 3개월 전 12센트에 비해 30% 넘게 떨어진 것으로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 북한 채권은 1년 전 가격은 달러당 32센트였음.
- 방송은 북한이 서방은행에 갚아야 할 빚을 총 16억 달러로 추정하고 현재 북한 채권은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 때 10센트대로 떨어진 이후 최저가라고 설명. 북한 채권의 거래를 대행하는 영국 금융 중개회사인 이그조틱스사의 스튜어트 컬버하우스 수석경제분석가는 “전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확보를 위해 투자자마다 안전한 현금을 선호하고 채권과 같은 상품에 투자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북한 채권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북한 채권 가격이 북한의 변화나 행위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금융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 추세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상승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

● **北, 세계 식량위기 장기화 강조(1/30, 노동신문)**

- 북한 당국이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내세워 심각한 북한 식량난의 책임을 외부요인에 전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신문은 30일 식량위기에 대처한 국제적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며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대응책을 관심있게 보도

- 신문은 식량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세계 각국은 식량문제 해결에서 “그 누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에 의거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식량절약과 자립 등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정책에 맞춰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위기 타개책을 소개

● 北, 경제선동에 60~80대 노인들도 나서(1/29, 조선신보)

-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경제재건을 위해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주민들에게 독려한 가운데 60대-80대 노인들로 구성된 선동대도 기업소 등 현장에서 경제선동에 나섰다 조선신보가 29일 소개
- 신문은 이들이 고 김일성 주석 사망 10주년인 2004년 조직된 ‘평양시혁명열사유자녀실화기동대’ 소속으로 “대일, 대미항쟁에서 생을 빛내인 애국열사들의 자녀들”이며 평균 나이 70세라고 설명. 이들은 예술분야 전문기량은 없지만 “선대들의 정신과 투지가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 꾸밈없이 전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
- ‘실화’기동대라는 단체 이름도 “역사의 중요 국면들에서 실지 체험한 내용들을 실감있게” 전한다는 취지에서 붙여진 것으로 추정됨. 나이로 볼 때 이들은 1950, 60년대 천리마운동을 직접 경험한 세대임.

● 北, 기존 공장 개선 우선해야(2008년 4호,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 김일성종합대학 학보가 많은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경제를 빨리 현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장의 개조·개선(개선)을 우선할 것을 주장. 2008년 4호에서는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달성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하는 것”,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기술 개선(개선)과 현대적인 공장 건설을 옹계 배합하는 것”, “절실하고 실리가 큰 대상부터 해나가는 것” 등이라고 언급
- 학보는 “새 공장 건설은 많은 자금이 들고 오랜 기간이 걸리는 반면 기존 공장 개선은 큰 투자를 하지 않고도 현대화를 빨리 실현할 수 있다”면서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설비와 생산공정을 개조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
- 학보는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 정보화는 많은 현대적 설비와 자재, 자금을 요구한다”며 “이런 조건에서 공장, 기업소의 현대화를 처음부터

많은 대상들에 벌려놓고 한꺼번에 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집중’ 전략도 제시

● 北, 식량난 해결책으로 재배어업 강조(1/17, 노동신문)

- 북한이 식량난 해결에 매달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 국가과학원 수산과학분원의 신상일 원장은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수산부문의 식량 해결 기여책으로 ‘재배어업’을 강조. 그는 “수산 자원을 잡기만 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인공적으로 길러서 잡는 어업이 중요합니다.” 라고 주장

● 美 대북식량 7차분 도착 지연(1/29, 미국의 소리방송)

-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식량 50만t중 7번째 선적분의 북한 도착이 악천후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
 - 익명을 요구한 미국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는 “당초 19일까지 남포항에 ‘옥수수과 콩 혼합물’과 식용유 4천940t이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 식량을 실은 배가 중국 랴오닝(遼寧)성의 다롄(大連) 항구에서 대기 중”이라고 말했으며, 미 국무부 관계자는 도착 예정일을 1월 말이라고 밝혔다고 VOA는 보도
 - 이번 7차분 식량은 머시코, 월드비전,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5개 미국 NGO가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25개 군에서 분배할 예정으로 알려짐.

● 유니세프, 대북지원 1300만 달러 목표(1/28, 유니세프 ‘2009년 인도주의 활동 보고서’)

-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는 올해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1천3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힘. 28일 유니세프가 발표한 ‘2009 인도주의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문별 소요자금은 보건·영양 분야 750만 달러, 수질과 공중위생 분야 450만 달러, 교육 분야 100만 달러 등임.
 - 유니세프는 “2007년 홍수 피해의 여파와 전통적으로 상당한 양의 식량 부족을 메워왔던 (한국과 중국 등으로부터의) 식량 수입이 급감하면서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의 영양부족 상태가 심각한 우려 사안이 되고 있

다”고 강조

- 유니세프는 북한에서 계속되는 가난과 미흡한 보건위생 체계, 불량한 수질 및 위생 시설, 아동·임산부에 대한 부적절한 보호 조치, 취약한 식량 상황 등으로 인해 아동사망률이 1천 명 당 55명, 5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가운데 각각 37%와 32%가 영양부족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

라. 사회·문화 관련

● 유엔, 北 세쌍둥이 부모와 분리양육 우려(2/1, 연합)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북한 어린이들의 권리에 관한 대북 권고문에서 먹는 문제 등 경제사회적 권리에서 더 나아가 자유로이 책이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 포괄적인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문제도 제기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특히 제34항에서 세쌍둥이가 국가에 의해 홍보 목적으로 자동적으로 부모로부터 떼어내져 양육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탁아소 제도에 우려를 나타내고, 집체공연인 ‘아리랑’에 아이들을 동원, 공부할 시간을 빼앗는 문제를 시정할 것과 교과 과정에 평화교육을 포함시켜 평화와 관용의 문화를 학교에서 배양할 것을 권고
- 다음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북한 아동권리에 대한 3번째 권고문의 주요 내용임. 1)북한 시민단체가 관변단체와 구별이 안되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자발적 시민사회를 조성할 것, 2)부모의 출신성분에 따른 아동 차별을 없앨 것, 3)상당수 아동이 실제로 고아가 아닌데도 고아원 같은 아동보호기관에 수용돼 있는 현실을 시정할 것, 4)산간벽지 등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의약품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게 할 것, 5)유엔 기관들이 지원하는 식량 등 인도적 물자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 6)16세 전후 소년병 징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장자순으로 징병할 것, 7)아편농장 노동에 아동이 동원되고 약물 남용이 증가하는 데 대한 우려 표명

● 北평양시, 보통강 대대적 준설(1/29, 조선신보)

- 북한 평양 도심을 흐르는 보통강의 강바닥에 쌓인 감탕(진흙)을 제거하기 위해 강바닥을 파내는 작업이 “대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9일 보도. 보통강 준설 작업은 “지난 시기 청년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벌이는 사회정치 활동의 일환”이었지만 지난 21일 시작된 작업에는 평양의 11개 구역 기관, 기업소들과 성, 중앙기관이 망라됐다고 신문은 설명해 전 시적으로 노력동원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

- 조선신보가 제공한 사진에는 큰 돌들을 수북이 쌓인 보통강 둔치에서 두툼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돌과 진흙 등을 이어 나르는 모습이 담겨있어 준설 작업이 중장비보다 인력 위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줌.
- 보통강변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8월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진 후 치료를 받은 곳으로 알려진 고위층 전용 봉화진료소를 비롯해 유명음식점인 청류관과 대형 대중목욕탕인 창광원 등이 인접했고, 중앙당 부부장들의 사택들도 즐비하지만 오염이 심해 평소에도 악취가 심한 곳으로 알려짐.

● 北교육지, ‘아이 눈높이 토론’ 권장(2008년 5호, 인민교육)

- 북한의 격월간 교육 잡지 ‘인민교육’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을 활성화할 것을 권장. ‘인민교육’은 2008년 5호에서 독일의 가정교육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독일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어른들과 논쟁하도록 고무 격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장은 아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 이와 함께 아이의 학습 성적이 좋지 못하거나 불량행동을 했을 때도 독일 부모들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놓고 아이들과 진지하게 토론하며 아이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는 점을 지적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러시아도 대북 중유지원 완료(1/30, 연합)

- 미국에 이어 러시아도 북핵 6자회담 차원에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맞

취 제공해야 하는 중유지원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짐. 외교 소식통은 30일 “러시아가 담당하기로 한 중유 20만t의 대북지원이 최근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보도

-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검증의정서 채택에 실패하자 검증문제와 대북지원을 포괄적으로 연계, 남은 중유 5.5만t 상당의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은 ‘대북지원은 불능화와 연계된 것’이라며 의정서 채택 실패와 관계없이 지원을 계속해 왔음. 중국은 중유 6만t 상당의 지원을 남겨놓고 있어 3월 초까지는 지원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앞서 작년 하반기에 가장 먼저 중유 20만t 지원을 완료

● 北외무상, 6자회담 러 수석대표 면담(1/29, 조선중앙통신)

- 박의춘 외무상이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핵 6자회담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을 면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음.

나. 북·미 관계

● 美거물급 민간 방북단, 베이징 도착(2/1, 연합)

- 이번주 초 방북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거물급 북한 전문가들이 평양 방문에 앞서 1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 전직 미국 정부 관리와 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7명의 방문단은 베이징에서 이틀간 머문 뒤 북한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 방북단의 일원인 모튼 아브라모위츠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방북 일정과 관련, 오는 3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방북단 관계자들은 토요일인 7일 평양을 떠날 예정이라고 언급
- 방문단에는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대사, 조너선 폴락 미 해군대학 교수 등이 포함,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간 첫 민간 교류가 될 이번 방북에서 방북단은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 북측 고위인사들도 접촉할 것으로 전망돼 단순한 민간 교류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美, 北 대남공세 도움 안돼(1/30, 미 국무부)

- 미 국무부는 30일 북한이 정치, 군사적 남북합의를 일방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북한의 대남공세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힘.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남북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이러한 수사적 공세는 분명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우리의 지속적인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가로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언급

● 조선신보, 오바마의 현명한 선택 바랄 뿐(1/30,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 소식을 전하면서 대북정책에서 “그의 현명한 선택을 바랄 뿐”이라고 기대를 표시
- 조선신보는 “조선반도(한반도) 정책에서 오바마씨는 부시 정권시대의 ‘잃어버린 8년’을 도로 찾으려 하듯 협상과 교섭, 평화적인 해법을 추구하고 있다”고 희망섞인 분석을 하고 “클린턴 정권시대의 교훈도 살리고 냉정하게 대처한다면 조선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코 어렵지 않다”고 강조

● 오바마정부, 北인권상황 우려(1/29, 미 국무부)

- 새로 출범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29일 공식 밝힘. 국무부는 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책도 전체 대북정책 리뷰의 일환으로 재검토되고 있다고 확인, 대북정책 재검토가 마무리돼야 대북인권정책도 가시화될 것임을 내비침.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은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 인권상황은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상당한 우려사항(something of concern)”이라고 답변하고 “분명한 것은 북한인권문제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진전시킬까라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의 일부”이라고 언급, 북한인권 대응책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주요 관심사로 다룰 것임을 시사

● 美, 北동창리 미사일기지 완성단계(1/29, 연합)

-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건설중인 미사일기지가 완성단계로, 올

봄에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국제위기감시기구(ICG) 서울사무소의 대니얼 핑크스틴 수석연구원은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위성사진과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이 북서쪽에 짓고 있는 최신 미사일기지는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힘.

- 북한은 2006년 7월 5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대포동2호 미사일(사정 4천300~6천km)을 처음으로 발사했지만 40초간 정상비행하다 공중에서 부러져 실패한 바 있음. 한국과 미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이 8~9년 전부터 동창리에 무수단리 기지보다 규모가 큰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건설해 온 것으로 보고 있음.
- 핑크스틴 연구원은 북한이 동창리에 미사일 기지를 마련한 것은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며 “동창리에서 발사된 미사일도 일본 위를 지나갈 수는 있지만 북한은 일본 영공보다 높이 지나갔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
- 그는 또 북한이 미국 오바마 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핵실험 준비차원의 고폭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북한은 2008년 하반기까지도 플루토늄은 사용하지 않는 고폭실험을 계속했다”면서 “평양은 정치적 효과가 최고조에 이를 시점을 택해 고폭실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주장

● 미국방, 北이 핵 완전포기 할지 지켜보아야(1/27,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발언문)

-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27일 북핵문제와 관련,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거듭 확인하고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려고 하는 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
- 게이츠 장관은 또 북핵 6자회담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에 대처하는 데 있어 전향적 모멘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가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지적
- 게이츠 장관은 이날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사전배포한 발언문에서 “우리(미국)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미국에 적대적인) ‘불량국가’와 테러집단, 핵·화학·생물무기의 결합”이라면서 이와 관련된 북한의 위협을 언급

- 그는 핵을 제외한 북한의 재래식 군사능력은 장비가 점차 노후화되고 각종 자원과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쇠퇴했지만 북한은 사거리를 늘린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도 개입한 기록을 갖고 있다고 지적
- 게이츠 장관은 6자회담과 관련, “6자회담이 특히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에 대처하는 데 일정 정도 전향적 모멘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의 결과에 완전히 만족한다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6자회담의 성과에 불만을 드러냄. 그는 또 “6자회담은 북한이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거나 우리늄을 농축하는 능력을 줄이거나 제거하고, 확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이지만, 북한이 핵야욕을 완전히 포기할 의향이 있는 지는 여전히 지켜 봐야 한다”고 밝힘.

● 힐러리, 북핵 6자회담 필수적(1/27, 미 국무부)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7일 북핵 6자회담은 필수적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6자회담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북미양자 회담을 활용할 가능성도 열어 놓음. 클린턴 국무장관은 국무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6자회담은 필수적”이라며 “6자회담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가 들어 있는 다른 문제를 다루는데도 참가국들에 유용했다”고 언급
-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어 “6자회담 내에 (북미)양자회담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우리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해 북핵 문제 타결을 위해 북미 양자회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침.
- 이와 관련,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장관이 언급한 ‘필수적’이라는 용어가 기본적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이 지키겠다고 말한 협정을 준수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

다. 기타 외교 관계

● 북한, 泰외무장관 평양방문 초청(1/29, 연합뉴스)

- 카싯 피로미야 태국 외무장관은 29일 북한 정부로부터 평양 방문을 초대받았다고 밝힘. 카싯 장관은 기자들에게 “오영선(59) 태국주재 북한 대사가 예방해 구두로 평양 방문을 제안했다”고 소개
- 그는 이 자리에서 “오 대사에게 1970년대 북한으로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태국 여성 아노차 판조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힘. 아노차는 1978년 5월 21일 마카오에서 친구들과 일을 하던 중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은 지금까지 아노차의 납치를 부인해왔음.
- 카싯 장관은 또 탈북자들의 태국 망명 문제와 관련, 탈북의 주요 통로인 중국과 사태해결 방안을 논의하라고 제안했다고 설명하면서 “더 이상 탈북자들의 망명지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언급

● 노동당대표단 영국 방문(1/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박경선 당 중앙위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노동당 대표단이 영국을 방문하기 위해 27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02.02-02.08

2월
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홍남비료 시찰, 비료생산 독려(2/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대 비료 생산 공장인 함경남도 함흥시 소재 홍남비료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고 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
- 김 위원장은 홍남비료연합기업소 시설을 둘러본 뒤 “식량문제를 풀자면 농촌에 비료를 많이 보내 주어야 한다”며 “비료공장의 모든 생산공정들을 최신설비로 장비하기 위한 기술개선(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
- 그는 이 기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스화 암모니아 공정과 관련, “새로운 암모니아 생산공정은 농업발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이라며 “도안의 당 및 근로단체조직, 행정경제기관에서 여기에 총역량을 집중하고 락원기계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등 연관 기업소에서 공사에 필요한 대상설비를 신속 정확히 생산·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우선적인 자재보장을 지시
- 김 위원장은 이어 함흥 시내를 둘러보고 시 건설계획을 조감도와 함께 청취한 뒤 “도로형성, 건물형식과 배치, 유원지 조성과 문화 및 체육지구 형성을 비롯한 모든 대상을 특색 있게 건설하며 특히 지하 망 건설과 도시난방에 신중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며 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금진강에 발전소 건설을 강조
- 또 과학원 함흥분원에서 개발한 제품을 살펴본 뒤 “함경남도는 많은 기간 공업기업소들, 특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큰 공장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시
- 김 위원장은 현지지도에 이어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부장, 리제강·리재일 당 중앙위 제1부부장, 현철해·리명수 대장 등과 함께 함경남도 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관람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함경남도 경제시설에 대한 현지지도와 함께 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고 이 부대의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 김 위원장이 최근 함경남도 지역을 집중적으로 시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대는 함남도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관측

● **낮술 마신 김정일 건강 과시(2/6, 조선일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월 23일 방북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오랜 시간 점심을 들면서 도수(度數)가 높은 술을 여러 잔 마셨다고 베이징(北京)의 외교 소식통이 5일 보도
-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1월 23일 오전 왕 부장과 회담한 뒤 2시간 넘게 함께 점심을 했는데, 반주로 북한산 술(증류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건배제의를 하면서 이 술을 소주잔보다 약간 작은 잔에 담아 여러 잔 들이켰다”고 전언
- 이를 두고 베이징 외교가에선 김 위원장이 작년 가을 뇌수술 이후 외국 인사로는 처음으로 왕 부장을 대면,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다소 ‘오버’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서 “김 위원장이 왕 부장 면담을 앞두고 몸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1주일 이상 지방시찰 활동도 자제했다”며 “오찬이 5시간 가량 지속됐다”고 보도

● **中, 주변국에 김정일 건강 이상무 통보(2/5, 마이니치신문)**

- 중국의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최근 북한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한 것과 관련, 중국 당국이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안색이 좋고, 왼손 움직임도 문제가 없다”고 주변국에 통보했다고 일본 마이니치(毎日)신문이 5일 보도
- 베이징(北京)의 외교 관계자가 마이니치에 밝힌 바에 따르면 왕 부장의 방북은 북한측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중국 고위 간부에게 김 위원장의 건재를 확인시키고 권력구조에 변화가 없음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신문은 보도
- 중국 당국은 1월 21일 평양에 들어가 23일 백화원초대소에서 김 위원장과 면담하며 식사를 같이한 왕 부장의 보고를 토대로 주변국에 대해 “예전보

다도 머리숱이 적어 늙어 보이긴 했으나 안색은 좋았으며, 대화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보고. 또한 좌반신에 마비 증세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왼손으로 물건을 드는데 문제가 없었으며, 수족을 포함한 동작에도 부자연스러운 곳이 없었다”며 그의 건강에 별 문제가 없다는 총괄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신문은 소개. 김 위원장은 왕 부장 일행과 2시간에 걸쳐 행동을 함께 하며 식사도 같이 했던 것으로 알려짐.

나. 정치 관련

● 北김정일, 전 선거구서 대의원 후보로 추대(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8일 북한 전역의 선거구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우리의 국회의원) 후보로 추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북한은 지난 1일 군인 선거구인 ‘제333호 선거구’에서 김 위원장을 제12기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하는 첫 모임을 가진 이후 전역의 선거구에서 그를 후보자로 추대하는 모임을 잇달아 가졌음.
- 8일로 김 위원장을 북한의 모든 선거구에서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하는 행사가 종료됨에 따라 김 위원장은 자신의 생일인 오는 16일을 전후로 맨 먼저 자신을 후보로 추대한 제333호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평통 성명, 흐지부지 없을 것(2/8,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8일 ‘전쟁을 부르는 망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성명이 “우리 공화국(북한)의 공식 입장을 대변한 법적 성격의 문건이라는 것을 (남측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따라서 그에 천명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결코 흐지부지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조평통 성명은 북한의 “인내와 아량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이전 시기의 북남 합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뒤집어엮고 있는 조건에서 부득불 취하게 된 조치”이며 남한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을 짓밟개버리기 위한 단호하고도 추동적인 조치”라고 역설. 또 “대결에 미쳐 날뛰는 자들과는 끝까지 결산을 보고야 마는 것이 우리의 기질이며 한다면 하

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남측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과 조평통 성명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

● 北, 한미 군사훈련 비난(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남한 육군과 주한미군이 연합 훈련을 진행한 데 대해 “북침을 노린 합동군사연습”이라고 8일 비난. 통신은 “반공화국 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를 전면 파탄시키고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의 최악의 상태에 몰아넣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의 “북침 합동전쟁연습에 열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것은 저들의 파멸의 시각을 재촉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

※ 육군 제26기계화보병사단은 2월 5일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에서 미 1여단과 함께 전차,장갑차 도하훈련을 실시했으며, 육군 제53보병사단은 6일 부산항에서 주한 미해군 수송사령부와 부산지방경찰청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 연합 테러대비 훈련을 가졌음.

● 北, 玄장관 되면 남북관계 더 악화(2/8,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8일 ‘수수방관할 수 없는 사태’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장관직에 오를 경우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더 악화돼 아예 결단나고 말 것”이라고 주장

- 민주조선은 현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일 열리는 것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동족 대결의 돌격대로 나선 현인택의 죄악을 반드시 계산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 이어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현 내정자에게 “통일부 장관 감투를 씌워주려 함으로써 북남 공동선언들을 존중한다고 한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며 동족 대결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려 한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그로 말미암아 이제 북남관계에서 그 어떤 사태가 빚어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 대통령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39차 중앙위원회 개최(2/7, 조선중앙방송)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가 6일 평양에서 제39차 전원회의를 갖고 2009년 신년공동사설 관철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노동신문, 평화적 우주이용권 강조(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평화적인 우주이용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란이 자체 개발한 위성 운반용 로켓 사피르-2호에 실려 발사된 '오미드' 인공위성의 발사 성공을 거론하면서 '평화적 우주이용권'을 강조
- 신문은 "이란의 이번 위성발사는 자기 나라의 국력을 시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주개발과 이용에서 독점권이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
- 또 "우리나라는 이미 전에 평화적인 우주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을 꾸려 놓았다"며 "지금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발전하는 현실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 신문은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 우주 진출과 그 이용정책은 시대적 발전에 부합되는 정당한 것"이라며 "이를 막을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역설

● 조선신보, 이란 위성, 美패권에 강한 억제력(2/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6일 이란이 자체 개발한 위성 운반용 로켓 사피르-2호에 실려 발사된 '오미드' 인공위성의 성공에 대해 "미국의 패권에 대한 강한 억제력이 또 하나 생긴 셈"이라고 평가

● 노동신문, 만경대 가문 언급(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6일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이 구호를 더 높이 들고 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래를 위한 투쟁을 강조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가문으로 일컫는 '만경대 가문'을 언급
- 신문은 "미래를 위하여, 이것은 조선혁명의 전역사에 관통되어 있는 고귀한 정신"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부인 김형직이 내놓았다는 '지원(志遠)의 사상'을 거론, 특히 '지원'의 의미를 "대를 이어 혁명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 사상"이라며 김형직이 지었다는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도 "만경대 가문의 투철한 혁명관, 미래관이 깃들어 있다"면서 김일성 주석과 김 위원장으로 이어진 혁명을 강조

● 김정일 생일행사, 본격 시작(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7회 생일(2.16) 행사를 본격 시작. 북한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와 김용진 교육상, 김중협 노동신문사 책임주필, 장운곤 국제문제연구소장, 김영호 내각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 위원장의 ‘업적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외무성에서는 김 위원장의 생일에 즈음해 박길연 부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주재 국제기구 대표부 관계자들을 초청, 친선모임을 개최했고 문화성도 북한 주재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위한 영화감상회와 친선모임을 대동문영화관에서 마련
-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북한 정부는 5일 사회과학원 김왕섭 연구사에게 ‘후보원사’ 칭호를 수여하는 등 지식인들에게 학위·학직을 수여. 4일에는 김 위원장의 생가로 선전되는 ‘백두산 밀영 고향집’을 방문하는 전국 청소년학생들이 량강도 혜산시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앞에서 출발모임을 갖고 행군을 시작

● 조선신보, 北미사일…美주시하며 대응책 강구(2/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5일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처한 외교공세’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힘. 또 최근 북한 외무성과 인민군 총참모부의 핵군축 주장에 대해 “북미 간 교전상태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강조
- 신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도발적”이라고 규정한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의 브리핑을 거론, “언론을 이용한 일방적인 여론몰이는 미국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지적한 뒤 티머시 키팅 미 태평양사령관의 대북 급변사태 대비 군사연습 발언을 언급하며 “공중과 해상에서 미군의 군사 장비들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오마바 정권이 출범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대조선 외교에서는 넉넉한 유예기간이 허용되지 않는 듯하다”며 “해마다 3월쯤에는 미군과 남조선군에 의한 대규모 군사연습이 진행되고 최근의 사태추이에 비춰볼 때 조선을 도발하고 군대의 신경을 자극하는 움직임들이 계속될

경우 보다 강경한 대응책이 강구될 공산이 높다”고 말해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연습 등의 기간에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이뤄질 수도 있음을 시사

- 조선신보는 또 1월 13일 외무성 대변인의 핵군축 발언을 거론하면서 “미국도 반드시 조선(북)과 똑같이 핵무기를 버려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며 “조선의 핵포기를 논하기에 앞서 조.미가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교전상태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언급

● 北, 반제투쟁 양보·타협 불가(2/5,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5일 ‘사회주의는 인민의 생명-투철한 반제자주적 입장 고수’라는 해설에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대북 “정치군사적 압력과 경제적 봉쇄 책동을 전례 없이 강화하고 있다”며 “견결한 반제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현 시기 사회주의 위업을 옹호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 문제의 하나”라고 강조
- 매체는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과 공포는 사람들의 계급의식,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사상 독소”라면서 “반제투쟁에서 양보와 타협은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불러온다”고 지적, 철저한 사상 무장을 요구

● 北·美관계는 美태도에 달려(2/5,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5일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압살 기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앞으로 조(북)·미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의하여 달려있다”고 주장
- 방송은 또 “대화는 정세의 완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긴장 격화는 조·미 적대관계를 군사적 충돌 계선으로 이끌어갈 뿐”이라며 “지금까지 계속된 조미 대화와 4자회담은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

●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중앙위원회 제62차 전원회의 개최(2/4,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중앙위원회 제62차 전원회의가 3일 평양에서 열려

올해 공동시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했다고 조선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4일 보도

● 조선신보, 북미 핵공방 새 국면(2/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4일 '냉전종식 20년'이라는 제목의 '메아리' 코너에서 "국제정치 무대에서 고정불변의 존재는 없다"며 북한과 미국 간 "핵공방도 새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하고 "조선(북한)은 진정한 변혁을 위한 외교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지난 1989년 12월 말타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의 정상들이 냉전종식을 선언한 지 올해로 20년이 됐지만 "조선반도(한반도)의 대결구조는 청산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이어 "미국에서 변혁을 제창하는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1월, 냉전 후에 거론된 바 있는 주제들이 다시 부상했다"며 최근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남조선(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때에 가서는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 없게 될 것"이라며 남한에 미국의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도 요구한 사실을 지적, 이어 신문은 "미국의 과거 (남한에서 핵무기 철수) 언동이 거짓이 아니라면 신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주저할 일은 아니다"고 주장

● 北, 신세대 계급의식 교육강화 주문(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계급적 각성을 가지고 반제(反帝)자주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계급적 원수(원수)들"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을 강조하면서 계급적 원수들은 "시련을 겪지 못하고 평화로운 생활에 도취된 새 세대들을 반동적인 사상공세의 기본목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새 세대들의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
- 노동신문은 "간고한 혁명의 길을 헤쳐온" 세대의 "혁명적 지조"는 강하지만 "새 세대들에 대한 계급교양사업을 소홀히 하면 그들이 반동사상에 쉽게 오염되게 되며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순간에 말아먹을 수 있다"고 우려

● 北,李大統領 '적십자대화 희망' 비난(2/4, 노동신문; 2/3, 민주조선)

- 북한 매체들이 '남북 적십자 간 대화 재개 추진'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이명

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라고 일제히 비난

- 노동신문은 4일 '대화 파괴자의 희떠운 노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한 정부가 "인도주의 문제를 들고 나오으로써 저들에게 북남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 듯한 냄새를 풍기고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간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
- 민주조선도 3일 '어울리지 않는 대화 재개' 제목의 논평에서 "북남대화 재개문제를 통치위기 수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며 "적십자 대화 재개를 운운하기 전에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데 대해 민족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

●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제57차 전원회의 개최(2/3, 평양방송)

-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제57차 전원회의가 2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평양방송이 3일 보도. 회의에서는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서를 채택

● 北, 대의원선거, 체제강화 이정표(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월 8일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남한의 국회의원) 선거(3.8)는 "대를 이어 걸출한 영도자, 희세의 정치 군사가를 모시고 승승장구해 가는 주체의 선군위업의 불패성을 과시하고 우리 공화국 정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는 데서 역사적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
- 노동신문은 3일 '위대한 김정일 동지에 대한 천만군민의 절대적 신뢰의 표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올해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매우 뜻이 깊은 흥하는 해"라며 이같이 주장
- 신문은 이번 선거를 통해 "세상이 열백 번 변하고 천지풍파"가 닥쳐도 김정일 위원장을 따라 '선군혁명'을 하겠다는 의지와 위력을 "세상에 과시해야 한다"고 북한 군인과 주민들에게 거듭 강조

● 北매체들, 연일 '군사충돌' 위협 보도(2/3, 노동신문; 2/1, 민주조선)

- 노동신문은 3일 '북남관계 개선을 반대하는 것은 최대의 민족반역 행위'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가 "북남관계를 한사코 반대"하고 있

다고 비난하며, 이는 “북과 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재난을 불러오는 요인”이라고 주장

- 민주조선은 1일 ‘선언 존중의 외피마저 벗어던진 반통일 집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결정책”으로 인해 “가뜩이나 최악의 파국상태에 놓인 북남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저질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며 “삶의 보금자리인 우리 조국 강토가 참혹한 전쟁터로 될 수 있다”고 위협

● 北, 핵보유국간 핵군축 주장(2/2, 조선중앙방송)

-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2일 북미 간 “적대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 조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면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총참모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 형식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가 북한의 핵 폐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한반도 핵 검증을 위해서는 남한도 검증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
- 그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남조선에서의 핵무기 생산과 반입, 그 배비와 이용,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서 우리에게 가해지는 모든 핵위협에 대한 근원적인 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조선반도 전역에 대한 비핵화”라며 “미국 핵위협을 청산하기 위한 남핵 폐기가 없는 한 우리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북핵 폐기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 조명록 5개월 만에 공식 등장(2/2, 연합)

- 지병으로 활동이 뜸한 편인 북한의 조명록(81) 군 총정치국장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약 5개월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냄.
- 그는 1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후보로 추대하기 위해 열린 ‘제333호 선거구’ 선거자대회에 김격식 군 총참모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정태근 군 총정치국 선전담당 부국장 등 고위 군간부들과 함께 참석.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선거는 3월 8일 실시
- 북한은 그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2007년 10월 인민

무력부 부부장이던 김정각 대장을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에 임명해 그의 업무를 대행토록 했었음.

다. 경제 관련

● 北, 2010년 세계박람회 참가준비 진행(2/6, 조선신보)

- 북한이 세계박람회로는 처음으로 참가하는 2010년 중국 상하이(上海) 세계 박람회(2010.5.1~10.31)를 앞두고 참가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6일 보도
- 북한의 박람회 사업을 주관하는 조선상업회의소는 2008년 11월 전람회장의 1천㎡ 규모 전람관을 임대하는 등 상하이박람회 조직위원회와 공식 참가계약을 맺었다고 신문은 보도. 상업회의소는 또 올해 초부터 전시방(전시장) 설계, '민족의 날' 행사 준비 등 실무 작업을 유관기관과 연계해 본격 추진
- 북한은 '도시,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하자'는 슬로건을 내건 상하이 세계박람회에 '대동강 문화에 토대하여 번영하는 평양'이라는 주제로 전람관을 꾸릴 예정. 전람관에서는 한반도의 첫 국가인 고조선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 옛 도시의 하나인 평양"이 현재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게 된다고 신문은 소개
- ※ 북한은 2007년 11월 세계박람회기구(BIE)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2010년 상하이 박람회를 통해 처음으로 세계박람회에 참가

● 美 대북지원식량 7차분 남포항 도착(2/4, 미국의 소리방송)

- 미국이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 50만t 중 7차 선적분 4천940t이 최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4일 비정부기구(NGO)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
- 이번 선적분은 당초 1월 19일 도착 예정이었지만 악천후로 중국 랴오닝(遼寧)성의 다렌(大連) 항에서 대기 중이었음. 이번 식량은 머시코, 월드비전,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5개 미국 NGO가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25개 군에서 분배할 예정임.

● 北 이동전화 가입자, 6천 명 획기적(2/2, NHK)

- 2008년 12월 북한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한 이집트 ‘오라스콤 텔레콤’의 사위라스 회장은 2일 NHK와의 인터뷰에서 “가입자는 6천 명 정도가 됐다”며 “이는 획기적인 것”이라고 언급, NHK는 3일 사위라스 회장과 그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그의 이런 발언은 북한 정권이 휴대전화 이용을 특권 계층만이 아니라 일반에도 개방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도
- 사위라스 회장은 또 “북한이 외국 기업에 휴대전화 사업을 개방한 것은 경제력을 강화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며 북한 정권이 통신 분야의 개발을 계기로 외자를 추가로 도입해 경제를 부양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

● 北, 김정일생일 공급품에 땅콩사탕 추가(2/3, 조선신보)

- 북한 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16)과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4.15)에 어린이를 비롯해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당과류에 올해부터 땅콩사탕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조선신보가 3일 보도
- 조선신보는 이를 위해 지난해 당과류를 비롯한 밀가루 가공식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평양남새가공공장과 모란식료공장, 평천식료공장, 선교식료공장에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한 국가적 조치로” 땅콩사탕 생산 공정이 새로 마련됐다고 설명

● 北쌀값 최근 크게 하락(2/2, 열린북한통신)

- 북한의 쌀 가격이 최근 대폭 하락했다고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대표 하태경)이 만드는 온라인 북한 소식지 ‘열린북한통신’이 2일 주장
- 소식지는 이날 “평양시와 평성, 남포, 신의주, 혜산, 청진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의 식량 가격이 지난달 중순 이후 평균 300~400원 하락했다”며 “그러나 이는 명목가격이며, 최근 중국 위안화 대비 북한의 환율이 10~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실질 하락폭은 더욱 크다”고 전언
- 1월말 현재 각지의 쌀 1kg 가격은 평양 1천700~1천800원(이전 가격 2천~2천100원), 평성, 순천 1천700원(2천100원), 신의주 1천660원(2천원), 혜산 1천800원(11월말 2천500원), 청진 1천800~1천900원(1월초 2천~2천500원)대임.

- 소식지는 가격 하락의 직접적 원인은 협동농장 농민들이 지난해 농사에 대한 분배를 1월에 받은 것을 최근 시장에 내다 팔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매년 1, 2월엔 쌀값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
- 소식지는 한편 “북한 내각은 지난해 12월말께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가능한 한 식량으로 전환해 반입하라는 내부 지시를 내렸다”면서 북한이 이렇게 구입한 중국 쌀 500t을 지난달 8~9일께 신의주를 통해 처음 반입한 “이후 계속 외화를 쌀로 전환해 들여오고 있다”고 주장

라. 군사 관련

● 대포동2호, 무수단리로 이동(2/3, 연합)

- 북한의 장거리 대포동2호(사정거리 6700km) 미사일 발사준비 움직임과 관련, 북한은 당초 알려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시험장이 아니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대포동 시험장으로 미사일을 옮긴 것으로 알려짐.
- 정부 소식통은 3일 “미국의 정찰위성이 최근 평양 인근의 미사일 공장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의 로켓들로 추정되는 대형 원통형 물체들을 실은 열차가 이동한 장면을 포착했다”고 소개. 이 소식통은 “이 열차는 동창리 시험장이 아니라 대포동 시험장으로 향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7,8년 전부터 공사를 해온 동창리 시험장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 국내외 언론은 이날 북한이 대포동2호 미사일을 동창리 시험장에서 발사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

마. 사회·문화 관련

● 정월대보름, 평양시내 천체망원경 설치(2/8, 조선중앙TV)

- 정월대보름인 9일 북한의 평양시민들이 보름달을 잘 볼 수 있도록 평양시내 여러 곳에 천체망원경이 설치된다고 조선중앙TV가 8일 보도
- 조선중앙TV는 “올해의 정월대보름달은 지난 여러 해들에 비해 특별히 밝고 큰 보름달”이라며 “명절을 즐기는 수도의 근로자들이 쟁반같이 둥근달을 보다 선명하게 잘 보도록 하기 위해서 평양천문대와 대동강해맞이터, 모란봉을 비롯한 수도의 여러 곳에 천체망원경을 설치하게 된다”고 소개

※ 북한은 민속명절 가운데 설과 추석 외에도 2003년부터 정월대보름을 공휴일로 지정, 하루를 쉽.

● 北, 100만 명 치료 목표 구강재료 국산화(2/8, 조선신보)

- 북한은 보건부문에서 해마다 주민 100만 명의 치아를 치료할 수 있도록 구강재료의 국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8일 보도
- 송정영(65) 중앙구강병원 구강재료연구소장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외국산 구강재료에 의존해서는 한해 100만 명에 대한 봉사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한다”며 “자체의 기술과 원료에 기초해 구강재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벌여 현재 80% 수준에서 목표가 실현되고 있다”고 언급. 송 소장은 연구소가 아직 수입에 의존하는 20%의 구강재료들도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며, 2010년부터는 임상부문에 도입할 수 있다고 소개

● 백두산상 체육대회 개막(2/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7회 생일(2.16)을 맞아 열리는 ‘백두산상’ 체육경기 대회가 6일 평양 청춘거리 농구경기장에서 김종린 당 중앙위 비서,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평양과 삼지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스피드 스케이팅 등 9개 종목이 치러짐.

● 北, 월북 만담가 申不出 만담집 출판(2/6, 조선신보)

- 북한이 일제시대 최고의 만담가 신불출(申不出)의 만담을 모은 ‘신불출 만담집’을 출판했다고 조선신보가 6일 보도
- 신문은 만담집 출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김 위원장이 1995년 11월 11일 국립희극단의 공연을 관람하면서 신불출에 대해 회고한 바 있으며, 그때 “새로운 신불출을 많이 찾아 키울 데 대해” 말했다고 보도
- 신문은 또 고 김일성 주석도 해방 후 평양에 신불출 만담연구소를 만들어 신씨의 창작을 장려했고 “그의 창작과 무대 활동은 전후(6.25전쟁) 시기에도 중단함이 없이 계속되었다”며 김일성-김정일의 ‘각별한 관심’을 선전,

만담집의 저자인 송영훈(70) 평양연극영화대학 교수는 “(신불출을) 후대들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할 의무감과 책임감”에서 책을 집필했다고 언급

※ 신불출은 광복 후 조선영화동맹에 참여해 좌익 활동을 벌이다가 1947년 월북한 뒤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을 지내며 공로배우 칭호를 받는 등 정치적으로 성공했지만 1960년대 초 월북 문학가 한설야(韓雪野)가 '종파주의자', '북고주의자' 등의 죄목으로 숙청당할 때 함께 숙청된 것으로 알려짐.

- 北, 최우수 탁구선수에 김혁봉·김정 선정(2/6, 조선신보)
 - 북한 체육지도위원회는 2008년 최우수 탁구 선수로 4.25체육단 소속의 김혁봉(남)과 김정(여)을 선정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北, 바둑천재에 조대원을 소개(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첫 지능올림픽의 우승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바둑계의 대표 주자인 조대원(20) 선수를 소개. 그는 2008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벌어진 제1회 월드마인드스포츠대회 바둑 아마추어 개인전에서 한국의 함영우 아마 7단을 꺾고 우승
- 北, 최우수권투선수로 김성국, 김향옥 선정(2/4, 조선신보)
 - 북한 체육지도위원회는 2008년 최우수 권투 선수로 평양시체육단의 김성국(남), 4.25체육단의 김향옥(여)을 선정했다고 조선신보가 4일 보도
- 北, 평양 가로등 현대화 한창(2/3, 조선신보)
 - 북한이 시내 건물을 개보수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등 '평양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평양에서 가로등 현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3일 소개
 - 신문은 북한 내각 도시경영성이 올해 평양시와 각 도 소재지의 하부구조 보수정비, 살림집 및 공공건물 개건보수, 수백만 그루의 나무심기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평양에서는 가로등 현대화를 연간사업으로 설정해 추진한다고 보도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정부, 北미사용연료봉 구매에 신중(2/5, 연합뉴스)

- 정부가 북한 핵시설 불능화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미사용연료봉 구매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정부는 1월 북한 영변의 관련시설에 대한 실사결과 남측에서도 가공을 거쳐 이 연료봉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북측이 국제 천연우라늄시세를 크게 상회하는 천문학적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임.
- 외교 소식통은 5일 “북한이 실사단 방북기간 미사용연료봉의 가격을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실사단은 가격협상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연료봉의 상태 등을 보러 간 것이기 때문에 가격과 관련한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언급
- 이 소식통은 북한이 제시한 가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우라늄을 연료봉으로 가공한 비용까지 미사용연료봉 가격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짐. 하지만 우리측은 북한의 미사용연료봉을 남측의 원자력발전소 원료 등으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비용을 들여 연료봉을 다시 우라늄으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만 따진다면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해야 한다는 생각임.
- 북한이 보유한 미사용연료봉은 1만4천800여 개로, 5MW 원자로용 2천400여 개, 50MW 원자로용 1만2천400여 개에 이룸. 이는 우라늄으로는 101.9t에 해당되며 현 국제시세로 1천100만 달러 안팎임.

● 6자 안보실무회의 19-20일 러시아 개최(2/2, 외교통상부)

- 북핵 6자회담 산하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가 19~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다고 외교통상부가 2일 발표. 이번 실무회의는 2007년 7월에 2차 회의가 열린 이후 1년6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러시아가 초안을 마련해 회담시킨 ‘동북아평화안보 기본원칙’의 채택이 추진됨.

나. 북·미 관계

● 北관리, 美단체 초청 2월 말 방미(2/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정부 관리들이 미국 대북지원단체의 초청으로 2월 말 미국의 동남부와 서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
- 방송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조(북)·미 민간교류협회(KAPES)에 소속한 북한 정부관리 4명이 5개 미국 비정부 구호 단체들의 초청으로 2월 말에 미국 동남부와 서부를 방문 한다"고 밝힘. 북한 관리들을 초청한 단체는 현재 대북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머시코, 월드비전,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사마리탄즈 퍼스, '조선의 기독교 친구들' 등임.
- 소식통은 "북한 관리들이 2월 말 8일간 미국 단체들의 본부가 있는 서부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와 워싱턴주의 페더럴, 남부 조지아주의 아틀랜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분, 뉴욕 등을 방문 한다"고 언급. 그는 "북한 관리들이 이 기간에 미국의 식량 지원이 합의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지원 기한이 끝나는 올해 6월 이후에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식량을 계속 지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언

● CIA국장, 北, 2006년 핵무기 폭발실험(2/6, 연합)

- 리언 파네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가 5일 북한이 지난 2006년 '핵무기(nuclear weapon)를 폭발시켰다'며 북한의 핵무기 폭발실험을 공식 인정
- 미국 정부는 그동안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은 핵무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핵장치(nuclear device) 폭발실험'으로 규정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 왔음.
- 그러나 최근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와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JFC)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보유국'으로 언급하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에서 북한이 이미 여러 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음.
- 파네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정보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서면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2006년 핵무기를 폭발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언

급. 2006년 10월 북한이 실험한 것이 단순한 ‘핵장치’가 아니라 ‘핵무기(nuclear weapon)’임을 명확히 하였음. 그러면서 파네타 지명자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능력을 일단, 혹은 영원히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언급

- 파네타 지명자는 북한을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과 함께 미국의 철저한 정보 활동이 필요한 ‘중요한 지역’으로 꼽음.

● **김정일, 오바마 정부 향후태도 지켜보겠다(2/4, 교도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월 23일 방북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당대외연락 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정부와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교도 통신이 4일 보도

-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왕 부장과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이 화제로 오르자 미-북한 관계를 염두에 둔 것처럼 “지켜보고 싶다”라고 언급. 그러나 김 위원장은 오바마 정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고 전언

● **오바마, 북핵, 검증 가능한 제거를(2/3, 백악관 대변인)**

- 버락 오바마(Obama) 미국 대통령은 3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 핵 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제거’를 실현하기 위해 6자 회담과 (한미) 동맹관계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로버트 기브스(Gibbs) 미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

- 오바마 대통령은 또 “최근 일련의 상황을 살펴볼 때 6자 간 공조를 철저히 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보여준 통찰력이 소중한 교훈이 됐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 새 행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언급

● **美, 미사일 관련 3개 北기업 제재발표(2/3, 미 연방관보)**

- 미국 정부는 3일 미사일 및 관련기술 거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활동에 개입해 온 북한의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등 3개 회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부과기로 했다고 밝힘. 3일 미 연방관보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

사일 및 관련 기술 거래에 개입해 온 것을 이유로 무기수출금지법 등에 근거, 북한의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모공(Mokong)무역회사, ‘시노-키(Sino-Ki)’ 등 3개회사와 중국의 2개회사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힘.

- 국무부는 또 WMD 확산에 개입한 일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KOMID, 목송(Moksong)무역회사, ‘시노-키’ 등 3개 회사와 이란의 사히드 바케리 인터스트리얼 그룹(SBIG)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공시
- 미사일 관련 제재대상인 북한의 모공(Mokong)무역회사와, 확산 관련 제재대상인 ‘목송(Moksong) 무역회사’는 같은 기업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제재대상 기업들은 물론 자회사 및 이들을 인수하는 회사들은 향후 2년간 미국 정부기관의 각종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은 종료되며, 이들 기업들의 제품·기술·서비스의 대미수출은 전면 금지됨.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제재대상기업이라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어 대외활동에 적잖은 제약을 받게 됨.

● 美, 北미사일실험 도움 안되는 도발(2/3, 미국무부, 미 국방부)

-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3일 북한이 최근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된 것과 관련, 유엔안전보장회의사의회의 결의안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시
- 특히 국무부는 정레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움이 안 되며 솔직히 도발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힘.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 움직임에 대해 “정보사항에 논평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활동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그 지역(동북아)에 우려가 되고 있다”고 언급
- 그는 또 유엔안전보장회의의 결의안 1718호에 의해 북한의 미사일 관련 활동은 금지돼 있다고 강조
- 이와 함께 국방부도 정레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의한 미사일 실험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국무부와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힘. 하지만, 백악관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실험 움직임에 대해 특별한 논평을 하지 않음.

- 北, 美에 대화나 전쟁이나 밝혀라(2/3,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 민주조선은 3일 ‘대화과 전쟁은 양립될 수 없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을 통해 그동안 북미 간 대화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근본원인은 “속에 칼을 품고 우리(북)를 해칠 기회만 노리는 미국 때문”이라며 “대화과 전쟁” 가운데 택일할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다. 북·중 관계

- 中, ‘대북 무상원조’ 공식 확인(2/5, 연합)
 - 중국은 자국이 북한에 무상원조를 제공키로 한 사실을 5일 공식 확인.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수년째 중국 정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북 무상원조를 계속해왔다”면서 “이는 북한 인민들이 경제난을 극복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이뤄져 온 것”이라고 언급
 - 장 대변인은 그러나 무상원조의 성격이나 품목, 규모, 제공 시기 등을 묻는 질문에는 “추가로 제공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중국 정부가 북한에 무상원조를 제공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보도

- 中, 대북 무상원조 제공 결정(2/4, 조선중앙통신)
 - 중국 정부가 북한에 무상 원조를 제공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4일 보도. 통신은 이날 “최근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 조선(북한)에 무상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며 “중국 정부의 무상원조 제공은 강성대국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고무로 될 것”이라고 보도. 그러나 통신은 중국의 무상 원조 품목이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음.

라. 북·러 관계

- 中왕자루이, 北지지, 영원히 잊지 않을 것(2/7, 평양방송)
 - 중국 공산당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은 중국이 도움이 필요할 때마

다 북한이 보내준 지지와 도움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평양방송이 7일 보도

- 왕 대외연락부장은 지난 5일 설에 즈음해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가진 연회에 참석, “중국인민이 제일 중시하고 관심하는 문제에서 중국의 방조(도움)와 지지가 제일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들의 힘 있는 목소리와 따뜻한 도움의 손길, 역센 힘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보도

마. 북·일 관계

● 北, 日 대북 적대정책 극한 도달(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군국주의 독을 내뿜다가는 제명을 못산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일본에선 최근 고객이 돈을 예금할 때 북한에서 받은 돈인지를 은행 측이 물어본다며 일본의 “대북 적대 정책이 극한점에 이르고 있다”고 비난

바. 기타 외교 관계

● 최태복, 英의회대표단 면담(2/5, 조선중앙통신)

-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 중인 상원의원 데이비드 알톤 영국-북한 ‘제 정당 의원단’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영국 의회대표단을 만나 환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英 의회대표단 회담(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과 방북 중인 영국 국회대표단 간 회담이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회담에는 북한측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리종혁 북-영친선의원단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영국측에서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알톤 영국-북한 ‘제 정당 의원단’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대표단과 피터 휴스 북한주재 영국대사가 참가

- 회담에서는 “두 나라 의회들 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해서와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통신은 보도, 영국 국회대표단은 3일 방북

● **인도 공화국의 날(1.26) 기념연회 개최(2/4, 조선중앙통신)**

- ‘인도 공화국의 날’(1.26)에 즈음해 질레 싱 북한주재 인도대사가 4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연회에는 리룡남 무역상, 조선-인디아친선협회 위원장인 김병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외무성 부상, 전영진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김창광 조선중앙통신 부사장과 주북 각국 외교대표, 국제기구 대표들이 초대

● **북한과 기니의 외교관계 수립 40돌 기념 축전(2/4, 조선중앙통신)**

- 박의춘 외무상은 북한과 기니의 외교관계 수립 40돌을 맞아 1월 28일 파스토르 미차 온도 빌리 기니 외무·국제협조 및 프랑스어 사용국 장관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

● **유럽의회, 北에 남북관계 개선 주문(2/4, 자유아시아방송)**

- 글린 포드 유럽의회 의원은 최근 영국을 방문한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만나 남북관계 개선을 주문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

- 북한 대표단을 초청한 포드 의원은 이 방송과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조평통 성명 등과 관련해 북한 대표단에 남북 간 긴장상황을 해소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답변

- 그는 또 오는 3월 유럽의회 의원 3-6명으로 대표단을 구성,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번 방북을 통해 남북 간 긴장 해소와 북핵 6자회담에 북한이 적극 임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유럽과 북한 간의 정치·사회적 교류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포드 의원은 지난 8년간 유럽연합 국가들이 북한에 제공한 인도적 지원과 경수로 건설 지원, 소규모 개발 지원이 5억 유로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北, EU와 대화 재개 희망(2/3, 자유아시아방송)
 - 1월 27일 영국을 방문한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유럽연합(EU)과 관계 개선을 희망하면서 조력발전 기술의 전수 등을 EU에 요청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
 - RFA에 따르면 박경선 당 중앙위 부부장을 단장으로 과학자도 포함된 노동당 대표단은 지난주 영국에 도착해 영국 외무부 관리와 '북한통'인 글린 포드 의원 등 유럽의회 의원들을 면담, 2005년 단절된 북한과 EU간 대화 재개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측은 2005년 EU가 대북 인권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한 이후 대화가 단절됐음.
 - 북한 대표단은 또 EU에 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전을 요청하면서, 북한 해상의 간만의 차가 큰 점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의 전수를 요청했다고 포드 의원실 관계자는 전언

- 北김정일, 반기문 총장에 연하장(2/3,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 각국 지도자들에게 연하장을 보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이 3일 보도
 - 북한 매체들은 그러나 반 총장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채 '유엔 사무총장'이라고만 밝혔고, 그 순서도 아프리카동맹위원회 위원장 등 단체장이나 모스크바 시장 등과 함께 묶어 처리

3) 대남정세

- 통일부, 北화폐 살포 수사의뢰 통보(2/4, 연합)
 - 통일부가 4일 북한 돈 5천원 권을 대북 전단에 동봉해 살포할 계획인 최성용 남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에게 살포를 강행할 경우 남북교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을 통보

● 통일부, 남북언론단체 기사교류사업 불허(2/4, 연합)

- 4일 통일부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언론본부)'에 따르면 언론본부는 6.15 북측위 언론분과위원회와의 기사교류 사업을 위해 통일부에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 신청을 했지만 지난달 30일 불허 통보를 받음.
- 정부 당국은 불허 사유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 정부 당국자는 불허 배경에 언급, "순수한 의미의 기사교류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남북 단체들이 추진하는 기사교류 방식으로 미뤄 기사교류가 북한이 대남 메시지를 전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언급
- 6.15 남측위 언론본부는 2008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언론인 대표자회의에서 언론본부 홈페이지인 '통일언론'과 북측 '우리민족끼리'의 인터넷 매체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기사·논평·사진·영상 등을 교환하기로 합의

● 민간단체들, 北민화협과 지원사업 협의(2/2, 연합)

- 민간 대북 지원 단체 56개의 연합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회장 정정섭)'는 1,2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의 민화협 관계자들과 만나, 올해 대북 농업분야 협력사업과 식량지원 문제를 논의
- 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북민협의 총무인 권용찬 국제기아대책기구 사무총장은 3일 북민협과 민화협이 올해 대북지원 사업에 관한 정책조정을 강화하고 지난해 대북 지원이 중단됐던 못자리용 비닐박막의 지원을 재개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힘.

● 北체육후원기금 "월드컵 최종예선 후원" 호소(2/3, 조선신보)

- 남·북한 축구 월드컵 대표팀이 4월 1일 서울에서 맞붙을 예정인 가운데 해외동포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조선체육후원기금'이 월드컵 등 올해 국제경기에 출전할 북한 팀에 대한 후원과 관심을 호소
- 조선신보는 3일 이 기금이 "자기 나라(북한) 선수들이 올해의 국제경기들에서 더 많은 메달을 획득할 것을 기대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 가운데 "최대의 관심사는 역시 2010년 남아프리카월드컵 본

선 참가 자격을 위한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경기”라고 지적. 조선신보는 “체육기금은 선수들에게 축구화, 경기복, 훈련복을 비롯한 체육기자재들과 피로회복에 필요한 영양식품, 의약품을 제공하는 협조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며 “여기에 국내외의 여러 단체, 인사들이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언

02.09-02.15

2월
2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 다. 북·러 관계
- 라. 북·일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원산시 공장 시찰(2/1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원산에 있는 원산농업대학을 현지 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 김 위원장은 대학 시설을 돌아보고 “(북한에서) 처음 창립된 인민의 첫 농업기술대학”으로 지난해 개교 60돌을 맞은 원산농대가 그동안 수많은 유능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양성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들을 널리 개척해 전반적 농업과학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언급
- 시찰에는 리철봉 조선노동당 강원도위원회 책임비서, 박남기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박명철 국방위원회 참사가 수행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 위원장이 원산시의 유리병공장, 구두공장, 화학공장 등을 현지도 했다고 보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또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과 함경남도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 농기계들을 보내 2월 11일 전달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3일 보도

● 美국가정보국장, 김정일 건강 상당 회복(2/12,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8년 8월 뇌졸중을 앓았지만 지금은 상당정도 건강을 회복, 중요한 사항은 김 위원장이 직접 결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테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12일 밝힘.
-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 내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블레어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의 국가위협평가 청문회에 출석, 서면보고를 통해 “김 위원장은 작년 8월 뇌졸중을 앓아 수 주 동안 통치불능상태였지만 최근의 공개 활동은 그의 건강이 상당정도 개선됐음을 시사한다”고 언급
- 블레어 국장은 또 “우리는 김 위원장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국가통제기구들은 여전히 강력하고, 북한 인권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분석하고 이어 북한의 경제상황과 관련, “열악한 경제상황이 북한의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북한체제는 공개 발표를 통해 적절한 식량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

● **김정일, 새 軍지도부와 포훈련 참관(2/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영춘 신임 인민무력부장과 리영호 총참모장을 대동하고 포병사령부 산하 제681군부대의 포사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리정부 포병사령관으로부터 부대 현황을 보고받은 뒤 전망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지켜봄. 김 위원장은 “인민군은 수령결사옹위 정신, 총폭탄 정신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한 사상의 강군으로 자라났을 뿐 아니라 우리를 침략하는 적들을 단매에 요절낼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강위력한 혁명무력으로 양성 강화됐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
- 군부대 시찰에는 김정각 총정치국 1부총국장, 현철해 김명국 리명수 대장 등 군 고위간부들과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등이 동행

● **김정일, 농장에 농기계 전달(2/11,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8년 시찰했던 “평안북도의 룡천군 신암협동농장과 태천군 은흥협동 농장에 농기계를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1일 보도
- 방송은 김 위원장이 보낸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 전달식이 10일 각 농장에서 진행됐으며, 김 위원장의 농기계 지원은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여 알곡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 것”을 바라는 뜻이라는 농장 관계자들의 반응을 보도

● **장성택이 정운 천거, 후계체제 주도(2/15,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월 8일 장남인 정남 대신 3남 정운을 후계자로 지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위원장의 3남 간택엔 정작 정남의 후견인 역할을 해온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건의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짐.
- 장성택 부장은 작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이후 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북한 국정을 운영하면서 3남 후계 구축을 추진했고, 여기에 작년 초부터 3남 후계 물밑작업을 벌여온 김 위원장의 네 번째 부인 김옥이 가세해 김 위원장의 결심을 이끌어냈다는 것임.

- 북수의 정보소식통은 15일 “장 부장이 지난해 중반 김 위원장의 와병설 이후 남한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북한 조기붕괴’론 등이 확산되는 상황 등을 이유로 내세워 김정일 위원장에게 정운을 후계자로 내정할 것을 적극 건의해 승인받은 것으로 안다”고 언급
- 장 부장이 자신과 각별한 관계인 장남 대신 3남을 천거한 것은 3남에 대한 김 위원장의 애정과 자신의 정치적 미래 등을 두루 감안한 것으로 분석됨. 후계자 지명 과정 뿐 아니라 최근 북한군 최고위층 인사에서 ‘장성택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권력기구 전면에 부상한 점 등으로 미뤄 장 부장이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구도 구축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소식통들은 “일각에서는 후계문제에서나 실권 행사 측면에서 장성택 부장과 리제강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동급으로 보기도 하는데 현재 두 사람의 지위와 영향력은 비교가 안된다”며 “현재 리제강을 포함한 모든 북한 간부들이 장 부장의 지휘에 전적으로 복종하며 따르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

● 北, 3남 김정운을 ‘김 대장’으로 호칭(2/15,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1월 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3남 후계 ‘교시’를 받고 각 도당에 하달하면서 3남 이름(김정운)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은 채 ‘김 대장’으로만 지칭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도 당 급 일부에서도 김 위원장의 아들 중 한명이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다고 정보 소식통들이 15일 전언
- 북한에서 ‘김 대장’이라는 호칭은 당초 항일 빨치산 활동 때의 김일성 주석을 가리키는 말로, 북한이 ‘혁명시인’이라고 내세우는 조기천이 광복 직후 발표한 장편서사시 ‘백두산’과 이 시를 토대로 만든 영화 ‘백두산’ 등에서 김 주석을 ‘김 대장’이라고 지칭했었음. 김정운은 생모인 고영희씨 생전엔 ‘셋별장군’으로 불렸음.
- 한편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 ‘교시’를 내린 날인 1월 8일은 정운의 생일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택일 배경이 되지 않았느냐는 분석도 제기됨. 정운의 생년월일에 대해선 1983년 1월 8일과 1984년 9월 25일 설이 있었으나 정보 소식통들은 1984년 1월 8일이라고 밝힘.

● 김정남, 14일 베이징 경유 귀국(2/15,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38)이 14일 베이징의 서우두(首都) 공항을 통해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으로 귀국했다고 대북 소식통들이 15일 보도

나. 정치 관련

● 김영남, 남한 반통일 세력과 투쟁하라(2/15,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7회 생일(2.16) '경축 보고'에서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 채 "남조선의 반통일 호전세력에게 무서운 철추를 내리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을 선동
- 김 상임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2.16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보고자로 나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북남관계를 파국에 처하게 하고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고 있는 남조선의 반통일 호전세력"이라고 남한 정부를 맹비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북한의 명목상 국가원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 같은 최고위층이 남한 정부를 이렇게 대놓고 비난하며 '투쟁'을 선동하는 공개연설을 한 것은 흔치 않은 일임. 그러나 김영남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선 종래와 달리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은 채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 밑에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만 언급
 - ※ 2008년 보고는 남북관계에서 남한 정부에 대한 비난 없이 "6·15공동선언이 밝혀준 길을 따라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높이 10·4선언을 이행하며"라고 두 선언의 이행의지만 강조했었음.
-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보고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으로 "숭고한 혁명적 도덕의리로 수령 영생 위업을 훌륭히 실현"하고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우리 식의 국가영도체계를 확립"한 점도 언급. 또한 김 위원장의 지난해 12월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현지지도에 대해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준 것으로 "당과 혁명 발전의 역사적인 전환기를 안아온 특기할 사변"이라고 주장

- **조선직업총동맹, 용산참사 비난(2/14, 조선직업총동맹 대변인 담화; 민주조선)**
 -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직총)은 14일 용산참사에 대해 “인권말살 행위”라고 비난하며 남한 주민들의 “대중적 투쟁”을 선동
 - 직총 대변인은 담화에서 이번 참사는 “인권 유린지, 반민주적 사회인 남조선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비극”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전체 노동계급은 “남조선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계 층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한다”고 주장
 - 또 민주조선도 14일 ‘수사결과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경찰의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하는 철거민들과 인민들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주장

- **北, 해안포 훈련횟수 증가(2/13, 연합)**
 - 북한이 해주와 웅진반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해안포의 훈련 횟수를 늘린 것으로 알려짐. 군의 한 관계자는 13일 “최근 북측 해안가에 엄폐된 해안포의 일부가 진지 밖으로 노출된 모습이 자주 식별되고 있다”면서 “이는 도발을 위한 준비차원이 아니라 평시 교육훈련 차원의 전투준비태세 유지 차원으로 보인다”고 밝힘.
 - 그는 “북한이 작년 상반기부터 NLL(북방한계선) 인근 도서에 해안포를 30%가량 늘렸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전년에 대비해 해안포 전력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소개
 - 북한은 사곶, 해주, 웅진반도 등 서해안 주요 기지에 사거리 20km에 달하는 76mm, 100mm 해안포를 다수 배치해 놓고 있으며 최근에는 포신의 길이를 늘려 사거리가 30~40km로 확장된 해안포도 갖다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해주 인근에만 100여문의 해안포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은 또 사거리가 83~95km에 달하는 샘릿, 실크웬 지대함(地對艦) 미사일도 NLL 인근 해안에 배치해 놓고 있음.

- **北, 장성택 라인 권력 전면 부상(2/13, 연합)**
 - 2008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 발생 후 그를 대신해 북한 국정을 운영해온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측근들이 빠르게 대거 북한 권력

전면에 부상. 대표적 인물이 지난 11일 각각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에 임명된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영호 전 평양방어사령관, 그리고 박명철 국방위원회 참사임.

- 특히 10여 년간 체육부 장관격인 조선체육지도위원장을 지내다 수년전 철직 당했던 박명철 참사의 재등장은 북한 당국이 공식 발표한 것이 아님.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언론매체들이 12일 밤과 13일 새벽에 걸쳐 보도한 김정일 위원장의 원산 방문 수행원 명단을 통해 포착됨. 복수의 정보 소식통은 북한 매체 보도에서 ‘국방위 참사’로 첫 호칭된 박명철이 조선체육지도위원장을 지낸 박명철이라고 확인하고 “박명철은 지방의 어느 한 군에서 인민위원장(군수)으로 일하다가 최근 국방위 참사로 전격 기용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

● 北, 안보리 제재권 배격 주장(2/13,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13일 ‘국제분쟁들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국제분쟁에서 ‘당사자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서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분쟁의 악화만을 초래하는 제재와 무력사용과 같은 강권적인 북한 노동당 기관지조치들은 철저히 배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안보리 결의들이 “총회의 승인 하에서만” 효력 갖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 노동신문은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 분쟁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유엔의 책임적인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어떤 특정한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관계 실현을 합법화해주는 도구로 이용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

● 조평통 성명은 北당국 공식 대변(2/13, 노동신문)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남북관계 문제에서 북한을 “공식 대변하는 기관”이고 그 성명은 북한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한 법적 성격의 문건”이므로 최근 조평통의 ‘무효화’ 성명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노동신문이 13일 주장
- 노동신문은 ‘성명의 무게를 결코 약화시킬 수 없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조평통 성명에 대해 남한 정부가 ‘대북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메시

지'라거나 '남북기본합의서는 성명 한 장으로 폐기되지 않는다'는 등의 반응을 보인 것을 거론, 이같이 강조

- 노동신문은 조평통 성명은 “우리 공화국(북한)의 권위 있는 기관의 법적 선언”이므로 “누구도 그에 대해 흥정할 수 없다”며 “법적 성격의 문건은 한번 채택되면 그만이다. 거기에 흐지부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남조선 당국도 잘 알 것”이라고 덧붙임. 신문은 남한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성명의 무게를 약화시켜 보려는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하고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뒤집어엎으려는 역도 패당에 의하여 지난 시기 북남 사이에 채택된 모든 합의들이 이미 사문화, 백지화된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

● 北, 변영위해 혁명전통 계승 강조(2/10,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남 정운을 후계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신문이 10일,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혁명적 대고조” 투쟁에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전통’의 ‘대를 이은 계승’을 여러 차례 강조
-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혁명적 대고조의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우리 조국은 끝없이 강성변영할 것이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북한은 “혁명적 대고조의 위대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긍지 높은 나라”라며 “나라와 민족의 강성변영은 이러한 고조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이룩된다”고 주장
- 신문은 특히 고 김일성 주석이 1956년 12월 시작한 천리마운동을 “혁명적 대고조의 역사를 창조”한 것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4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지폈다며 “백두 밀립에서 창조된 일심단결의 전통을 대를 이어 곳곳이 이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 속에서 이 땅 위에는 영원히 혁명적 대고조의 역사가 흐를 것”이라고 강조

● 김정일, 軍수뇌부 전격교체(2/1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무력부장에 김영춘(73·차수) 국방위 부위원장을, 총참모장에 리영호(대장) 평양방어사령관을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
- 김영춘 차수는 1995~2007년 인민군 총참모장을 지내다가 북한 최고 권력 기구인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옮겼으며 2006년 핵 실험에도 깊숙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육군 일선 군단장 출신이기 때문에 군내 입지도 더욱 탄탄하다는 분석임.

- 리영호 대장은 북한 내 쿠데타 등이 발생했을 때 김 위원장의 명령을 받아 즉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평양방어사령관을 지냈음. 2002년과 2007년 군 창건 열병식 때 열병지휘관을 맡는 등 북한군 내 ‘소장파’의 선두주자로 꼽힘.

● 北, 핵개발은 美핵위협 때문(2/10,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10일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 반도와 나아가서 세계의 비핵화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핵위협 제거’를 요구
- 신문은 “솔한 자금과 노력,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핵개발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미국이 우리를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명하고 핵전쟁 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가해오고 있는 조건에서 부득이하게 취한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
- 신문은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신뢰할만한 대체 핵탄두(RRW) 프로그램’ 발언을 거론, “지금 미국의 군부 호전세력들이 핵무기를 보다 현대화하려고 획책”하고 있으며 “미국이 핵 만능론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

● 北, 아파치헬기 훈련 도발행위 비난(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사태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주한미군 제2사단 제2전투항공여단의 아파치 헬기를 동원한 사격훈련에 대해 “도발행위”라며 “전쟁접경으로 치닫는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극단으로 몰아가는 범죄행위로서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 스위스서 재생에너지 기술교육 받기로(2/1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대표단이 오는 3월 스위스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기술교육을 받게 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

- 북한에 재생에너지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아가페 인터내셔널(Agape International) 관계자는 이날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 대표단이 3월에 스위스를 방문해 연수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힘. 그는 “북한 대표단이 이번 연수 과정에서 풍력 발전기를 직접 설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소개
- 아가페 인터내셔널은 북한의 농업 개발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 ‘캠퍼스 푸어 크리스투스’(Campus fur Chritus)와 함께 북한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돕고 있으며 지난 2007년부터 북한의 황해북도 황주군에 300W와 2kW 규모의 풍력 발전기를 1대씩 설치하고 이에 관한 선진 기술을 전수
- 최근 영국을 방문한 북한 노동당 대표단도 유럽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조력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기술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北, 농사철 앞두고 ‘물잡이 투쟁’ 전개(2/11, 평양방송)

- 북한에서 봄 농사철을 앞두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물잡이(물 가두기)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양방송이 11일 보도. 방송에 따르면 각 지역 물길관리소, 관개관리소와 농촌에서는 저수지와 보조 수원마다 “올해 농사에서 쓸 물을 잡기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 중임.

● 2009년 첫 외국인 관광단 14일 방북(2/11,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에서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고려여행사가 모집한 외국인 관광단이 올해 처음으로 14일 북한을 방문하는 등 외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
-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단은 영국과 호주,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인 등 15명으로 구성되었음.
- 고려여행사는 북한의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이 예년처럼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이 기간을 겨냥해 미국인을 대상으로 북한 관광 홍보를 시작했다고 RFA는 보도

● 北휴대전화끼리 통화 불가(2/9, 열린북한통신)

- 북한에서 2008년 12월 중순 이집트 오라스콤사의 휴대전화 서비스가 시작

됐지만 지난 1일 현재 아직 평양에 국한돼 있으며, 도청이 어려운 휴대전화 간 통신은 안된다고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대표 하태경)이 만드는 온라인 북한 소식지 '열린북한통신'이 9일 보도

- 소식지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평양 시내에서 휴대전화와 일반전화 사이의 통신은 가능하지만, 휴대전화끼리의 통신은 불가능하다”며 “휴대전화 통화가 불완전한 이유는 도청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 언급
- 소식지는 또 “지방의 유선 전화로 평양의 휴대전화에 거는 것은 가능하지만, 평양의 휴대전화로 지방의 유선전화에 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휴대전화관련 도청 시스템이 부분적으로만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
- 통신 요금은 1분당 1달러 정도이며, 단말기 가격은 최근 360유로에서 180유로(한화 32만 원 정도)로 내렸지만 휴대전화 서비스가 불편하고 비싸 “무역 일꾼들과 개인 장사꾼들을 포함한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오라스콤 휴대전화에 무관심하다”고 소식지는 보도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총인구, 2천405만 명 추산(2/1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총인구는 2008년 10월 기준 2천405만 1천21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이 발표
- 지역별로는 평안남도가 405만 1천706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양시 325만 5천388명, 함경남도 306만 6천141명, 평안북도 272만 8천617명 순임. 반면 북부내륙의 산간지방인 자강도와 량강도에는 총인구의 8.39%에 불과한 201만 7천659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됨.
- 북한인구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1천172만 2천403명, 여성이 1천232만 8천815명으로 집계돼 여성이 60만 명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조사는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지 않은 군 시설을 제외하고 북한 전역의 588만 7천767 가구에 상주하는 모든 가구원이 조사된 것임.
- RFA는 UNFPA 측의 설명을 인용, “예비 결과는 수작업으로 조사 결과를

집계해 컴퓨터로 자료를 처리하는 최종 결과의 수치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며 “북한의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자세한 최종 결과는 올해 4분기에 나올 것”이라고 보도

※ 북한은 2008년 10월 1일부터 보름간 UNFPA의 후원 아래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를 실시, 북한 전역에서 현장조사 요원 3만 5천200명과 지도요원 7천500명을 동원해 가가호호를 방문, 나이, 성별, 결혼 여부, 가족 수, 가족 구성원의 직업, 개인소득, 가구와 가전제품 목록, 교육수준, 국가 내 이동, 장애 유무, 출생률, 사망률, 화장실 유무, 난방 등 총 53개 문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

● 北축구, 박두의 손자도 축구 꿈나무(2/13, 연합)

-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때 이탈리아와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어 북한 대표팀의 8강 진출을 견인했던 ‘동양의 펠레’ 박두의 선수의 손자 박성일이 현재 4.25축구단 청소년 팀에서 북한 축구의 꿈나무로 성장
- 또 북한의 현재 월드컵 축구대표팀에서 과감한 슈팅과 송곳 같은 패스로 세계적인 기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홍영조는 4.25축구단장인 홍현철의 아들로 밝혀짐.
- 북한은 몇 년 전부터 선발 당시의 발재간 등 기술보다는 체격 조건 같은 잠재력 위주로 청소년 팀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北, 김정일 생일 행사 준비 한창(2/12,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7회 생일(2.16)을 가리키는 “2월의 명절”을 앞두고 그의 ‘업적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와 경축모임, 답사행군 등을 통해 우상화 분위기를 점점 더하고 있음.
- 특히 조선중앙방송은 12일 “2월에 들어서자마자 백두산 밀영에 벼들꽃이 피어났다”며 “신비한 자연현상”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은 “2월초부터 이 일대의 기온이 지난해보다 15℃ 정도나 올라가 눈석이(눈이 녹아 스러짐)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김 위원장의 생일을 앞두고 “이채로운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선전
- 김 위원장의 생일을 전후해 각종 체육경기 행사도 개최, “제18차 백두산상 국제회거(피겨) 축전이 15~17일 평양시 빙상관에서 열려 북한과 중국, 러

- 시아, 프랑스 등 각국 피겨선수들이 참가 한다”고 중앙통신은 보도
- 평양시의 식료연합기업소 산하 공장, 기업소들은 김 위원장 생일에 맞춰 “더 많은 식료품을 공급할 목표 밑에 생산에 매진”하고 있으며, “사회급양망(식당)들에서는 특색있는 여러 가지 민족음식을 봉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 리기석 조총련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조선인 축하단’이 10일 평양에 도착했으며, 평양방송에 따르면 폴스까(폴란드)에서 경축집회가, 기네(기니)에선 경축집회와 사진전시회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강연회가 각각 개최

● 北 축구 승리로 흥분의 도가니(2/1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2일 북한 축구대표팀이 전날 강호 사우디아라비아를 꺾은 것과 관련, “축구 열로 들끓은 하루”였다고 경기 당일 평양의 흥분된 분위기를 상세히 보도
- 경기는 오후 3시 시작됐지만, 정오에 벌써 관람석은 초만원을 이뤘고 경기장 주변의 식당과 이동·야외 봉사매대도 경기를 보러온 인파로 붐빔.

● 北 청년, 29% 인지능력 떨어져 군대 못갈 수준(2/12, 연합)

-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 내 정보기관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NIC는 최근 펴낸 ‘세계 보건 실태의 전략적 의미(Strategic Implications of Global Health)’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지난 1990년대 극심했던 북한 식량난 여파로 당시 태어난 북한 청년들의 인지능력이 크게 떨어져 미국 기준으로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징집대상자 10명 중 2-3명은 군대도 가지 못할 정도라고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밝힘.
- NIC는 또 과도한 의료비가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보건 분야 협력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뒷문의 교’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북(對北) 의료지원을 통한 관계개선을 권고

● 어김없는 北 김정일 생일, 신비 현상 보도(2/12, 조선중앙방송)

- 북한 매체들은 매년 김정일 위원장의 2월 16일 생일 때마다 각종 신기한 자

연현상이 나타났다고 선전, 이상화에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도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12일 “백두산 밀영에 벼들꽃이 피어났다”며 “참관자들은 자연도 절세의 위인의 탄생을 못잊어 꽃을 피웠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고 있다”고 선전

● **함경도서 유행성 출혈열로 수십 명 사망(제265호, 오늘의 북한소식; 2/11, 좋은벗들)**

- 북한 함경도 지역에서 최근 유행성 출혈열이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11일 주장. ‘오늘의 북한소식’ 제265호에서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에 위치한 의대병원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출혈열로 사망한 사람이 55명에 이른다”고 보도
- 이 병으로 함경북도 의대병원에 19명, 회령시 인민병원에 7명이 각각 입원해 있으며 함경남도 함흥시의 각 인민병원에도 유행성 출혈열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시 보건부는 기존 병원과 따로 떨어진 낡은 건물을 임시로 꾸려 환자들을 격리수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소식지는 보도
- 북한에서는 유행성 출혈열에 걸린 것으로 판명된 환자들을 20일간 격리시킨 뒤 증상이 악화되지 않는 사람은 퇴원시키지만 치료약품 부족으로 인해 격리기간에 숨지는 환자들도 생긴다고 소식지는 설명

● **北, 김정일 건강기원詩 소개(2/11,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이 1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16)을 앞두고 그의 건강을 기원하는 시를 내보냄.
- 조선중앙방송이 11일 소개한 시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시인 류동호가 쓴 ‘우리 장군님 건강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시로써 8개 구절로 된 시는 구절마다 “우리 장군님 건강하시면”으로 시작, 그가 건강하면 “세상만사 즐겁게 좋게만 보입니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

● **北정월대보름, 풍년. 건강 기원(2/9, 조선중앙TV)**

- 북한은 설, 추석과 함께 정월 대보름을 공휴일로 지정
- 평양 선교민족식당 책임자 송춘옥 씨는 중앙TV와 인터뷰에서 오곡밥과 아홉 가지 마른나물 음식들을 비롯해 평양의 4대 음식인 평양냉면, 평양온반,

평양송어국, 녹두지짐 등 여러 음식과 당과류들을 주민들에게 제공했다고 언급

- 北어학지, 남편 소개 때는 ‘저의 세대주’(2008년 4호, 문화어학습)
 - ‘문화어학습’ 최근호(2008.4호)는 부부 사이에 예절이 없으면 사랑도 없어진다고 하며 ‘부름말(호칭)’ 예절을 잘 지킬 것을 ‘교양’
 - 잡지는 부부간 호칭을 신혼기, 자식 양육기, 노년기라는 세 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에서 바람직한 호칭을 제시. 신혼기엔 남편에게는 ‘승혁동무’, 아내에게는 ‘영옥이’와 같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다는 것임.

- 北, 식물군락도 편찬(2/10, 조선신보)
 -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가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북한 각 지역의 식물 군락 상태를 보여주는 지도인 ‘조선식물피복도’를 편찬했다고 조선신보가 10일 보도. 이 식물지도를 보면 해당 지역의 식물자원 분포 상태와 생태적 특성, 이용 정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신문은 소개

- 北 피겨 최우수선수에 리성철·리은하 선정(2/10, 조선신보)
 - 북한 조선체육지도위원회에서 2008년 최우수 피겨 선수로 남자부의 리성철과 여자부의 리은하를 각각 선정했다고 조선신보가 10일 소개
 - 평양철도국체육단에 소속한 리성철은 2008년 북한에서 열린 국내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컵 피겨대회에서도 금메달을 수상, 리성철과 같은 팀에 속한 리은하는 작년 북한에서 열린 4차례 국내대회 모두를 석권

- 최태복, 내 손녀도 원어민에게 배운다(2/10, 자유아시아방송)
 -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지난주 북한을 방문한 영국 의회 대표단에 북한 영어 교사 양성을 위한 영국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하면서 “내 손녀도 원어민 강사들에게서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방북단 일원인 캐럴라인 콕스 상원의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
 - 최태복 의장은 자신의 손녀도 북한 대학에서 영국문화원 소속 원어민 강사

- 들로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다면서, 북한이 최근 초등학교부터 영어교육을 하도록 정책을 바꾼 만큼 이들 학생을 가르칠 영어 교사들을 준비시키는데 원어민 강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
- 영국 의회 방북단을 만난 북한의 궁석웅 외무성 부상은 북한의 고질적인 에너지 부족을 고려해 앞으로 영국의 대북 지원 활동을 단기간의 '긴급구호'에서 장기기간의 '개발지원(longer term development assistance)'으로 전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RFA는 소개
 - 콕스 의원은 북한의 지원 요청에 "유엔의 비탄 문타폰 특별보고관이 하루 속히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역제의 했으나 북한 측은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고 언급
 - 영국의 의회 방북단은 그러나 북한과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귀국한 직후 영국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영국 대학생들이 북한의 대학과 초등학교에 가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새로운 자금을 조성하고 양국 간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北단체, 샤프 발언 비난(2/1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15일 대변인 담화로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불안정 사태 대비책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미국 호전광들의 용납 못할 대결 선언, 전쟁 폭언"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또 이 단체는 오는 8월 한미합동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에 새로운 공동 작전계획이 처음 적용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침략전쟁 도발의 전주곡"이라고 주장
- 北, 클린턴 아시아 방문 주시(2/1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4일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행각과 조선반도 정세' 제목의 글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오바마 정권의 첫 아시

아 외교'라며 "조선(북한)은 대화와 대결을 가리는 척도를 가지고 첫 아시아 외교의 성패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클린턴 국무장관의 아시아 방문을 앞두고 언론들은 북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떠들었다"며 "미군과 남조선군이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데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무력증강이 다그쳐지고 호전세력은 '북의 급변사태'와 '선제공격'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
- 특히 "반목과 대립은 위험수위를 벗어나고 있으며 사태방치는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으로서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를 경고하는 교전 상대방(북)의 의도를 해석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정책 조율 과정에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이번 클린턴 국무장관의 한국, 일본, 중국 순방과정에서 대북 메시지에 주목할 것이라고 주장
- 조선신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과거의 북남합의들을 백지화함으로써 민족공조의 전제를 깨트리고 말았다"며 "조선반도의 대결구도를 조선 대 미국, 남조선으로 정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과 강경대응'의 악순환을 촉발시켰다"고 비난

● 클린턴, 北核 완전 포기시 정상화 용의(2/13, 연합)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3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돼 있으면 미국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하지만, 최근 계속된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과 관련해서는 도발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클린턴 장관은 경고했으며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정보가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
- 클린턴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순방인 다음 주 한·중·일 3국과 인도네시아 등 4개국 방문을 앞두고 이날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연설과 뒤이은 콘퍼런스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그리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오랜 휴전체제를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고 북한 주민들의 에너지와 다른 경제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언급

- 그는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첨예한 위협을 북한 핵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하고 북핵 문제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통해 한국 등 회담 참가국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 클린턴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지지하며 나는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이런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논의를 진전시킬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
- 그는 “북한 정부가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종전의 핵무기비확산조약 체결 상태로 복귀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이 이러한 약속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 하지만,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잇따른 대남 위협발언에 대해 “어떤 도발 행동과 도움이 되지 않는 대남공세를 하지 않아야 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말해 북한의 대남 공세가 북한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전달
- 클린턴 장관은 뉴욕필하모닉의 평양 공연과 같은 미국과 북한 간의 교류에 관한 질문에도 “상당 부분이 북한 정부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이나 말 등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런 행동은 북한과 함께 가는 길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
-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잊지 않고 있으며 다음 주 도쿄(東京)에서 이들 가족 일부와 만날 계획”이라고 답변

● 美, 또 ‘北 핵무기 보유’ 명기(2/12, 연합)

-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의 핵무기 실제 인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기구의 보고서가 또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기
-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 내 정보기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가정보위(NIC: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는 최근 발간한 ‘전세계 보건실태의 전략적 의미’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보유국으로 기술
- 보고서는 12개국의 보건실태 연구 결과에서 12개국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국, 인도, 북한 그리고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핵보유국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China, India, North Korea, and Russia possess nuclear weapons, while Iran is an aspiring nuclear

power)”고 기술

- 보고서는 특히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비공식 핵무기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도는 물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핵무기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 나란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명기한 반면,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란과는 차별화해서 언급
- NIC는 2008년 11월 발간한 ‘글로벌 트렌드 2025’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 국가(a nuclear weapon state)’로 언급한 바 있고,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JFCOM)도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핵무기보유국으로 기술, 파문을 일으킨 바 있음.

● **미국방부, 北미사일 발사, 6자회담 방해(2/11, 연합)**

- 미국 국방부는 11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 준비설과 관련,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북핵 6자회담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
- 브라이언 휘트먼 국방부 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준비 움직임과 관련,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런 행동들이 일어난다면 현재 6자회담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교적 노력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
- 앞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준비를 계속한다면 미국은 이를 요격하기 위한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국방부, 구매 관련 對北제재 해제(2/11, 연합)**

- 미국 국방부가 지난 1월 21일 물품구매 관련 대북제재를 해제,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정부가 작년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함에 따라 이뤄진 것임.
- 미국 의회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1월 21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테러지원국가나 단체가 소유·통제하는 회사와는 구매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방부의 연방구매세칙(DFARS)에서 북한을 삭제했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소유하거나 북한과 관련을 맺고 있는 회사들에게서도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음.

- **클린턴 국무장관, 北 위협행동 용납 불가(2/10, 연합)**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0일 최근 북한의 위협행동에 대해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 클린턴 장관은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거듭 확인하고 북한이 향후 수주 혹은 수개월내에 6자회담이나 다른 형태의 양자 및 다자협상에 응하기를 기대
 - 취임 후 처음으로 내주 한국·일본·중국·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4개국을 방문하는 클린턴 장관은 국무부에서 카렐 슈바르첸베르코 체코 외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의 행동이 동북아 지역 안정과 평화,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의 전조가 아니길 기대한다”고 우려를 나타냄.

- **클린턴, 日 납치가족 면담 검토(2/9, 미국무부)**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일 기간에 클린턴 장관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을 추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 미 국무부는 9일 일본의 제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클린턴 장관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 추진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면서도 “우리는 그 제안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언급

- **北, 핵보유국으로서 북미대화 원해(2/9, 연합)**
 - 북한은 지난 3~7일 평양을 방문했던 모든 아브라모위츠 전 국무부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전문가들에게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고 북.미 양자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9일 확인됨.
 - 이 참석자에 따르면 미국 방북단은 북한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수차례 만났으며 김 부상은 방북단에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도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이를 인정해달라는 뜻은 아니라고 언급

나. 북·중 관계

-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경축연회(2/1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앞두고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12일 경축연회가 열렸다고 중앙통신이 14일 보도. 이날 연회에는 왕강(王剛)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류홍차이(劉洪才) 대외연락부 부부장, 우동허(武東和) 중·북 우호협회장, 후정위(胡正躍) 외교부 부장조리 등이 참석

다. 북·러 관계

- 러 대통령, 北김정일에 생일 축전(2/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7회 생일(2.16)을 맞아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11일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축전에서 두 나라 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 관계의 강화 발전을 위한 김 위원장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의 “친근하고도 다방면적인 연계가 앞으로도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발전함으로써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소개

라. 북·일 관계

- 北, 대일 접촉 활발(2/14, 도쿄신문)
 -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북일 협상과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와 복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접촉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14일 보도
 - 북한은 2008년 말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 관계자나 국회의원들과 접촉, 일본의 정치 상황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
- 2009년도 조·일(북한·일본) 체육인 신춘 간친회(친목회) 개최(2/9,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2009년도 조·일(북·일본) 체육인 신춘 간친회(친목회)가 6일 일본 도쿄에

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9일 보도. 모임에는 북한 측에서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남승우, 배익주 부의장을 비롯한 체육인들이, 일본 측에서 일본올림픽위원회와 종목별 경기단체 대표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

마. 기타 외교 관계

● 北김영남, 이란과 협력관계 강화(2/11,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란의 이슬람혁명 30주년을 맞아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 간 협력관계 강화를 강조했다
- 김영일 총리도 파르비즈 다부디 이란 제1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북-이란 관계의 강화를 강조

3 대남정세

● 北조평통, 남북 기사교류 불허 비난(2/13, 조평통 서기국 보도; 2/14, 조선중앙방송)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3일 통일부의 남북 언론 단체 간 기사 교류사업 불허조치에 대해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단내겠다는 반통일적 망동”이라고 비난
- 14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최근 남조선의 통일부가 안전보장을 운운하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가 제기한 우리와의 기사교류를 전면 차단했다”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지향하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용납 못할 동족대결행위”라고 주장
- 조평통은 이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르짖고 있는 대화와 협력, 인권타령 이야말로 언어도단이고 민심과 내외여론에 대한 파렴치한 기만”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반민족적, 반통일적 책동으로 북남관계는 그 전도가 더욱 암담해지고 앞으로 어떤 사태가 빚어질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처했다”고 주장

※ 통일부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언론본부가 6·15 북측위 언론본과 위원회와의 기사교류 사업을 위해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 신청을 했지만 ‘국가안보와 공공질서·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

● **경남도, 3월 평양서 ‘교류사업’ 논의(2/12, 연합)**

- 경남도 방북단이 3월중 평양을 방문, 올해 도와 북측 간 교류협력사업 내용을 협의. 도는 안상근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10여명으로 구성되는 방북단이 3월 11일부터 3박4일간 평양을 방문해 올해 양측이 추진할 협력 사업을 확정하고 합의서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12일 발표
- 도는 아직 통일부에 정식 방북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부지사급을 단장으로 한 실무방문은 문제가 없다는 구두약속을 받았다고 덧붙임. 현재 거론되고 있는 올해 협력 사업은 평양 외곽에 거창사과 등 과수농장 조성 확대, 평양시내 삼석구역 삼석농장내 채소 비닐하우스 설치, 통일딸기 모종 사업 등임.

● **6·15남·북위원회, 3.1절 공동문건 발표 합의(2/11, 연합)**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와 북측 위원회는 올해 3.1절 90돌을 맞아 ‘반일’을 기조로 한 공동문건을 발표키로 했다고 남측위원회 이승환 집행위원단장이 11일 발표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다른 집행위원 6명과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방북하고 돌아온 이 단장은 “3.1절 공동행사는 갖지 않고 공동문건을 발표키로 했다”며 “문안은 북측에서 보내오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
- 이번 남, 북측 위원회 간 회의에서 남측은 6·15공동선언 9주년 행사를 공동으로 가질 것을 제안했으나 북측은 “시국”을 이유로 개별 개최할 것을 주장, 3월말~4월초 평양에서 열리는 공동위원장 회의 때 재론키로 함.

● **北, 南민간단체들에 영농물자 지원 희망(2/11, 연합)**

- 국내 50여 개 대북지원 단체 모임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회장 정정섭)’은 11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과 접촉, 올해 모내기가 시작되기 전에 못자리용 비닐을 북한에 지원키로 합의
- 북민협 총무인 권용찬 국제기아대책기구 사무총장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

동본부의 강영식 사무총장은 “북민협이 3년간 계속 지원하다가 지난해 남한의 정권 교체기에 중단됐던 못자리용 비닐을 다시 보내기로 하고 북측과 합의를 작성했다”며 “늦어도 3월말까지는 보내야할 것”이라고 언급

- 그러나 북민협이 민간 차원에서 비닐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을 하더라도 올해 남북협력기금 예산 180억 원을 활용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실질적인 재원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의 방침이 주목됨.

● 부산, 경남NGO, 北에 햇빛발전소 건립(2/10, 연합)

-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오는 6월 평양에 500kW급 햇빛발전소(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줄기로 했다고 10일 발표
-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를 위해 3월 18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평양 락랑구역에 있는 어린이영양공장에 햇빛발전소를 건립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음.

02.16-02.22

2월
3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함북지역 연이틀 시찰(2/2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 7월 7일 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기술개선 상황과 생산실태를 파악하고 기업소가 “대규모의 화학생산기지로 전변되었다”고 강조한 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 그는 “기업소의 지도일꾼들이 생산자의 창발성을 발양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히 진행하는 한편 절약투쟁을 강화해 생산에서 실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
 - 시찰에는 홍석형 조선노동당 함경북도위원회 책임비서,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노동당 중앙위 부장들인 박남기, 장성택과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주규창 등이 수행

- 김정일, 김책제철-라남기계 시찰(2/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 청진시의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를 차례로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먼저 북한 최대 제철소인 김책제철을 방문, 최근 새로 설치된 대형산소분리기 등을 돌아보고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를 사업과 생활에 전면적으로 구현한 결과”라고 치하하면서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철 생산 체계” 확립을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
 - 김 위원장은 또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를 방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에 의거해 생산정상화와 현대화를 밀접히 결합시켜 힘 있게 밀고 나갈 것으로써 최고생산 수준을 돌파하고 기계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는 것”을 과제로 제시
 - 시찰에는 홍석형 조선노동당 함경북도위원회 책임비서, 박남기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들인 주규창, 리재일 등이 수행

● 北이끌 ‘셋별장군’(2/16, 노동신문; 2/17, 마이니치신문; 2/18, 연합)

-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17일 “북한군 중추기관인 총정치국이 1월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정운(26)을 후계자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전문을 내렸다”고 보도. 그러나 통일부는 18일 “김정은 후계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언급
- 북한군 사상 검열을 담당하는 김정각(대장) 총정치국 제1부국장은 2월 초 김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로 추천하면서 “만경대 혈통과 백두산 혈통을 총으로 보위하자”고 언급
- 노동신문도 16일 김 위원장 생일을 맞아 사설에서 “백두 혈통의 계승 속에 주체 혁명의 양양한 전도가 있다”며 ‘혈통 승계’ 문제를 거론하기도 함.

나. 정치 관련

● 北, 대의원선거 선거자 명부 공시(2/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3월 8일 치러질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구, 분구 선거위원회들에서 선거자 명부를 공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
- 선거자 명부는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법 시행세칙에 준해 작성됐으며, 명부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을 가진 모든 공민이 등록됐다”고 통신은 보도. 선거자 명부의 작성과 공시는 선거일 15일 전에 하게 됨.
 - ※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1월 6일 전원회의를 열어 대의원 선거에 대한 결정을 채택, 사회주의 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를 오는 3월 8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1월 14일에는 대의원 선거를 위한 도, 시, 군 선거위원회들을 조직했고, 2월 1일부터는 구, 분구 선거위원회가 조직돼 선거를 위한 준비에 착수

● 北, 통일고문회의 보수인사 재편 비난(2/22,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22일 ‘사태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통일고문회의의 고문단 교체와 관련, 남북 정상회담 참가자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주장하는 인사들을 “내쫓고 대결 광신

자들을 앉힌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이에 대해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

- 신문은 남한의 대북정책과 “동족대결 책동”에 의해 지금 남북관계는 “더 이상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는 험악한 지경에 빠졌다”며 이명박 정부가 “통일고문회의를 비롯해 북남관계 문제를 다루는 기구들을 대결 광신자들로 꾸린 것만큼 북남관계는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

● 北, 玄통일 취임사 비난(2/21,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2월 12일 취임사에서 ‘원칙고수’, ‘비핵화’,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강조한 데 대해 “반통일적인 궤변”이라고 비난하면서 “우의 보수적 통일관”을 가진 현 장관이 자리에 있는 한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풀릴 수 없다”고 주장
- 통일신보는 21일 ‘대결의식에 물젖은 자의 궤변’이라는 글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의해 남북관계는 “완전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고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날로 짙어가고 있다”면서 현 장관이 “이렇듯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남북이 평화와 번영으로 가기 위해 만들어진 남북공존, 공영정책’이라고 추어올리면서 갖은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야말로 화해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
- 신문은 현 장관에 대해 “조국통일과 북남관계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인물”, “동족대결의식이 짙은 반통일분자” 등으로 공세를 퍼면서 그의 통일장관 임명과 관련, “북남관계를 완전 파산으로 더 깊숙이 몰아가려는 책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현 장관이 취임식 후 기자회견담회에서 “‘비핵·개방·3000’(구상)은 ‘상생·공영’(정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도 좋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반공화국 대결기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

● 조평통, 끝까지 결판...실천으로 보일 것(2/21, 조평통 대변인 담화)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세끼 걱정 사회주의’ 언급을 거론,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는 악담”이라고 격하게 반발하며 “우리는 가장 무자비하고 단호한 결산으로 역적 패당과 끝까지 결판

을 보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

- 1월 30일 남북 간 정치군사적 합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했던 조평통은 이날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또 “앞으로 시간은 리명박 패당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실천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위협

●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임명(2/2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신이 겸임하고 있는 국방위원장과 당 중앙군사위원장 명의로 오극렬(78·대장) 노동당 작전부장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
- 공군사령관 출신인 오 부위원장은 총참모장 당시 북한군 현대화를 주도. 그러나 김일성 주석이 살아 있던 1987~88년 당시 실세였던 오진우(원수) 인민무력부장과 군 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좌천됐다가 김정일 위원장의 보호로 살아남은 것으로 전해짐. 그는 일제 말기 ‘김일성 부대’ 대원이던 오중성의 외아들로, 어릴 때 김 위원장과 형제처럼 함께 자란 것으로 알려짐.
 - ※ 당 작전부장은 대남 간첩 양성과 침투를 총괄하는 자리이며 국방위는 북한군을 지휘하는 사실상 최고통치기구임.
 - ※ 오 부위원장은 1989년부터 20년 동안 당 작전부장을 지내며 1992년 여간첩 이선실(북한 서열 22위)이 개입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1995년 2인조 무장간첩 사건, 1999년 여수 앞바다 반잠수정 침투 사건 등을 주도해 대표적 ‘강경파’로 꼽힘. 1979~1988년에는 총참모장(합참의장)으로 일하면서 1983년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1987년 KAL기 폭파 사건 등에도 연루됐을 것이란 관측

●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강등(2/19, 조선중앙TV)**

- 북한 김일철 전 인민무력부장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조선중앙TV는 18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기로 한 제333호 선거구 선거자 결의대회 소식을 전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김일철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호칭

- 인민무력부에는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가 출범한 때에는 제1부부장 자리가 없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2월 11일 김영춘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인민무력부장에 임명하면서 전임 김 부장의 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엔 신설한 것으로 추정됨.
 - 김 전 인민무력부장은 1997년 인민무력부가 정무원 산하 기구일 때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을 이미 지냈으며 1998년 정무원이 내각으로 개편되면서 인민무력상에 올랐다가 2000년 인민무력성이 인민무력부로 개명된 뒤부터 올해 2월까지 인민무력부장을 지내다가 다시 제1부부장으로 강등된 셈임.
 - 김 제1부부장은 2월 16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김정일 위원장의 포병사령부 산하 제681군부대의 포사격 훈련 참관에도 동행한 것으로 사진을 통해 확인되었음.
 - 김일철 제1부부장은 해군 출신으로 해군사령부 참모장과 해군사령관을 지냈으며 공화국 영웅칭호와 국기훈장 등을 수훈
- **北, 남북 간 물리적 충돌 시간문제(2/19, 조선중앙통신; 2/18, 총참모부 대변인)**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미제와 남조선 괴뢰군 호전광들 비행대들을 기동전개, 북침전쟁연습 감행'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무력증강과 북침전쟁 연습"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남북 간 물리적 충돌은 "시간문제"라고 주장
 - 북한은 18일 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내세워 남한 정부에 대해 북한군이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특히 한국군의 군사훈련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괴뢰군 호전광들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더 이상 수습할 수도, 바로잡을 수도 없게 됐다"고 통신은 보도
 - **평양방송, 서해상 등 군사충돌 위험 정세(2/19,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19일 '반역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 프로그램에서 남북관계 악화로 서해상 등 남북 간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

- 방송은 이명박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의 통일이 최후 목표' 발언을 "우리의 존엄 높은 체제를 모독하고 북침야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기용도 문제 삼음.

● 北단체, 용산참사 비난(2/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17일 용산참사를 "인권말살"이라고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대의원선거 일심단결 보일 것(2/17,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는 선군조국'이라는 제목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일심단결'을 강조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제 멀지 않아 진행되게 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를 통하여서도 세상이 열백 번 변하고 천지풍파가 닥쳐온대도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선군혁명의 천만리 길을 억세게 걸어가려는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남김없이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

● 北, 김정일생일 '백두혈통 계승' 강조(2/16,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노동신문은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부강조국의 찬란한 내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라는 제목의 장문의 사설에서 "백두의 혈통의 빛나는 계승 속에 주체혁명의 양양한 전도가 있다"며 고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투쟁'을 가리키는 "백두의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해" 나갈 것을 강조

- 노동신문은 김정일 위원장의 "혁명 영도시는 백두의 전통을 우리 조국과 혁명의 만년재보로 빛내어"온 역사라며 "전통계승 문제는 혁명의 명맥과 사회주의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사"라고 주장하고 "수령(김일성)이 이룩한 업적과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해 나가는 길에 조국과 혁명의 밝은 미래가 있다"고 강조

- 한편 15일 생일 기념 중앙보고대회가 열린 데 이어 4.25문화회관과 평양체육관 광장에서는 평양시 청년학생의 경축무도회가 열렸고 혜산시, 신의주시, 사리원시, 원산시 등 각 도 소재지에서도 무도회가 이어짐.

※ 북한은 1976년 2월 김 위원장의 생일을 정식 휴무일로 지정한 데 이어

1995년 2월 53회 생일을 맞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지정하면서 생일 휴일을 16, 17일 이틀로 늘렸음.

다. 경제 관련

● 조선엑스포닷컴, 온라인게임 홍보(2/22, 연합)

- 북한이 직접 제작해 운영하는 ‘조선엑스포닷컴(www.chosunexpo.com)’은 홈페이지에서 최근 개발했다는 카드, 로또, 릴, 보드, 퍼즐 등의 게임을 선보였는데 이들 게임은 남한이나 해외동포 네티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거나 사이트에서는 직접 게임을 이용할 수 없으며, 또 어떤 경로를 통해 게임들을 이용 또는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음.
- 사이트는 카드 게임으로 남한에서 유행하는 ‘고스톱’을 비롯해 “포커 게임을 슬롯머신 형식으로 재현한” 비디오 포커, 세븐 포커, 하이로우, 홀라 게임을 소개
- 특히 태왕사신기 게임은 고구려 광개토태왕의 일대기를 소재로 만든 역사 판타지 게임으로, 남한에서 2007년 ‘한류스타’ 배용준이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작품과 동일한 제목, 주제로 구성돼 있음.
- 또 사이트는 보드 게임 화면에선 남한의 여성그룹 ‘슈가’의 전 멤버였던 박수진 씨 사진을 내세웠는데 박씨 측 기획사는 22일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말해 북측이 ‘무단’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 조선엑스포닷컴은 평양 주재 외국대사관들에 인터넷망을 공급하는 조선북권합영회사가 제작한 것으로, 북한의 상품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 국어로 소개, 인터넷 주소(IP)상 중국 광둥성의 네트워크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실제로 서버가 중국에 있는지 아니면 북한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北, 2009년 외부 식량 179만t 도입 필요(2/20, 유엔식량농업기구)

- 북한의 심각한 식량 부족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북한은 오는 10월까지 총 178만6천t의 식량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할 형편이라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밝힘.
- 20일 FAO가 최근 발간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는 지난 2년간 북

한의 곡물 수확이 급격히 줄어 심각한 식량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FAO는 올해 곡물 회계연도(2008년 11월-2009년 10월)에 북한이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178만6천t의 식량 가운데 1월 중순 현재 45만t을 지원받았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134만t을 추가로 지원받거나 상업적 거래를 통해 수입해야 한다고 지적
-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 보고서의 북한 부분을 작성한 쉐팡 박사의 말을 인용, 북한이 지난해 곡물회계연도(2007년11월-2008년10월)에 총 77만t을 수입한 만큼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수입한다 해도 외부에서 57만t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추산
- 한편 통일부는 19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북한의 식량 수요는 548만t인 데 비해 전년도 생산량은 431만t(도정 후 기준)이어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또는 지원이 없을 경우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117만t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

● **노동신문, 과학기술은 증산의 열쇠(2/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의 기초'라는 글에서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에 기초해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여나가는 것이 현 시대 경제발전의 기본 추세"라며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
- 신문은 과학기술이 "생산 장성의 기본 열쇠"라며 "생산을 빨리 늘여야 경제와 민생활에서 실질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낄 수 있다"고 강조

● **유럽기업단 방북, IT·농업투자 모색(2/18, 자유아시아방송)**

- 유럽 기업들로 구성된 대북 사업단이 오는 5월 9일부터 16일까지 북한을 방문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 2008년 10월에도 유럽 사업단을 이끌고 방북했던 네덜란드 GPI컨설턴스의 폴 치아 대표는 "(올해는) 더 다양한 나라와 분야의 기업들이 동참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는 정보기술(IT)과 농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북한 기업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언급

- 그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과 유럽 간 긴장은 없기 때문에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에 사업체가 진출하는 데 영향은 없다”며 “지난해 방문 때도 그랬지만 북한 당국은 유럽 기업들을 크게 환영한다”고 답변

라. 사회·문화 관련

● 광명백과사전, 9·10권 발간(2/21, 통일신보)

- 북한이 2010년 완간을 목표로 지난 2006년부터 발간 중인 ‘광명백과사전’ (전 20권)의 9권 ‘세계의 지리’편과 10권 ‘수학’편이 발행됐다고 통일신보가 보도
- 통일신보는 21일 백과사전출판사가 광명백과사전 9권, 10권을 최근 발행했다면서 ‘세계의 지리’편에서는 세계지리 일반지식을 설명하면서 대륙 또는 대주 범위에서 지리부문별 체계에 따라 개괄 서술했으며, ‘수학’편은 수학의 기본 내용과 발전 역사를 4개 편, 28개 장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서술했다고 보도
- 또 광명백과사전은 백과사전출판사가 펴낸 기존의 ‘조선대백과사전’(전 30권)과 달리 자모순이 아니라 분야별 체계에 따라 용어를 정리, 독자가 읽기 편하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

● 北, 10여 개 습지 ‘보호구’ 지정 관리(2/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평안남도 문덕과 함경남도 금야를 비롯한 동서해안의 10여 개 습지들을 보호구로 설정하고 보호관리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
- 북한은 진펄, 늪, 강, 호수를 비롯해 특히 “썰물 때 깊이 6m를 초과하지 않는 바닷가 연안지역” 등을 습지대에 포함시켜 보호관리 하고 있다며, 습지 보호구들에선 사냥이나 비법적인 경제개발 활동을 철저히 금지하고 서식 동물들에 대한 보호 관리에 우선적인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

● 우리민족끼리, 김옥균 ‘교통운수 발전론’ 중점소개(2/21,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가 개화파 우두머리로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1851-1894)

이 근대화를 위한 사회경제 개혁론을 폈던 ‘치도략론’을 “진보적인 개혁안”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자세히 소개.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005년 3월 김옥균을 단군, 동명왕, 이순신 등과 함께 ‘역사인물 36인’에 선정. “김옥균은 개화파를 이끌어 갑신정변을 일으킨 부르주아 개혁운동가”라고 소개하는 등 북한은 김옥균에 대해 매우 후한 평가를 한 바 있음.

● 北주민, 자유시장 제한에 반발(2/20, USA투데이)

- 북한 당국이 일부 허용해온 자본주의식 자유 시장을 최근 제한하려 하자 북한 여성을 포함한 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고 미국 일간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20일 보도

● 北, 런던올림픽 대비 시동(2/20, 조선신보)

- 북한은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이상의 메달 획득”을 오는 2012년 런던올림픽 목표로 삼고 올해를 런던올림픽을 향한 “선수 강화의 제1단계의 해”로 규정, 경기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0일 소개

- 또한 “무엇보다 힘을 쏟는 대회는 종합경기 대회”라고 신문은 말하고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제5차 동아시아경기대회에 23개 종목 중 남자축구, 마라톤, 사격, 역도, 유도, 수영, 육상 등에 출전한다고 보도

- 북한 체육지도위원회의 김우라(41) 책임부원은 “출전 종목 수를 늘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며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에 소수정예로 집중적으로 파견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자세”라고 언급

※ 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 북한은 유도(8월), 남자권투(8월), 레슬링(9월), 체조(10월), 역도(11월) 등에 선수 파견을 예정

● 北, 마약밀매 2002년 이래 중단(2/19, 유엔 마약범죄국; 교도통신)

- 유엔 마약범죄국(UNDOC)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국장은 최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이 주요 마약 공급원 역할을 해왔다는 관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면서 “(그런 관행은) 지난 2002년 이래 중단됐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

- 北, 선거 앞두고 보안경계 강화(제266호, 오늘의 북한소식; 2/18, 좋은벗들)
 - 북한이 3월 8일 실시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투표장 인근의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18일 보도
 - ‘오늘의 북한소식’ 제266호에서 북한 노동당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행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선거장(투표장)을 비롯한 장소에서 불순적대 분자들이 선거장 파탄 행위를 하는 정치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 보위부와 보안서에서는 균중을 면밀히 조사하고, 감시 대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언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美국무부, 보즈워스, 성 김과 협력(2/20, 美국무부)
 - 미 국무부는 20일 대북특사로 임명된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 대사가 성 김 북핵 특사와 북핵 문제 전반에 관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 고든 두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성 김 특사는 6자회담 당사국들과 일상적인 접촉과 의논을 하게 될 것이고, 보즈워스 특사는 미국 국무부의 전반적인 (북한 비핵화) 노력을 조정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고 설명

나. 북·미 관계

- 클린턴, 북·미 양자대화 無언급(2/20, 연합)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0일 북핵문제와 관련, 6자회담을 통한 해결만 강조할 뿐 북·미 양자대화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 클린턴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장관회담 뒤 가진 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문제에 대해 한마음”이라며 “그것은 6자회담을 통해 함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언급

● 클린턴, 北HEU, 비핵화 걸림돌은 안돼(2/20, 폭스뉴스)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0일 “우리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을 갖고 있는지 열심히 파악해야겠지만, 이 문제가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불능화하는 노력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언급
- 클린턴 장관은 “HEU와 관계된 것이 북한에서 일어났든지, 아니면 북한으로 수입됐는지는 우리가 북한에 조사단을 보내면 얻을 수 있는 정보”라며 “그러나 이 문제로 플루토늄에 대한 우리의 통제를 상실하게 된다면 그것은 실수”라고 강조, 또 “HEU를 연구한 많은 사람은 (북한에) 뭔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구체적인 장소는 물론 구체적인 결과를 꼬집어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

● 클린턴, 우리 행동은 북의 결정에 달렸다고 언급(2/20, 연합)

- 20일 미국 오바마(Obama)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클린턴 장관은 “한·미 양국은 그 어느 주제보다 북한문제에 대해 한마음이다.”라고 언급
- 클린턴 장관은 “남북 대화 없이는 미·북관계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남한은 제쳐두고 미국과 통한다) 기도에 썩기를 막는 한편 핵·미사일 도발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짐. 그는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6자회담에 피해를 주는 모든 도발적 행동을 종식해야 한다”며 “미사일 발사는 6자회담과 동북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면서도 북한에 ‘대화의 창’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비침.

● 클린턴, 현재로선 김정일 만날 의향 없다(2/20, 연합)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0일 “현재로선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언급, 클린턴 장관은 “방북과 관련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며 검토도 하지 않았다”면서 “조건은 북미관계가 진전되는데 달려있다”고 강조
- 그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한다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고려하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를 추구하며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에너지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종전 입장을 재확인

● 클린턴, 김정일 후계 발언(2/19; 2/20, 연합)

- 클린턴 장관은 19일 방한에 앞서 가진 기내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후계 구도가 형성될 것이며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등 많은 우려에 직면해 있는 한국으로서는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 리더십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함.
- 그는 또 “권력 승계가 일어나면 그것이 평화적이라 하더라도 더 큰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북한 내부에서는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더 도발적인 행위를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 권력 내부에)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
- 그러나 클린턴 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발언에 대해 부연 설명,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임.
- 고든 두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지도체제의 불투명성을 거론하면서도 “클린턴 장관의 발언을 말 의미 그대로 두고 싶다”며 “그는 국무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언급

● 미, 對北정책 최종목표는 비핵화(2/17, 미국무부)

- 미 국무부는 17일 대북정책의 최종목표가 한반도 비핵화임을 거듭 재확인. 고든 두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우리 입장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만, 국무장관이 우리 정책의 기초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며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힘.
- 이어 두기드 부대변인은 앞으로 북핵 협상 과정에서 90년대 시작한 2기의 경수로 건설을 마무리할 의사가 있는지와 관련해 “대북 정책을 모든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최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 즉 한반도 비핵화”라고 강조

다. 북·중 관계

● 주북 中대사, 김정일 방중 3돌 기념연회(2/2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3주년을 맞아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21일 주북 중국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

- 연회에는 북한 측에서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광호 노동당 부장, 김태종 노동당 부부장, 김영일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꾼들이 초대됨. 류 대사는 연설에서 올해 “중조(중국-북한) 친선의 해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리라는 것을 확신 한다”고 말했으며, 최태복 비서는 올해 양국의 친선이 더욱 강화 발전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화답

※ 김정일 위원장은 2006년 1월 10~18일 중국을 비공식 방문

● 北, 北·中 문화협정 50돌 연회 개최(2/21, 평양방송)

-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문화성이 20일 평양 청류관에서 류샤오밍(劉曉明) 주북 중국대사를 초청, 북한과 중국 간 문화협조협정 체결 50돌 기념 연회를 열었다고 평양방송이 21일 보도
- 연회에 북한측에서는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대리, 한철 문화성 부상, 전영진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

3 대남정세

● 1월 남북교역 작년 대비 20% 감소(2/22, 통일부)

- 1월 남북 교역규모가 작년 1월에 비해 19.6% 감소했다고 통일부가 22일 발표,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남북교역은 반입 6천900만 달러, 반출 4천 400만 달러로 총 1억1천300만 달러를 기록, 작년 1월(1억4천50만4천 달러)에 비해 19.6% 줄어들었음.
- 통일부는 남북교역량 감소 배경에 대해 “고환율과 국내 경기 침체, 북한의 지속적인 남북관계 상황 악화 조치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

● 北리종혁, 선언 일부, 이행 문제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2/18, 연합)

- 북한의 리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 선언의 “일부 조항은 이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
- 북한의 초청으로 최근 방북했던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의원 등이 북한과

남한을 방문한 후 내놓은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리종혁 부위원장은 북영친 선의원단 위원장 자격으로 앨튼 의원 일행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남 대화의 조건으로 남한이 두 선언을 존중해야 하는 것을 들며 이같이 언급

- 연합이 18일 앨튼 의원 측으로부터 이메일로 입수한 이 보고서는 리종혁이 두 선언의 일부 조항의 이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으나 “두 선언에 대한 반대는 (남한) 새 정부의 남북통일 반대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남한 정부가 두 선언을 거부한다고 주장

● 민간단체 대북사업 기금지원신청 접수(2/17, 통일부)

- 통일부는 17일부터 국내 민간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 통일부는 17일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공고를 내고 3월 5일까지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을 받은 민간단체들로부터 개별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힘.
- 2009년 민간 대북지원 단체의 개별 사업과 단체들 간의 합동사업 지원에 남북협력기금 총 180억 원을 책정한 정부는 신청 접수 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등 심사 과정을 거쳐 3월말 또는 4월초 기금지원 사업 및 액수를 확정할 예정
- 통일부가 발표한 2009년 기금지원 심사 평가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분배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과 남북왕래 등 지속적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기금을 지원키로 함.
- 그러나 북측과 사업협의 창구가 개설되지 않거나 사업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은 단체, 전년도 기금 집행률 40% 이하의 단체는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법, 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이 제한됨.

02.23-03.01

2월
4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자강도 만포시 시찰(3/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 만포시의 만포제련소, 압록강다이아(타이어) 공장, 만포방사공장과 식당인 만포각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만포제련소에서 공장 근로자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와 함께 생산공정의 기술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쳤다고 밝히고 제련소의 당면 과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한편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제련의 실수율을 무단히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
- 그는 또 소규모 지방산업공장인 만포방사공장과 식당인 만포각을 돌아보는 동시에 만포시 도시경영실태를 살펴보고 “주민들이 도시를 잘 조성했다고 말했다”고 언급
- 시찰에는 박도춘 자강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가 수행
- 김 위원장은 자강도 만포시 방문에 앞서 함경북도 청진시와 생모인 김정숙의 고향인 회령시 등을 장기간 시찰

● 김정일, 함북 회령 방문(2/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 회령시 오산덕의 김정숙 동상을 둘러보고 회령기초식품공장, 회령대성담배공장, 중앙은행 회령지점, 김기송회령제1중학교 등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생모인 김정숙 동상에 경의를 표시한 뒤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심화될수록 혁명전통 교양은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며 각급 당 조직과 근로단체 조직에서 사상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시
- 그는 이어 회령기초식품공장에서선 “생산을 무단히 늘리고 생산된 기초식품을 제때에 공급”할 것을 지시하고 회령대성담배공장에서선 이 공장 담배가 북한 군인들에게 공급되는 것을 지적, “높은 원군정신을 안고 지혜와 정성을 다 바칠 것을 강조

- 이번 시찰에는 홍석형 함북도 당책임비서,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부장, 리재일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이 수행

● 北 ‘담배 피우는 김정일’ 사진 공개(2/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여전히 큰 관심사인 가운데 함경북도에 서 1주일 가까이 공개활동중인 김 위원장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공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함경북도 회령시를 두루 시찰하는 사진을 무려 132장 보도하면서 그가 회령대성담배공장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피우는 사진 2장과 한 개비를 오른손에 쥔 사진 1장을 공개

- 김 위원장은 과거 애연가로 알려졌다지만 2001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를 끊었다고 밝혔으며, “담배는 심장을 겨눈 총과 같다”고 금연 필요성을 강조했었음.

● 김정일, 함북 무산광산 현지도(2/2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를 현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기업소의 사적물을 둘러보고 광산들이 한눈에 보이는 철산봉에 올라 기업소 전경을 본 뒤 탐사를 통해 더 많은 예비광량을 확보하고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채굴 대책들을 면밀히 세울 것을 지시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벽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군 제26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

● 獨언론, 北노동당 김정일 뇌졸중 공지(2/26, 쥐트도이체 차이퉁)

- 북한 노동당이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졸중 사실을 간부들에게 공지했다고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이 26일 보도

- 이 신문은 ‘미사일 위협’이라는 제목의 도쿄 발 기사에서 소식통을 밝히지 않은 채 “조선노동당은 수일 전 처음으로 김 위원장의 2008년 8월 뇌졸중에 대해 간부들에게 통보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병세를 적시하지는 않았다”고 보도

- 이 신문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2월 24일 생모의 고향인 회령을 찾은 데 이어 수일 내로 미사

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북한의 최북동 지역을 방문할 것이라고 예측

● CIA국장, 김정일 여전히 북한 통치(2/25,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전히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리언 파네타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25일 밝힘. 지난 19일 취임한 파네타 국장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가 여전히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분명한 징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

나. 정치 관련

● 노동신문, 3·1절을 ‘수령 영도력’ 찬양에 활용(3/1,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민족의 자주적 기상을 떨치며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자’라는 제목의 기념 사설에서 3·1운동은 “인민대중이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자면 반드시 탁월한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하며, 민족 자체의 역량을 튼튼히 마련해야 한다는 피의 교훈을 남겼다”고 주장하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도력’을 찬양
- 신문은 이어 “3·1 인민봉기자들이 피흘려 쓰러지면서 절규하던 민족자주권 실현을 위한 투쟁은 오늘 엄중한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며 “반외세 자주화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명박 정부 반대 투쟁과 반미, 반일 투쟁을 선동. 신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본정신은 민족자주”라고 주장
- 신문은 또 ‘일본의 역사적 죄악을 총결산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선 “역사적인 3·1인민봉기는 평양에서 일어난 대규모적인 반일 시위투쟁을 봉화로 하여 시작됐다”며 이 봉기는 “삼시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번져갔다고 3·1운동의 ‘평양 발원’을 거듭 주장

● 北, 위성발사 ‘유엔결의 위반’ 인정 불가(2/28,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8일 ‘또 하나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평화적인 과학연구활동”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우리는 그러한 ‘결의’를 인정해본 적도 없고 그같은 것을 염두에 둔 적도

없다”고 언급

- 이어 남측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연일 “‘제재’니 ‘대응타격’이니 ‘요격’이니 뭐니 하는 호전적 폭언”을 내놓고 있다면서 “‘대응타격’을 운운하며 신성한 우리의 조국강토를 티끌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무자비한 반격의 불벼락을 들뜨우겠다는 것이 우리 군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고 “우리 군대는 국지전이건 전면전이건 모든 상황에 대비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에 있다”고 주장
-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군대는 이미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한 상태”이고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남조선 호전광들의 일거일동을 시야에 넣고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군 총참모부 성명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그것이 어떻게 즉시에 실천으로 옮겨지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호전광들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고 밝힘.

● 범민련, ‘6·15-10·4 선언이행 운동기간’ 설정(2/28, 조선중앙통신)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은 28일 남과 북, 해외 본부 사이에 ‘모사전송’(팩스)으로 제10차 공동의장단 회의를 열어 지난해 활동을 결산하고 올해 활동방향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올해 6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기간’으로 설정”하고 통일운동을 벌이며 국가보안법 등의 철폐와 범민련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 친북단체들의 합법화 실현을 위한 투쟁에 범민련이 앞장설 것을 강조
- 범민련은 “앞으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그 실현을 바라는 단체와 인사들과는 주의 주장과 소속의 차이를 초월”해 함께 노력할 것과 “보다 적극적인 3자 연대”로 전 민족적 운동을 벌일 것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덧붙임. 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통신은 보도
- ※ 범민련은 1990년 8월 15일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열린 제1회 범민족대회에서 창립키로 결의된 후 해외(1990.12), 북측(1991.1), 남측(1995.2)에서 차례로 결성됐으나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음.

● 北, “미군 도발행위”…南에 통지문(2/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사실무책임자는 28일 남측 군부에 통지문을 보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미군의 도발과 위반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만약 미군이 북남관리구역에서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우리 군대는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지문은 남한 정부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으로 인해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정세를 더욱 긴장 격화시키려고 음모로 양모로 책동하고 있다”면서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에 아무때나 쏟아내와 돌아치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 실례”라고 지적

● 北, 만경대 가문 포부는 강성대국(2/28, 조선중앙방송; 2/26, 노동신문)

- 28일 북한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26일 2면 전면에 게재한 ‘휘황찬란한 내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형직 선생님께서로부터 아버지 수령님(김일성)과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의 대에 이르는 만경대혁명 일가의 숭고한 지향과 포부는 무궁번영할 강성대국”이었다고 주장. 권력을 세습한 김정일 ‘가문’과 북한이 2012년 달성을 목표로 내건 ‘강성대국’을 북한의 미래와 연결을 시킴.
- 신문은 특히 “만경대 위인들처럼 3대를 이어 한 나라, 한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역사의 숭고한 길을 역세게 걸어오신 열혈 혁명가, 열혈 애국자들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며 “만경대 3대 위인의 애국의 전통이 피줄기처럼 관통되어 있고 끝없이 창창한 선군혁명의 미래와 잇닿은 우리의 내일”이라고 부연

● 김명길, 北 미사일발사 예정대로 발사(2/27, 연합)

- 김명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공사는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인공위성 발사는 예정대로 한다”면서 “시점만 남았다”고 밝힘.
- 김 공사는 이날 조지아공대(조지아텍)의 샘 년 국제학대학 및 부설 국제전략기술정책연구센터(CISTP)가 애틀랜타에서 개최한 ‘북핵 6자회담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회의 참석 후 회의장에서 연합 뉴스 등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
- 김 공사는 ‘미사일 발사를 예정대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 ‘언제 발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점은 두고봐야 안다”고 답변
- 김 공사는 이어 “인공위성 발사는 우리의 자주적 권리로서, 보편적 성격의 것이며, 우리는 자주적 권리행사를 계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미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 또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한미 양국의 비판에 대해 “우리는 그러한 결의에 대해 존재 자체를 인정할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결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답변
 - 북핵 문제와 관련, 김 공사는 “북한은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수력, 화력, 재생에너지 등 모든 에너지원이 제한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미래의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차원에서 핵 에너지가 필요해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

● 北, 4차 선동원대회 개최(2/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최태복 노동당 비서는 26일 개막된 제4차 ‘전국선동원대회’에서 선전·선동원들이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 위해 “당원,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양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에 주력할 것을 촉구
- 최 비서는 이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회의 보고자로 나서 선전, 선동원들의 첫째가는 사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의 수뇌부 두리(주위)에 더욱 튼튼히 묶어 세우고 선군시대의 순결한 인간, 참다운 혁명전사로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
- 노동당 중앙위도 이번 대회에 축하문을 보내 선전, 선동원들이 “전체 인민을 견결한 혁명가로,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우며 선군조선의 제1국력인 정치사상적 위력을 더욱 높이 떨쳐 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 축하문은 또 선전, 선동원들이 경제분야에서 선동활동을 강화하고 “반동적인 제국주의 사상문화와 이색적인 생활풍조가 우리 내부에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요구
- 이날 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중린, 김기남 노동당 비서, 근로단체,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간부와 중앙 및 지방의 당 사상부문 간부들, 모범 선동원들이 참석

● 北조평통, 대응타격론에 아성까지도 초토화(2/26,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6일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한 이상희 국방장관의 ‘발사지점 대응 타격’ 발언 등을 비난하며 “그 무슨 ‘대응 타격’이니 뭐니 하는 것으로 신성한 우리의 존엄을 털끝만치라도 건드린다면 도발자들은 물론 그 아성까지도 초토화될 것”이라고 위협
- 대변인은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따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제재” 경고에 대해 “인공위성 발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인 권리”이므로 “시비할 것이 못된다”고 일축하고 “인공위성인지 뭇인지 믿어지지 않으면 이제 무엇이 하늘로 날아오르는가를(눈)여겨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언급

● 노동신문, 모든 공간 철저히 차단해야(2/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반동적 사상공세를 혁명적 사상공세로’라는 제목의 논설과 함께 ‘위험한 독소’, ‘길을 열어주면 노예가 된다’, ‘총포성이 울리지 않는 전쟁’, ‘어리석은 망상’ 등의 글을 무더기로 게재하며 부르주아 사상문화의 ‘해독성’을 강조하는 글을 여러 건 싣고 부르주아 사상문화가 북한 사회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고 차단할 것을 촉구
- 이들 글은 부르주아 사상문화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씩어빠진 제국주의 문화가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제국주의 사상문화 침투책동의 반동성과 위험성을 폭로 단죄하고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
- 논설은 “제국주의자들은 ‘사상의 자유’, ‘문화의 무국경론’을 제창하며 저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폐쇄사회’니 ‘독재국가’니 하는 험담을 퍼부으며 문호개방을 강요하고 있다”고 개방요구를 일축하고 부르주아 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허용한다면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병들게 하고 사회주의적인 모든 것을 변질시키고 파괴”시켜 결국 “사회주의를 지켜낼 수 없다”고 경계했다.
- ‘위험한 독소’라는 글은 “사람들을 개인의 부귀향락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수로, 정신적 불구자로 만드는 가장 위험한 사상적 독소가 바로 부르주아 사상문화”라고 주장하고, 이에 오염되면 “혁명할 생

각은 하지 않고 날라리풍에 물젖어 동물적인 생활”을 추구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게 된다고 지적

● 美보고서, ‘김정일 절대적 통치’ 언급(2/26, 연합)

- 미 국무부가 25일 발표한 ‘2008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의 절대적인 통치(absolute rule) 하에 있는 독재 국가’라고 규정.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는 독재를 애국주의로 정당화시키고, 김정일과 김일성 부자에 대한 신격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국가 이데올로기와 권위에 복종하고 지도부에 충성을 하도록 고안된 정치. 이념적 세뇌화에 노출돼 있다고 소개

● 北, 우주진출 정당(2/25,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5일 ‘평화적인 우주이용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란의 인공위성 오미드 발사 성공 사례를 거론,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 우주진출과 이용정책은 시대발전에 부합되는 정당한 것이며, 이를 막을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거듭 주장

● 조국전선 중앙위 회의 개최(2/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단체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 회의가 24일 평양에서 개최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중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국전선 중앙위 의장들인 강련학, 조충한, 서기국장 김완수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가했으며, 내달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에 즈음해 주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었음.

● 北 위성발사 준비...1~2주면 완료될 듯(2/24,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 북한은 24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 발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공식 발표해 대포동 2호 발사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함.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현재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 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

● 北, 현인택장관 임명 거둬 비난(2/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판내려는가’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임명은 “우리(북한)와의 전면대결을 공공연히 선언한 것”이며 “북남관계는 이제 더 이상 바로잡을 여지조차 없다”면서 “결판을 보고야 말 우리의 의지는 천백배로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

● 北, 한국제품 통제...방첩투쟁 차원(2/24, 열린북한방송)

- 북한 당국이 최근 한국 제품의 반입을 통제하도록 세관에 지시했다고 ‘열린북한통신’이 24일 주장.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대표 하태경)이 만드는 이 소식지는 “지난 17일 입수한 북한 내부소식에 의하면 북한 세관총국은 합법적이건 비합법적이건 관계없이 한국 제품의 국내 반입을 무조건 통제할 데 대한 지시를 국경지역의 모든 세관들에 공식 하달했다고 한다”고 보도. 이 지시에는 한국 물품 반입으로 적발될 경우 엄중처리한다는 경고도 포함

● 전국농업열성자회의 개최(2/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전국농업부문열성자회의가 23일 김영일 내각 총리와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김창식 농업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이 회의에선 고 김일성 주석의 1978년 1월 전국농업대회 육성연설을 청취

● 北, 선거로 일심단결 과시(2/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월 8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공화국 정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의 기상을 다시 한번 힘 있게 과시하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의지”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독려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

의원 선거가 북한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나가는 데서 참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면서 주민들은 선거를 통해 “공화국(북한) 정권을 더욱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 공장 부산물 활용 소비품 증산에 박차(2/28, 조선신보)

- 북한이 폐기물과 유휴자재 등을 활용해 만드는 '8월 3일(8.3)인민소비품'의 생산이 가장 활발했던 1993년, 1994년 수준을 넘는 것을 목표로 8.3소비품 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8일 보도
- 신문은 평양시인민위원회의 경우 2008년 8.3소비품 생산액 과제를 2007년에 비해 184%로, 유통액 과제는 246%로 초과 수행했으며, 올해 1월엔 작년 1월에 비해 생산액 계획은 193%, 유통액 계획은 174%로 초과 달성했다고 보도
- 신문은 올해 25년째로 접어든 8.3소비품의 “가짓수는 해마다 1.2~1.3배의 수준에서 확대”돼 왔으며 지난해 제품 가짓수는 1984년에 비해 약 19배인 수천 종에 이른다고 소개

● 北, 컴퓨터 장기 프로그램 개발(2/28, 통일신보)

- 북한은 “형태와 감각이 부족한 컴퓨터 장기의 치명적 결함”을 극복한 장기 소프트웨어 게임 프로그램 ‘류경 3.0’을 개발했다고 통일신보가 28일 보도. 조선컴퓨터센터에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배경 화면과 장기 쪽의 움직임 효과를 비롯해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또 정확한 국면평가와 다양한 후보 수 생성, 세련된 수 탐색을 비롯해 인간의 사고를 모방한 여러 가지 전술적 기법들을 가지고 있으며 각기 다른 초기관 배치 상태에 대응하는 데이터베이스도 갖추고 있다고 보도

● 北, 비료부족에 농사 근심 가득(2/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선의 노력’이라는 이례적 제목의 기사에서 식량부족 문제를 풀기 위한 선결 과제로 비료부족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소개

- 통신은 “지금 국가에서는 올해에 부족한 식량을 어떻게 하나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농촌에 대한 물질기술적, 노력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농업성이 선진 영농기술 등을 실물로 보여주는 다매체편집물(씨디)을 만들어 북한 전역의 협동농장들에 배포한 사실을 예시, “또한 비료를 적게 쓰면서도 높은 소출을 낼 수 있는 다수확 품종들과 해당 지대에 맞는 우량품종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시키고 있다”고 보도
- 이어 통신은 “세계적 추세에 맞게 농산과 축산을 배합해 많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데 큰 힘을 넣고 있다”며 “농장들에서는 니탄과 부식토와 같은 부식질 재료들로 흙보산비료, 생물활성퇴비, 유기질 복합비료를 생산해 논밭에 내고 있다”고 언급

● 평양제1백화점 매출 증가세(2/26, 조선신보)

- 북한의 평양 제1백화점의 매출이 지난해는 2007년에 비해 150%, 올해 1월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1.5%로 증가하는 등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6일 보도
- 신문은 이 백화점의 매출 급증 이유에 대해 “(북한) 전국의 경공업 공장들에서 생산이 활성화돼 있는 것이 요인이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이 백화점은 다른 상업기관과 달리 도매단계를 거치지 않고 있고 북한 내 1천600여개 경공업 공장과 기업소를 대상으로 직거래를 통해 상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

● 북한도 모유수유 운동 펼쳐(2/24, 조선신보)

- 북한이 “아이들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모유 수유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4일 보도
- 북한의 보건성이 이 운동을 펼치기 위해 조직한 ‘어머니젖먹이기위원회’는 “여러 가지 선전물을 작성, 보급하는 한편 병원 일군들을 위한 강습도 조직”하고 있으며, 강습에서는 임산부와 그 가족들에게 모유의 유익함을 홍보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

● **북한 전력 송·배전망 교체 55-75억 불 소요(2/26, 연합뉴스)**

-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 노후화된 송·배전망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55억-75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음.
-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노틸러스 연구소의 피터 헤이즈 소장과 데이비드 본 히펠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조지아공대(조지아텍)의 샘 년 국제학 대학 및 부설 국제전략기술정책연구센터(CISTP)가 개최하는 '북핵 6자 회담과 한반도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할 '북한의 에너지 문제'에 관한 논문에서 전망

● **조선펀드, 5천만 달러 대북투자 유치 추진(2/24, 블룸버그통신; 연합뉴스)**

- 대북투자펀드인 '조선펀드(ChosunFund)'가 5천만 달러 규모의 대북투자 유치에 나섰다. 조선펀드 설립자인 영국인 사업가 콜린 맥아스킬(69)은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조선펀드가 광산,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 북한 파트너들과 합작할 것이라고 밝힘.
- 맥아스킬은 북한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지만 자본과 기술, 경영기술이 부족하다면서 1987년부터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북한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해 왔다고 주장

● **WFP, 대북지원 비축식량 고갈 위기(2/24,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에서 어린이, 임산부, 수유모 등 가장 취약한 계층 20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식량배급마저 3월이면 비축식량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다며 한국, 미국, 일본 등에 긴급지원을 호소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
- WFP의 제니퍼 파멜리 대변인은 이 방송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당초 620만 명에 대한 지원을 계획했으나 지원식량과 자금의 부족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 200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선 지난해 11월부터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다가 한달 뒤 완전 중단했다고 설명

● **북한, 작년 대중무역액·적자 최대(2/23, 상무보통계)**

- 북한의 대중(對中)무역 의존도가 커지면서 2008년도 북·중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적자 규모도 함께 최고치를 기록. 23일 중국 해관과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북한과 중국의 무역총액은 27억8천만 달러로 2007년 19억7천만 달러에 비해 41.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라. 사회·문화 관련

● 北중간계층 변화갈망...민간교류 지원해야(2/2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중간계층은 이념에 대한 무관심 속에 변화 욕구가 강하므로 이를 장려하는 방안으로 미국 정부가 나서 민간교류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 북한 전문가가 주장
-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이 전문가는 “북한에서 만나본 중간층 관리나 주민들은 이념에 별로 관심이 없고, 외부세계와 연계되기를 바라는 등 변화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며 “미국 국무부가 나서 대북 민간교류를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

● 北 '3남후계' 전역 확산...당국 단속 無(2/24, 열린북한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운의 후계자 낙점 소식이 북한 사회 전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대표 하태경)이 만드는 온라인 북한 소식지 '열린북한통신'은 24일 북한 내부소식통들을 인용 보도
- 한 소식통은 “북한 노동당의 도, 시, 군 당위원회 부장 이상 간부들은 김정일의 후계자로 셋째 아들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언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美 6자회담 수석대표에 성 김(2/27, 연합)

- 한국계인 성 김 미 국무부 북핵특사가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의 뒤를 이어 북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게 되었음.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6일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 김 특사가 앞으로 6자

회담 대표단을 이끌게 되며,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특사와 협력해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갖는 등 일상적인 업무를 챙길 것”이라고 발표

- 김 특사는 지난 2006년 여름부터 2년간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냈으며, 작년 9월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대사급 북핵 특사에 취임

나. 북·미 관계

● 보즈워스 美대북특사 7~8일째 방한(3/1, 연합)

- 외교 소식통은 1일 “보즈워스 대사가 중국과 일본을 들른 뒤 7일이나 8일째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중,일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우리 측 인사들과 북한 미사일 및 핵문제에 대해 협의한 뒤 10일째 떠날 것”이라고 언급
- 보즈워스 특사는 주말에는 과거 주한대사 시절 친분이 있던 인사들과 사적인 모임을 가진 뒤 9일에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청와대 인사 등과 차례로 면담할 예정

● 美, 괌에 스텔스폭격기 4대 배치(2/28, 연합)

- 북한의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인공위성 발사 움직임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스텔스 기능을 가진 ‘보이지 않는 폭격기’를 괌 기지에 전진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28일(미 동부시간) 확인
- 워싱턴의 군사소식통은 미 공군이 태평양 지역 전진기지인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폭격기 B-2(스피릿) 4대를 배치 중이라면서 이들은 현재 괌에 배치돼 있는 B-52 폭격기 6대와 임무를 교대하게 된다고 밝힘.

● 美 북한전문가 일행 방북 후 귀국길(2/28, 연합)

- 2월 24일 방북 길에 올랐던 미국의 민간 북한 전문가 일행이 북한 방문일정을 마치고 28일 베이징 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돌아옴.
- 핵군축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스텐퍼드대 국제안보협력연구소 공동소장은 이날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방문은 매우 유익했다”며 “미국에 돌아가면 이번 방북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답변

● 美, 北위성발사 유엔결의위반 재확인(2/27, 미국무부)

- 미국 국무부는 27일 북한의 위성발사 움직임과 관련,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위성발사는 “여러 차례 밝혔듯이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며 “유엔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6일 위성발사가 미사일 발사와 매우 유사하고 유엔 결의안 1718호와 다른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힐 차관보가 말한 대로 위성발사는 분명히 위반”이라고 강조

● 美, 北마약거래에서 위조담배무역으로 대체(2/27, 미국무부)

- 미 국무부는 27일 발표한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에서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마약거래를, 이익이 많이 남는 위조담배무역으로 대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2008년에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인이 연루된 대규모 마약거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선 소규모 마약거래는 계속되고 있다지만 북한과 연관된 마약거래는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

다. 북·중 관계

● 中, 고위급 왕래·협력 강화 제의(2/28, 조선중앙통신; 2/26, 조선중앙방송)

- 자칭린(賈慶林)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리광호 당 중앙위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만나 고위급 왕래와 각 부문의 교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 통신에 따르면 자 주석은 지난 25일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전통적인 중·조(중국·북한) 친선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밝힘.
- 그는 양국 간 “고위급 왕래를 밀접히 해 의사소통을 강화할 것과 경제무역 협조, 두 나라 당, 정부, 군대, 사회단체 등 각 부문의 교류와 문화예술, 과학기술, 교육 등 분야의 협조, 국제문제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의

- 앞서 조선중앙방송도 26일 자칭린 주석과 북한 노동당 대표단의 면담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다고 보도

● 北中 화물선 충돌, 중국 화물선 침몰(2/27, 중국신문사)

- 북한과 중국 화물선이 27일 밤 11시40분(현지시각) 중국 산둥(山東)성 룡청(榮成)시 앞바다에서 충돌해 중국 화물선이 침몰했으나 선원 20명은 모두 구조. 이번에 중국 선박과 충돌한 북한 화물선 촌지2호는 북한 천지해운공사 소속으로 중국 산둥성을 출발해 북한 남포로 가는 길에 사고가 발생

라. 북·러 관계

● 北, 억류 러시아 화물선 석방(2/27, 미국의 소리방송)

- '2월 17일 북한 무수단곶 근처 동해상에서 북한 당국에 억류됐던 러시아 화물선이 26일 풀려났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러시아 관영 '리아(RIA) 노보스티'를 인용, 27일 보도

- 러시아영사관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러시아인 선장과 선원 15명에게 사과했으며, 선박 소속사인 아무르해운의 대변인은 북한이 평양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에게 억류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은 보도

※ 옴스키 122호는 북한이 '광명성 2호' 발사 준비작업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진행중인 가운데 무수단리 인근 해역을 통해 러시아로 향하다 북한 해군에 억류돼 김책항에서 조사를 받았음.

마. 북·일 관계

● 日, 대포동미사일 자국 항할시 요격검토(2/27, 산케이신문)

-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대포동 2호 개량형을 일본 쪽으로 발사할 경우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이용,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7일 보도. 요격은 이지스함에 탑재한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SM3)과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이용하게 되며 요격이 실제로 이뤄지면 이 시스템 도입 이후 처음 시행

- 해상자위대는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인 곤고호(2007년), 초카이호(2008년)를 배치, 항공자위대도 2007년 3월에 사이타마(埼玉)현 이루마(入間)기지에 PAC3를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8년 3월까지 수도권 4곳에 배치했으며 2월 26일에는 기후(岐阜)기지에도 배치함.
- 일본의 MD 시스템은 2단계로, 우선 일본을 향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해 우선 해상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 미사일로 요격하게 되며 여기서 요격에 실패할 경우 지상의 PAC3에서 추가 요격에 나서게 됨.

바. 기타 외교 관계

- 베트남 회사, 김정일에 선물(2/26, 조선중앙방송)
 - 베트남의 비에텔 총회사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을 보내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6일 보도

3 대남정세

- 6·15남북위, 3·1절 공동 결의문 발표(3/1, 연합)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북측, 해외 측 위원회는 1일 공동으로 3·1절 90주년 기념 결의문을 발표하고 “현재 남북관계는 정치 대결을 넘어 군사 충돌의 위험한 국면에 직면해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
 -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명의의 결의문은 “3·1 독립운동 정신에 유감없이 발현돼 있는 겨레의 자주정신을 올바로 계승해 남북분단과 대결시대를 끝내고 화해협력의 6·15 시대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올해 6·15 공동선언에서 10·4 공동선언 기간까지를 기념해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대중운동과 연대활동을 전국 차원에서 수행할 것”이라고 밝힘.
- 통일부, 개성제품 공동상표 등록신청(2/26, 통일부)
 - 정부는 최근 개성공단 공동 브랜드 ‘피스웍스(PEACEWORKS)’에 대한 상표 등록 신청을 했다고 26일 발표

-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달 특허청에 ‘피스웍스’ 상표 출원 신청을 했다”며 “등록 절차가 연말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내년부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공동상표를 정식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피스웍스’는 남북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나무를 형상화한 로고와 함께 사용된다고 통일부는 설명
- 공동 브랜드 사용은 의무가 아닌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선택 사항으로, 널리 알려진 자체 브랜드를 가진 업체들은 기존 이름을 계속 쓰게 될 것으로 보임.

● 통일부, 北미사일 이유 비닐지원 보류(2/25, 연합뉴스)

- 대북 민간지원 단체들이 북한에 못자리용 비닐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 기금을 통일부에 요청했으나 통일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을 들어 심의를 보류
- 북민협 소속 한 단체 관계자는 25일 “비닐 지원 사업을 통일부측과 협의하던 중 지난 23일 통일부 관계자가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들어 1,2주 정도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다”고 밝힘.

● 북,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해안포 사격 훈련(2/24, 연합뉴스)

- 북한이 24일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해안포 사격 훈련을 실시, 군 당국이 경위를 파악, 국방부는 그러나 이에 대해 “통상적인 동계 훈련 중 하나로 도발 징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

일시	내용	보도일자
01월 01일	2009년 신년공동사설 발표	중통, 조선신보, 중방, 평방, 중앙TV(1/1)
	김정일 위원장,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중통(1/1)
	만수대언덕 김일성 동상에 김정일과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등 명의 꽃바구니 진정 및 인민군 군인, 각계층 근로자 등 헌화	중방(1/1)
01월 02일	김영남, 12/3 미안마 독립 기념 국가평화발전이사회 위원장에게 축전 발송	중방(1/2)
01월 03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 류경수 제105탱크사단 방문	중통(1/3)
	일본의 군사적 해외팽창 움직임에 대해 재침 책동이라고 비난	민주조선·노동신문(1/3)
01월 04일	경공업성 부상, 올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입는 문제 해결”이라고 인터뷰에서 언급	조선신보(1/3)
	김일성의 평성시 삼화협동농장 현지지도 60돌 기념 보고회 진행	중방(1/5)
01월 05일	김영일 내각총리, 새해 공동사설 관철 평양시 군중대회 참석	중방(1/5)
	일본의 조총련 조사행위를 탄압 행위라고 규정하고 강력 비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겐이찌'와 일행, 평양 도착	노동신문(1/5) 중통(1/5)
01월 06일	김정일, 새로 건설된 원산청년발전소 방문 및 격려	중통(1/6)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2009.03.08 실시 결정	중방(1/7)
01월 07일	김정일, 고 엄영춘 빈소에 화환 전달	중방(1/7)
	재일본학생소년예술단(단장:이일렬 히로시마조선초중고급학교장) 평양 도착 공동사설 관철 군중대회, 평남, 평북, 황북, 함남에서 각각 진행	중통(1/7) 중방(1/8)
01월 08일	평양시 일꾼, 당원, 근로자들 13,00여 톤의 파철 모아 천리마제강연합 기업소에 보냄	중방(1/8)
	함북, 철도성에서 새해 공동사설 관철 위한 군중대회 진행	중통(1/9)
01월 09일		
01월 10일	원산청년발전소 준공식	중방(1/11)
01월 11일	체육의 날 행사, 집단달리기 등 진행(김일성 광장). 전국 각지에서 대중체육활동 전개	중방(1/12)
	미국의 무력증강 비난 및 북미 평화 협정체결 요구	중통(1/12), 노동신문(1/15)
01월 12일	경공업, 수산업, 상업부문 단위들, 공동사설지지 결기모임 진행	중방(1/12)
	외무성대변인의 담화, 美의 핵위협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	중통(1/13)
01월 14일	노농적위대 창건 50돌 중앙보고회(인민문화궁전)	중방(1/14)
	김정일,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와 금성트랙터공장 현지지도	중통(1/14)
01월 15일		
01월 16일	외무성, 주북 중국 대사관성원 위한 연회 개최	중통(1/16)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1월 1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대남 전면대결태세 진입 등을 선언	중통, 중방, 평방, 조선중앙TV(1/17)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2752군부대 관하 군분대 시찰	중통(1/17)
01월 18일		
01월 19일	만수대창작사와 중앙미술창작사 등, 100여 점의 미술작품 새로 창작	중통(1/19)
01월 20일	공동시설 과업 관철 위한 선전화 전람회 개막(평양국제문화회관)	중방(1/20)
01월 21일	미국 제44대 대통령 '오바마' 정식취임(1/20) 간략 보도	중통, 중방, 중앙TV(1/21)
	제14차 백두산상 중앙기관 일꾼 체육경기대회 개막(평양체육관)	중방(1/21)
01월 22일		
01월 23일	김정일,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면담, 북-중 관계 및 6자회담 등에 대해 논의	중통, 중앙TV(1/23)
01월 24일		
01월 25일	'비핵·개방·3000 입안자'를 통일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려하는 것이라고 비난	민주조선(1/25)
01월 26일	설 명절 맞아, 만수대 언덕에 꽃바구니 진정 및 각지의 김일성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	중통(1/26)
01월 27일	김정일, 공훈국가합창단의 설 명절 경축 공연 관람	중방(1/27)
	러시아 외무성대표단(단장 : 알렉세이 보로답킨 부상)의 평양 방문(1/27-1/30)	중통(1/27)
01월 28일		
01월 29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공군사령부협주단의 공연 관람	중통(1/29)
01월 30일	조평통, 남북간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의 무효화 및 서해 해상군사경계선 관련 조항의 폐기 선언	중통(1/30)
01월 31일	김정일, 예성강청년1호발전소 현지지도	중통(1/31)
	조선노동당출판사,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선거 '모두다 찬성투표하자' 등 제작 출판	중방(1/31)
02월 01일	김정일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하는 제333호 선거구 선거자 대회(4.25문화관)	중방, 중통, 중앙TV(2/1)
	천리마 잡지 창간 50돌 기념보고회	중방(2/1)
02월 02일	4대 근로단체(농근맹, 직총, 여맹, 청년동맹), 최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시설 과업에 관하여 논의(2/2-2/5, 평양).	중통(2/3-2/6)
	총참모부 대변인 기자회견.美的 핵위협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천명	중통(2/2)
02월 03일	미국의 이스라엘 비호 및 한반도 주변의 무력증강 비난	노동신문, 민주조선(2/3)
	김정일,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현지지도	중통(2/3)
02월 04일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2월 05일	북, 오바마 정부에 핵포기 논의전 북·미 적대관계 해소촉구	조선신보(2/5)
	김정일, 2.8비날론연합기업소와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중통(2/5)
	김정일 업적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 개최(인민문화대공전)	노동신문(2/5)
02월 06일		
02월 07일	김정일, 흥남비료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중통(2/7)
	이 대통령의 남북관계 관련 언급('대통령과의 원탁대화', 1/30, SBS TV)을 거론하며 비난	민주조선(2/7)
02월 08일	김정일, 낙원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중통(2/8)
02월 09일	적극적인 대 유럽외교, 영국과 대표단의 상호 방문 등 활발한 인적교류시도	조선신보(2/9)
02월 10일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중통(2/10)
	조선우표사, 김정일 생일 관련 기념우표 발행	중방(2/10)
02월 11일	김정일, 포병사령부 관하 제681군부대의 포사격훈련 참관	중통(2/11)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교체(인민무력부장에 북한군 차수 김영춘, 총참모장에 대장 이영호를 임명)	중통(2/11)
	美 중앙정보국장(CIA)의 발언을 계기로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	조선신보(2/11)
02월 12일	김정일, 원산유리공장 등 원산 시내 위치한 산업시설들과 원산농업대학을 현지지도	중통(2/12)
02월 13일	남 통일부는 대결부로 전락될 것이라고 비난	민주조선(2/13)
02월 14일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 용산참사와 관련 정부를 강하게 비난	노동신문(2.14)
	제13차 김정일화 축전 개막식(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	중방(2/14)
02월 15일	김정일의 67회 생일 기념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평양체육관) 및 각종 경축행사 진행	중통, 중방(2/15)
02월 16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와 관련 한국과 미국 등에서 논의는 북한에 대한 모독과 도발이라고 불만을 표출.	중통(2/16)
	김정일, 67회 생일('42.2.16 하바로프스크 출생)	중통, 중방(2/16)
02월 17일		
02월 18일	김 위원장의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 선포 35돌 중앙보고대회 개최	중방(2/18)
02월 19일	군 총참모부대변인, 북한군이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한 상태라고 경고	중통(2/19)
02월 20일		
02월 21일	김정일,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나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중통(2/21)
02월 22일	김정일, 7월7일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중통(2/22)
02월 23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26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중통(2/23)
	김영남, 재일본조선인총하단(단장: 이기석 총련 상임위 부의장)과 담화	중통(2/23)
02월 24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광명성 2호 발사준비 본격 진행" 담화 발표	중통(2/24)
	공 생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인민대학습당, 2/24-25)	중통(2/28)
02월 25일	김정일, 김정숙혁명사적관, 회령기초식품공장, 회령대성담배공장, 중앙은행 회령지점, 김기송회령제1중학교 현지지도	중통(2/25)
	김일송 노작 발표 전국고려의학과학토론회 진행(평양, 2/24-25)	중통(2/25)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2월 26일	제4차 전국 선동원대회 개막(평양 4.25문화회관)	중통(2/26)
	김일성 평성합성가죽공장 현지지도 30돌 기념보고회	중방(2/27)
02월 27일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 폐막(청춘거리 농구경기관)	중통(2/27)
	조선우표사, 3.1인민봉기 90돌 기념우표 제작	평방(2/27)
02월 28일	제10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진행	중통(2/28)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